영가천도 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단일 · 합동천도 봉행 조상령 천도전문 · 낙태아 수자령 천도
무료책자신청 문의상담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9월 8일(음력7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490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산사의 가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여름내 살찐 고추는 잘 익어 붉게 물들고, 파란 하늘은 자꾸만 높아집니다. 수원 봉녕사 경내에서는 햇볕을 쬐러 나온 한아름의 고추가 상큼한 향기를 풍깁니다. 이제 정말 가을입니다.
수원=고영배 기자

힘든 세상 안심법문이 최고

범어사 · 도선사등 전국 고승초청법회 '풍성'

"마음 땅(心地)은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마조록)

가계부채 500조원, 신용불량자 4백만명.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돈 문제로 족쇄를 차고 있다. 세계 1위의 자살율, 2위의 사건발생율, 3위의 이혼율 등등.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추락시키고 있는 온갖 통계들이 시민들의 깊은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 요즘,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 고승 초청법회를 열어 중생들의 허전한 가슴을 감로법문(甘露法門)으로 채워주고 있다.

남악회양 스님이 심지법문(心地法門)을 통해 마조도일 스님에게 깨달음의 기연을 만들어 주었듯이 시민들에게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전해주는 사찰들은 조계사, 범어사, 동화사, 도선사, 불광사, 법왕사 등.

주로 도심에 위치한 이 사찰들은 민생파탄으로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을 위한 안심법문과 더불어 수행법까지 덤으로 지도하는 대중법회를 준비중인 곳은 서울 불광사(02-420-3200). 불광사는 10월 4~10일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 7인 초청법회와 연말까지 매달 셋째 일요일 선원장 담선(談禪)법회도 연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수행법 특별강좌를 연다. 초청된 큰스님 7인은 지관(가산불교문화원장), 고산(쌍계사 조실), 정무(석남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회주), 우룡(학성선원 조실), 혜정(원로의원), 성수(황대선원 조실) 스님이며 선원장스님 3인은 현산(화엄사선원장), 지환(기본선원장), 무여(축서사 주지) 스님이다. 지홍(생활수행) 청견(절) 무심(사경) 정목(염불) 성정(기도) 스님 등이 강의하는 수행법 강좌는 시민들이 기복신행을 넘어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접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 범어사(051-508-3636)도 7월부터 계속해 온 고승초청법회의 후반기 일정을 확정했다. 범어사 선덕 대정(9월12일), 제주 국청사 회주 혜운(9월22일), 부산 미륵암 주지 백운(10월2일), 범어사 조실 지유(10월14일) 스님 등이 설법에 나선다. 대구 동화사(053-985-4404)는 '간화선(참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9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매주 토요일 담선 대법회를 연다. 동국대 강사 월암(9월11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9월18일), 동국대 교수 성본(9월25일), 봉암사선원장 정광(10월2일) 스님 등이 논주로 참석해 선(禪)으로 마음 닦는 법을 알려준다. 조계사는 포교원장 도영(9월8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9월12일), 용주사 주지 정락(9월16일) 스님 등을 초청해 9월 법회를 연다.

도선사(02-993-3161)는 9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7관세음보살 33일 기도 및 고승대덕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총무원장 법장(9월8일), 경국사 회주 인환(9월11일), 도선사 회주 혜성(9월23일), 봉선사 조실 월운(9월26일) 스님 등이 차례로 법문한다. 지난 7월18일부터 100일간 '화엄법화산림 백고좌법회'를 봉행중인 법왕사(053-766-3747)에서는 장수 성관사 회주 월성(9월12일), 前 포교원장 암도(9월14일), 대성사 조실 도문(9월19일) 스님 등이 법석을 이어간다.

14년 동안 연인원 1500여 고승을 초청, 매년 백고좌 법회를 열어 온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큰스님들의 감로법문은 중생의 고통을 녹여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계사 대웅전 11월 낙성식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이 올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 봉행된다.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총재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추진위원회)는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또 "최현규(문화재수리기능공 제1521호) 씨를 대웅전 대목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신계사 2차 발굴조사 및 석탑해체 조사와 관련 "탑지를 조사한 결과 대웅전 남쪽에 방형(方形)의 부석(敷石)시설이 확인됐으며, 이는 일제강점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대웅전 1차 조립공사에 들어간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비구니회 대표단이 현장을 방문해 원만불사를 위한 기원법회를 열며, 복원공사 총괄 진행과 모연 등을 담당하는 현지 상주 스님도 10월 12일 경 파견한다.

남동우 기자

부석사의 4계 우표에 담아



영주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우표집이 발간됐다.

영주 부석우체국이 최근 발행한 '부석사 풍경 우표집'은 부석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우표 속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다. 우표집은 계절 당 5장씩 모두 20장으로, 부석사 총무 도륜 스님이 직접 찍은 작품이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본사가 젊어지고 있다

40대 주지 '변화의 새바람' 기대

월정사 정념 법주사 도공
해인사 현응 쌍계사 원정
봉선사 철안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가 젊어지고 있다. 8월 30일 현응 스님이 총림인 해인사 차기 주지로 추천됨에 따라 24곳 중 5곳의 교구본사 주지 소임을 40대 스님들이 맡게 됐다. 이 '젊은 스님들'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와 교감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주지 취임 후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산사영화제' '단기출가학교' 등을 개설, 일반인에게도 사찰문을 열었고, 월정사-상원사 도로 포장 불가를 천명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정념 스님 뿐 아니라 '가장 젊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또한 주지 진산식에서 화환을 받지 않고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등에게 쌀과 김치를 전달했다.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내에 영어학당을 개설, 요즘은 '영어삼매'에 빠져있다. 주지 진산식을 열지 않는 대신 불우이웃돕기에 그 비용을 전달한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과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도 40대 주지다.

동안거 결제기간이어서 공부중인 대중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지 진산식조차 하지 않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5천여명을 초청한 경로잔치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또한 50대 초반의 '젊은 축'에 속한다.

본사 주지들이 '젊어지는데' 대해, 20년 전 40대에 부산 범어사 주지소임을 맡았던 흥교 스님은 "당시 젊다는 것을 무기로 교과서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경험이 많은 어른 스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대중과 함께 의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동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10년' PDF로 보세요

www.buddhanews.com

'현대불교'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붓다뉴스에서 지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그간 발행한 모든 신문을 지면 그대로 볼 수 있는 PDF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확대했습니다.

■현대불교PDF 보기
· 붓다뉴스 회원가입
· 로그인
· 초기화면 PDF 보기 클릭
· 원하는 지면 선택
· 원하는 페이지 선택
· 확대 축소 기능 이용 열람

'한국불교 달라져야' 원고 모집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교계 곳곳의 고질병에 할 말은 없으십니까?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접수 마감: 9월 30일
■접수 : 우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문의전화: (02)722-4162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할'



그림 · 조태호

혜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23쇄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부처님 말씀의 길잡이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불자의 기본을 갖추자

수계는 물론 불교기본교육조차 받지 않은 불자들이 수두룩하다. 법명도, 정기적인 법회 참석도, 다니는 재적사찰도 없는 불자들이 '불제자' 흉내를 내고 있다. 현실이 이쯤 되다보니 시쳇말로 '지역구 불자는 없고 전국구 불자들만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무늬만 불자'가 많은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불자로서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로서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는 교단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보를 호지해야 하고 보시 및 계율을 수지해야 하며 상구보리하화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의무와 함께 교육받고 참여하고 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자비의 문중에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까닭은 삼보의 한 축이 되는 승보가 확립되지 못하면 불교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계 · 기본교육 무시하면 '비불자'
형식 잘 갖춰야 귀의 · 정진 향상돼

한국불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보다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튼튼히 해야 한다. 처음이란 <화엄경>에서도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모든 공덕을 회향시키기도 하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처음에 놓이게 되는 삼보호지의 불사이지만 이 큰 불사의 시작은 바로 '나'를 혁신하는 불사임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교단의 그 구성원으로서 '나'인 신도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신도의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교육은 백년의 대계라고 하듯이 새로운 백년, 혹은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피교육자인 신도는 재적사찰을 결정하고 스님이나 기존 신도에게 입문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재적사찰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과 나' '가르침과 나' '스님과 나'가 아니라 '삼보가 되는 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보에 들어가기 위한 '나'는 이에 신심을 증장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계와 불자의 기본 생활 규범인 5계 등을 받아서 종단의 신도가 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신도로서 형식적인 자격을 갖춘 신도는 각 재적사찰의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 법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참회, 발원, 기도, 참선 등의 수행정진을 통해 자신을 돌이켜보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다만 스스로 닦고 정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불퇴전의 정진을 발원하는 불자라면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불교를 실현해야 한다.

신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며 불법을 배워 나간다면 제대로 된 불자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영석(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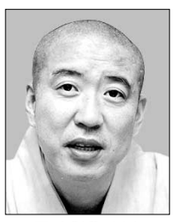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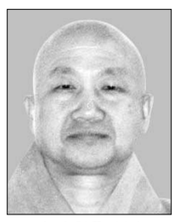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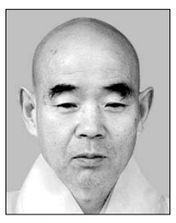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수좌 원융 스님


율주 종진 스님


유나 원각 스님


선원장 선각 스님

새 '자리'에서 화합가풍 솔~솔~

수행풍토 진작·종무행정 혁신 기대
각종불사 둘러싼 '논란' 향방 관심

현응 스님이 합천 해인사 새 주지로 추천됨에 따라 해인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종정이자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8월 30일 열린 해인사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차기 해인사 주지로 현응 스님을 추천한 것을 비롯, 방장 유고시 방장을 대리하는 제2인자인 수좌에 원융 스님, 율원의 대표인 율주에는 종진 스님, 유나에 원각 스님, 선원장에 선각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해인사의 대대적 인사 단행은 대중 화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해인사 내 각 문중별 중요 직책 안배를 통한 융화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종무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차세대 주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방장스님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응 스님은 '해인'지 편집장,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차세대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인사 관광도량화 중단과 바른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수경)도 8월 31일 "현응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고, 불사검토협의회의 합리적 진행을 위해 애써 온 분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해인사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또 해인사 내 각 문중들도, 현응 스님이 공의에 따른 투명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어른스님들을 잘 보필하고 바른 수행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해인사는 내원암 불사, 동판대장경불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등 대형불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새 주지 취임에 따라 불사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인사 관계자는 "동판대장경 불사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며, 신행문화도량 건립은 투명하면서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환경연대에서 집행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현응 스님이 차기 주자로 발탁됨에 따라 불사에도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인사는 현재 주지직 인수인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 주지 스님의 임기는 원래 11월 21일까지지만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주 내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 9월 중순경에는 주지 진산식이 봉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배지선 기자

전국 전통사찰 913곳
문광부 현황자료집 발간

전국 전통사찰현황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관광부가 8월 31일자로 발간한 〈전통사찰현황〉은 총 321쪽 분량으로 △전통사찰 현황(요약편) △시 · 도별 전통사찰(상세편) △전통사찰현황 보충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찰명, 소속/종단/주지/성명/건립연대, 건물현황, 토지현황, 연혁 · 유래, 소장문화재, 등록일 등 전통사찰과 관련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913곳, 등록된 사찰은 892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조계종 소속은 731곳, 태고종은 97곳, 법화종은 22곳, 선학원은 15곳, 대각회는 3곳, 법륜종은 3곳, 보문종은 2곳, 일붕선교종은 2곳, 원효종은 3곳, 기타 12곳으로 나타났다.

남동우 기자

정야·원융 스님 제적
홍선스님 공권정지 5년

정야(부산 선암사 주지) · 원융 스님(전 서산 간월암 주지)은 제적, 홍선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은 공권정지 5년의 징계가 확정됐으며, 원혜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은 증거조사로 결정났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9월 1일 위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홍선 · 정야 스님은 부산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종단 내 종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다. 원융 스님은 무단으로 간월암 주지 행사를 한 것과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건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 징계를 받았고, 원혜 스님은 봉은사 보우당 불사와 관련한 공금 유용 건으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임시종회 9월15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제164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안건으로는 호법부장 동의의 건, 군승교구법 제정의 건,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기타안건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신행정수도 '인근'서 불교문화 대중화 정착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공주로 확정

불교문화 대중화를 선도할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부지가 최근 공주 마곡사 인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 3만 5천여평으로 확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접근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부지 선정 최우선 항목으로 뒀다"며 8월 31일 이 같이 밝혔다.

또 스님은 "'간화선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정숙성과 자연친화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등 경영 채산성 문제를 보안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는 불교문화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문화와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게 된다.

남동우 기자

163명 행자교육
9월2일부터 송광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9월 2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열고 제27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고불식에는 교육원 입방을 신청한 206명 가운데 입방 갈마를 통과한 남행자 80명 여행자 83명 등 총 163명이 입교했다.

행자교육원에 참가한 행자들은 교육 기간동안 습의예참, 작법, 부처님 생애 등 기본교리를 중심으로 3주간 진행되며 8월 23일 5급승가 고시를 거쳐 사미(니)를 수계한다.

조용수 기자

본사사령

노병철 유철주
김강진 이은비
命 취재부 기자
권양희
命 불교정보센터 기자

2004년 9월 2일

2004 동화사 담선대법회(桐華寺 談禪大法會)
-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불기 2548(2004)년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12회에 걸쳐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담선대법회(談禪大法會)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화사 담선대법회는 그 형식에 있어서 중국 양무제(梁武帝) 이후 시행되어 온 무차법회(無遮法會),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시행하여 온 담선법회(談禪法會), 강원의 전통 교수법에 기반한 간경결제인 논강(論講)의 맥을 계승한 것으로 논주(論主)와 논사(論師)가 기본적으로 발제와 논평을 맡는 점에서는 논강의 형식을,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종안(宗眼)을 드러내는 지혜 개발의 장이라는 점에서는 담선법회의 모양을, 누구나 진리의 법연(法筵)에 차별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차법회의 양식을 수용한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거울로 삼아 작금의 혼란을 일소하고 정법을 명명백백히 천양하는 자리로 이번 담선법회가 자리잡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국 제방에서 자취를 감추고 정신에 몰두하시는 명안종사(明眼宗師)들께서는 이 법요에 수희 동참하시어 종풍을 점검하고 정법을 찬양하여 이 땅에 불일(佛日)이 결코 쇠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 **일 시: 불기 2548(2004)년 9월 4일 ~ 11월 20일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 **장 소: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 **동참비: 총12회 참가비- 일반인 10만원, 스님 5만원 (교재비 포함)**
  1회 참가비-2만원(교재비 1만원 별도)

大韓佛教曹溪宗 第9教區 桐 華 寺
住持 知性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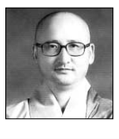

제1회 근본불교 시대의 선 사상과 실천(9월 4일 · 진행 : 현응스님)
논주 : 호진스님(소르본느 대학교 종교학 박사, 前 동국대 교수)
논사 : 미산스님(옥스퍼드대학교 철학박사, 전 조계종 사회부장, 하버드대학교 세계종교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재연스님(인도 뿌나대학교 산스끄리뜨학과 박사수료, 現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조준호(인도 델리대학교 철학박사, 現 동국대학교 강사)


제2회 북종선과 남종선의 사상과 실천(9월 11일 · 진행 : 현응스님)
논주 : 월암스님(북경대학교 철학박사, 現 동국대학교 출강)
논사 : 유진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現 동국대학교 교수)
혜원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現 동국대학교 교수)
법수스님(일본 불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동국대학교 강사)


제3회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9월 18일 · 진행 : 법인스님)
논주 : 설우스님(법인정사 선원장)
논사 :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동화사 금당선원 선원장)
해월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수련스님(선원 수좌회 편집위원, 간사, 복지분과위원장)


제4회 조사선의 성립과 수행체계(9월 25일 · 진행 : 홍사성)
논주 : 성본스님(일본 고마자와대학교 연구과 박사, 現 동국대학교 교수)
논사 : 철인스님(30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한 선방 수좌)
혜원스님(위참조)
정각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現 동국대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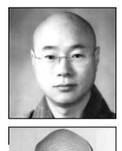

제5회 간화선의 성립과 선 사상-대혜어록을 중심으로(10월 2일 · 진행 : 지환스님)
논주 : 정광스님(봉암사 태고선원 선원장)
논사 : 철인스님(위 참조)
서강스님(20여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한 선방 수좌)
법공스님(일본불교대학원 박사, 現 동국대학교 강사)


제6회 간화선의 수행체계 - 무문관을 중심으로(10월 9일 · 진행 : 해주스님)
논주 : 철인스님(30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한 선방수좌)
논사 : 성본스님(위 참조)
유진스님(위 참조)
월호스님(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 現 해인사 강원 사교 강사)


제7회 간화선의 수행방법 - 공안참구와 공안공부(10월 16일 · 진행 : 영진스님)
논주 : 무여스님(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축서사 선원장)
논사 : 지환스님(위 참조)
성본스님(위 참조)
영일스님(통도사 강원 졸업후 10여년간 선원에서 정진한 선방 수좌)


제8회 간화선의 수행과 선병의 문제(10월 23일 · 진행 : 홍사성)
논주 : 지오스님(전 해인사 강원 강주, 現 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20안거 修禪)
논사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원 강주,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現 용연사 주지)
각묵스님(선원에서 10여년간 修禪, 인도 뿌나대학교 산스끄리뜨학과 박사 수료, 現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영일스님(위 참조)


제9회 간화선 수행의 바람직한 방향(10월 30일 · 진행 : 해주스님)
논주 :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동화사 금당선원 선원장)
논사 : 설우스님(위 참조)
성본스님(위 참조)
월암스님(위 참조)


제10회 위빠싸나 수행과 간화선의 비교(11월 6일 · 진행 : 법인스님)
논주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원 강주,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現 용연사 주지)
논사 : 방두스님(해인사 강원 졸업후 10여년간 국내선원과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서 修禪)
마성스님(스리랑카 빠알리 불교대학원 졸업, 現 빠알리 문헌연구소장, 동국대학교 강사)
흥수스님(봉녕사 강원 졸업후 20여년간 선원에서 정진한 선방 수좌)


제11회 간화선의 본질과 의미 (11월 13일 · 진행 : 영진스님)
논주 : 고우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
논사 : 설우스님(위 참조)
월암스님(위 참조)
각묵스님(위 참조)

제12회 종합토론 - 간화선과 현대 한국불교(11월 20일 · 진행 : 영진스님)
지금까지 참여한 논주, 논사 스님들이 참여한 종합토론 진행

문의전화
· 전 화 : (053)982-0101 / 전송 : (053)985-4405
· 담당자 : 교무국장 玄天 스님 (E-mail : suniyengar@hanmail.net)

내년 30주년 맞는 불교진흥원, 후임 이사장 선임 · 향후과제

지원 확대 · 사업 전문화 '한목소리'

8월 24일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로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홍승희 직무대행' 체제로 갈지 새 이사장 선임할지 관심

현재 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가장 연장자인 홍승희 이사(성곡문화재단 이사장)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는 9월 말경 열릴 진흥원 이사회나 간담회를 앞두고 새 이사장 선출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돈각 前 이사장 시절 운영전반을 도맡으며 후임 이사장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에 대한 이사장직 승계도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송 이사가 최근에 있었던 불교방송 사장선임과 동국대 교비전용문제를 이유로 이사장 선출에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사가 이사장을 맡든지, 홍승희 직무대행이 전임 서 이사장의 남은 임기 3년을 채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새 출발을 기약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의 새 체제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진흥원과 새 이사장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그런 만큼 새 이사장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진흥원이 1대(구태회, 75~80년), 2대(황산덕, 80~89년) 1기 관선이사 체제와 3대(장상문, 89~92년) 창건주 가족 및 4, 5, 6대(서돈각, 92~2004년)에 이르는 2기 정립시기를 거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3기 체제를 맞는 만큼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교계 열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진흥'이라는 진흥원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진흥원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현실안주'라는 평이다. 이는 진흥원이 설립초기부터 자산의 유지관리에 치중해온 데서 기인한다.

설립이후 자산 유지관리에 치중 교계 지원예산 연 2억원 불과

예산의 활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중단도 한몫한다. 87년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하고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교계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 불교방송이 설립되면서 진흥원 예산 50억 중 지원예산인 목적사업비의 약 80%인 8억여원이 매년 불교방송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진흥원의 교계단체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흑자를 구현하고 있는 불교방송의 독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IMF를 거치며 단체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계에서 바라보는 진흥원의 위상도 변화가 생겼다. 자체사업 확대로 관리비 및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면서 교계로 지원되는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 추진부분도 다시 검토해봐야할 과제다.

90년대 초 괴산 다보수련원 등의 설립에 40여억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매년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교계의 활용도 면에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15~20여억원이 소요되는 양주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이 재정을 이유로 약간씩 지급되던 교계의 포교지원비 및 학술지원비까지 끊은 마당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보화 사업등 불교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등 불교계 전반에 활력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15억 이상 드는 양주 불교체험관 건립 타당성 의문 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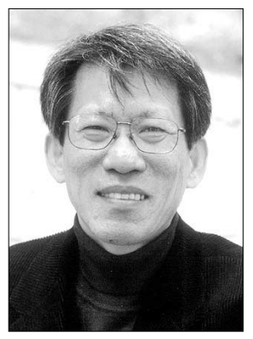
결국 불자들은 대표적인 교계 재가불교 지원재단인 진흥원이 故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진흥'에 더욱 힘써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군장병 소장학자등 불교인재 양성과 해외포교등 한국불교계가 풀지 못하고 있는 막중한 포교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진흥원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은 재가불교계의 대표적 지원재단으로 30년동안 교계단체 지원, 군불교 지원, 불교학자 양성, 청정운동 전개, 재가불교 활성화, 교양대학 운영, 불교문화센터 운영 불교발전에 큰일을 해왔다"며 "진흥원이 내년 30주년을 맞고 새 이사장이 선임되는 시점에서 불교진흥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재가불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보존-연구-활용' 균형 잡겠다

인터뷰 유홍준 신임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것이다. 기존 틀에 얽매일 생각은 없다"

9월 3일 임명된 유홍준(55) 신임 문화재청 청장은 문화재청 개혁과 정책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유 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문화유산 답사 붐을 일으키며 문화재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인물. 행정관료가 독식해오던 문화재청 청장에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 청장은 9월 2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재란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인 만큼 문화재 정책은 중요하다"며 "밖에서 문화재를 공부하던 입장과 안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체적인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보존 · 연구 · 향수(享受)라는 세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현행의 보존 위주의 관리체계에서 탈피, 문화재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유 청장은 "문화재청이 일반 행정관리를 뛰어넘어 연구와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큐레이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문화재 행정의 제일 과제인 보존에 치우쳐온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비판 전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유 청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까닭은 그간 보여 온 진보적 성향과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열정 때문이다. 유 교수가 문화재청을 개혁하고, 내실있는 문화재 보존 · 관리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하나하나 검토해나갈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또 남북간의 문화재 교류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민족간 동질성을 확인하는 근거"라며 "남북간 교류라는 대세에 문화재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해 교류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고, 통일 · 외교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체적 맥락 안에서 조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해 앞서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익순 기자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980년에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홍익대 ·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80년대 한국민족미술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는 등 문화계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85년부터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91년 영남대, 2001년부터는 명지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나의 북한문화유산답사기>, <완당평전> <화인열전> 등이 있다.

천성산 전문가 검토 난항

철도공단 불참, 첫 회의 무산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철도공단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 환경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월 26일 합의한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철도공단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환경부 역시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별달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대책위'(이하 범불교대책위)는 이에 대해 "9월 1일로 예정된 전문가 검토의 방법 · 절차 · 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첫 회의가 공단 측의 무성의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범불교대책위 측 관계자는 "대한지질공학회가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단의 원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줄 예상한 바"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율 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58일간 단식하며 얻어낸 성과인 정부와 철도공단의 '전문가 검토' 약속의 실현 여부는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먼저 환경부가 철도공단을 설득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면담을 이미 신청했다.

시민행동은 9월 2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범불교대책위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향후 사업 계획을 조정했다.

강유신 기자

기독교인 법당 난입 불상 두 동강



부산 장림동의 용수암의 법당내 아미타불이 두 동강 나는 훼불사건이 일어났다.

8월 26일 오전 7시 15분경 기독교인 정현호 씨가 법당에 난입, 불단위에 올라가 삼존불 중 아미타불을 바닥으로 밀어 불상이 머리와 몸통으로 두 동강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현장에서 붙잡힌 정씨는 장림 2동 서진교회 신자로 정신장애 2급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 않아 풀려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사가 설교 중에 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우상이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IMF도 왔다고 해서 우상을 제거한 것뿐"이라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이 같은 훼불사건은 광신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넘어가지만 사실 심각한 현상이므로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에서 상정, 불교계 전체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천미희 기자**

직지 탄생일 선포식 열려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3주년을 맞은 9월 4일,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박충일) 주최로 '<직지> 탄생일 선포식'이 인쇄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 선포된 <직지> 탄생일은 1377년 8월 19일로, 1377년의 백중에 해당한다.

박충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지> 탄생일 지정은 인쇄문화의 뿌리 찾기다"며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직지> 하권 말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日'로 돼있어서 그동안 1377년 8월에 인쇄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박익순 기자**

정토회, '빈그릇 운동' 추진

정토회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빈그릇 운동' 등을 펼친다.

정토회는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 안 남기기 10만인 서약 캠페인 등 '빈그릇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정토회에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등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1천명 회원들과 함께 직접 서약을 받는 거리캠페인,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 (한정섭) · 대학원장 호암 (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안요지 · 문제점

현장조사 부실 … 여론수렴 시늉만

2003년 12월에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령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법률과 시행령(안)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역 사찰의 종교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까지 제약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백두대간법과 시행령(안)의 골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마련한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의 핵심은 난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지역 내의 개발 행위와 범위 · 기준 ·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 ·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기타 조립식 건조물 건립 등 불가피한 개발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방 · 군사 · 도로 · 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의 협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에 백두대간 내에 2천 2백여 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174개 사찰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는 등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문제점

오대산을 대표하는 월정사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합리적 지정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월 3일 발표했으며, 강릉 보현사도 8월 30일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평창 무주 진안 등 지역적으로 낙후된 전라남 · 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주민들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이미 백두대간 보호법 재검토 건의안을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단체들 또한 "핵심 보전구역 내 도로, 군사시설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광산개발 등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민원에 고랭지 채소단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찰과 주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탁상에서 선을 그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심지역인 태백과 횡계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잡종지 종교용지 심지어 도로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월정사는 "이미 자연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각종 개발과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다시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론 수렴 과정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 몇 번의 공청회만이 열린 채 백두대간 보호 지정에 해당사찰 및 주민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다. 특히 백두대간 내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불교계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의 보완을 위해 국립공원과 전통사찰들을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사찰대표 및 주민을 보호구역 지정에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 · 전통사찰 보존행위외 개발 제한

보호구역에 도로 · 도심 · 농지 포함 "안될 말"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임진왜란 희생자 한 · 일 합동위령재

17일 남양주 봉선사서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한 · 일 합동위령재가 열린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철안)와 (사)일본이동교실협회(이사장 고우이치로우)가 '한일공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재'를 9월 17일 남양주 봉선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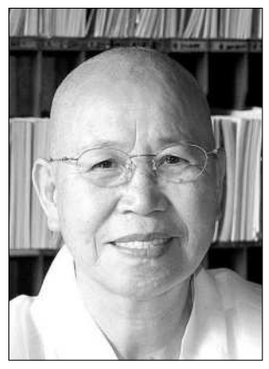
일본 측의 제의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은 한국의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양국의 친선과 평화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본이동교실협회 고우이치로우(入江孝一郎) 이사장과 고야산 연화원 히가시야마 태청 등 일본 측 인사 10여명이 16일날 입국할 계획이다.

위령재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법문과 본행사인 진혼기원법요식, 봉선사합창단의 조가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령재가 끝난 후에는 조선조 마지막 황태자비이자 일본의 공주였던 이방자 여사의 묘 금곡릉을 찾아 이 여사의 원혼을 기릴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2> 정덕 스님

불법 사회화 전방위 활동



"아파하는 이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자비의 전화 상담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야기에서 가정, 직장,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아파하는 중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나누는 것이 기쁘기만 합니다."

1990년 개설된 '자비의 전화'에서 14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서울 인과선원 주지 정덕 스님.

전화벨만 울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사연을 듣는다는 스님의 말씀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젊은 시절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유교를 비롯해 도교, 기독교, 한의학 등 안해본 공부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불교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스님은 은사스님인 대영스님 문하에서 10여년을 행자로 수행에 매진했다.

1979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82년 범어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수덕사 견성암 등 전국 제방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정덕 스님에게는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자비의 전화가 확대 개편된 불교상담개발원의 수장을 맡아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고 입적하신 혜춘 스님을 모시고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해 시작한 전국비구니회 활동도 벌써 20년째다.

광우스님이 회장하던 시절에는 사회부장으로 8년동안 회관 건립 등에 전국비구니회의 주요 현안들을 임원 스님들과 합심하여 현실화시켰고 지금은 부회장 소임을 맡아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불교 환경운동 단체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로 수행환경 지킴이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특별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로 부처님법의 사회화에 힘쓰고 있다. 노원구 경승, 맹호부대 군법당 건립 지원 및 군 장병 위문 등 소외 계층에 불교를 알리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바깥활동이 많아 사찰을 자주 비웁니다. 상좌들과 신도들에게 미안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한 일이기에 몸은 힘들고 항상 시간에 쫓겨 살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정덕 스님은 최근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펼치고 있다. 미륵사 창건이 바로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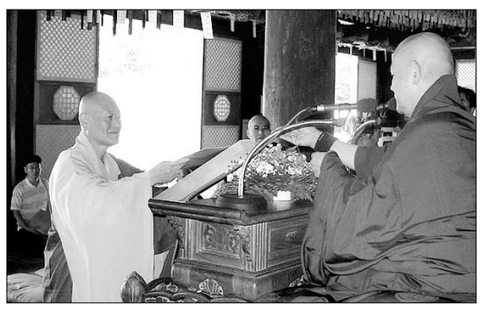
서울 월계동에 인과선원을 창건, 도심 포교에 전력하면서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래서 충남 금산에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미륵사 불사를 시작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 하지만 스님은 미륵 부처님의 도량을 완성하는 것을 이 생의 마직만 서원이라며 연신 천진스런 웃음을 내 보이신다. 김두식 기자

비구니회 · 자비의 전화 · 인드라망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서 실천하는 꿋꿋한 수행자

지관 스님, 무관 · 법혜 스님에 계맥 전수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오른쪽)이 무관 스님에게 범어문중의 계맥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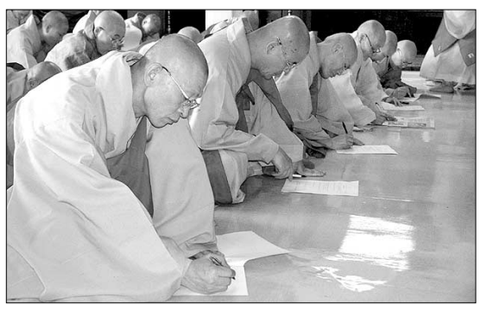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에 의해 전승된 범어문중의 계맥이 무관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법혜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에게 이어졌다.

8월 28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금강계단에서 열린 전계식에서 지관 스님은 만하-성월-경염-자운 스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계맥을 무관 · 법혜 스님에게 전계했다.

지관 스님은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증과 계맥전승도, 계첩을 수여한 뒤 "수행의 근본인 계율을 청정히 해 진정한 흥불(興佛)의 시대가 올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무관 스님과 법혜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계율을 굳게 지켜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도 10월께 자운 스님의 계맥을 종진 · 성우 · 철우 스님에게 잇는 전계식을 열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태고종 스님 200여명 법계고시 치러



9월 1일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법계고시에서 스님들이 답안을 쓰고 있다.

"스님들도 시험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시험도 안 치르고 어른 노릇 할 수 있나요?"

시험 감독이 엄하게 분위기를 잡았지만 장난끼가 발동한 한 스님이 옆 사람을 살짝 엿보면서 시험장은 한바탕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9월 1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9차 법계고시는 그렇게 시작됐다.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던 2백여 스님들도 이날만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처지가 됐다.

가장 낮은 법계인 선덕 고시장이 마련된 설법전은 화기애애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덕 바로 위 법계인 중덕의 문제지에는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 통째로 담겼다. 승랍 20년 이상의 종덕 법계 면접이 치러진 삼천불전에서는 갖가지 법문이 쏟아진다.

법계 승계 여부는 9월 25일 열리는 고시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품수식은 10월 4일 봉원사에서 열린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韓·中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 기대

2일, 칭따오에 장안사 분원 개원법회
양국 300여명 참석 … 한국 범패시연도


9월 2일 열린 개원법회.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행과 한 · 중 양국의 문화교류 중심이 될 한국사찰 장안사(長安寺)가 중국 칭따오(淸道)에 건립됐다.

경기도 일산 장안사(주지 병진)는 9월 2일 칭따오 석노인관광원 현지에서 '장안사 중국분원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안치영 칭따오 총영사관 영사, 곡효탁 칭따오주임 등 한 · 중 양국의 현지 관계자를 비롯해 장안사 개원을 축하하기위해 한국에서 칭따오를 찾은 고양시 사암연합회(회장 도명)소속 10여개 사찰 스님, 신도 150여명과 현지 교민, 조선족, 중국 현지인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장안사 개원법회에 앞서 도명 스님은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점안의식을 증명하고 "머나먼 중국에 한국사찰을 건립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국에서 제일가는 도량으로 거듭나 먼 훗날 신라방 법화원 같은 대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원식에서 병진 스님(중국 칭따오 장안사 회주)은 인사말을 통해 "수년전부터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사찰건립 원을 세웠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장안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발전 교류는 물론, 양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근 한국칭따오 총영사관은 축사에서 "칭따오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 한국사찰이 건립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측에서 곡효탁 칭따오주임도 축사를 통해 "장안사 개원으로 칭따오에서 한국 민속 문화가 빛날 뿐 아니라 양국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날 개원식에는 서울 봉원사 혜경 스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자 스님들이 불교의식을 시연, 칭따오 중국현지인에게 처음으로 한국 불교범패를 선보였다.

글 · 사진/중국 칭따오=이준엽 기자


중국 칭따오 한국사찰 장안사 전경. 대지 1500여평에 대웅보전(40평), 요사채(40평), 공양간(80평) 등의 전각이 중국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 칭따오 장안사는

'무공해 사찰음식점' 운영 통한 재정 자립
주변 생태공원 지정, 향후 사찰 연계 기대

중국 장안사는 중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칭따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석노인공원지구내에 자리해 있다. 해변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석노인공원지구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칭따오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장안사 옆에 대형 '생태박물관'이 들어서는 등 생태농업과 차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사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대불산 자락에 해변을 끼고 있는 장안사는 대지 1500여평에 대웅보전(40평), 요사채(40평), 공양간(80평) 등의 전각이 중국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특히 장안사는 생태공원지구와 연계해 공양간을 '무공해 사찰음식점'으로 개방,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칭따오는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상업 도시. 15년부터 한국기업이 칭따오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 칭따오 경제를 한국기업이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칭따오에는 교민 6만여명, 조선족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개신교측에서 선교에 앞장서 교회와 성당 5~6개가 있다.


참석자들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인 터 뷰

■ 장안사 창건주 병진 스님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집이 마련됐으니 본격적으로 포교해야죠."

3년 전 칭따오를 방문했다가 교민들로부터 뜻하지 않게 사찰건립 요청을 받은 병진 스님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법당 고국 향하도록 건축
"한국인 보금자리 되길"

교민들의 요청이란 "주말이면 갈 곳이 없으니 정신적 구심점이 될 사찰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주5일근무제여서 주말이면 교민들 대부분이 주점이나 골프,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해보자"고 발심하자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칭따오 정부에서 선뜻 석노인관광지구를 주선했고 불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해방이후 최초의 한국사찰 건립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병진 스님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땅보다 양지바른 곳을 선택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봄 기공식을 했지만 전염병 사스파동이 났다. 결국 또다시 5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다가 가을부터 시작해 이번에 낙성을 하게 된 것이다.

병진 스님은 장안사 법당방향을 서쪽으로 잡았다. 장안사를 참배할 때마다 동쪽에 있는 고국을 향해 절하고, 고국을 잊지 않도록 하기위한 배려에서다.

"교민은 물론 조선족 교포와 중국인 등 부처님을 따르는 이는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병진 스님은 "1200년전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원처럼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진 스님은 40여년전 마곡사로 출가해 지정 스님에게 불화를 전수받고 줄곧 불화를 화두삼아 수행해 오고 있다. 일산 풍동 장안사에 국내 최초로 사설 납골추모관을 건립했으며 고양사암연합회 고문으로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 <한국불화 도본> <탁본의 세계> 등 다수가 있으며 '불화기초'와 '관세음보살, 오백나한 초본'을 정리했다.

■ 장안사 주지 선혜 스님



"포교는 물론 지역 교민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라기보다 부전스님으로 생각하고 뛰겠다"는 장안사 초대 주지 선혜 스님은 "지역민이 쉽게 찾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화합에 노력"

선혜 스님은 이를 위해 "정기법회와 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해 불교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장안사 위치가 좋아 주민과 교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교민들에게 사찰을 사랑방처럼 열린 공간으로 제공해 포교와 교민화합에 일조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해외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선혜 스님은 "국내불자들에게는 장안사가 중국 성지순례의 거점사찰이 되어 편안한 성지순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동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륜 행실도, 신이담,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륜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립(申砬)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라 하여 꺼린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룽먼(龍門)의 거센 물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폭한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천한다는 전설에서 곳이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나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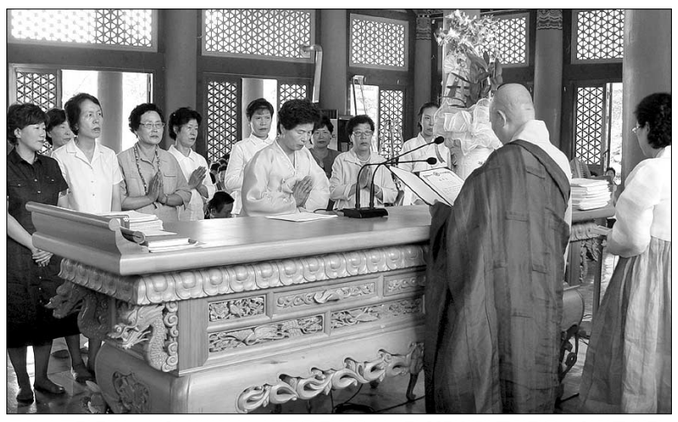
끝까지 봐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 041)622-4985 / H·P : 018-690-4985

대구 봉황자원봉사단 창립4주년 기념법회

"전문화로 거듭나자"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봉사자 2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교육제도 도입·조직력 강화에 역점

조계종 교구 본사 최초 연합 봉사단인 제9교구 봉황자원봉사단이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봉사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착수했다.

2000년 8월 31일 창단된 봉황자원봉사단은 15개 사찰 350여명의 봉사자를 갖춘 조직으로 결식청소년 지원, 대구 맹인불자회 점자도서관 설립 바자회, 어르신 경로잔치, 대구지하철 참사현장과 태풍 루사 피해현장 복구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불교계 자원봉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본말사 간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봉황자원봉사단은 8월 31일 창립 4주년을 맞아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기념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었다. 교구 차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봉사단이라는 자긍심에 걸 맞는 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본사 동화사 포교국은 3개월 전 이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봉사단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봉황자원봉사단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한 동화사 포교국장 법륜 스님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는 현대에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며 봉황자원봉사단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첫째는 체계적인 봉사자 교육이다.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이름을 내기 위한 차원이 아닌 수행의 일환이 되도록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봉사단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교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왜 봉사를 하는가' 하는 마음가짐부터 자세, 태도, 역할까지 기본교육을 거친 봉사자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둘째, 본 말사 간 봉사단의 연대를 강화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재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단순 노력봉사 차원을 넘어 장애우, 어르신, 영·유아 시설 등으로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봉사자 양성, 이·미용,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봉사자를 확보하고 봉사단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법륜 스님은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본사는 물론 말사 스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봉사자 교육에 말사 스님들을 투입, 말사 스님들간의 유대를 긴밀히 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봉사단에 대한 관심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월정사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프로그램 '톡톡' 주민 기대 '쑥쑥'

진신사리 이운·체험행사 다채

산사영화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포교 역할을 톡톡히 했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강원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월정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불교문화축전은 오대제 축제위원회 중심으로 매년 9월 중에 개최됐던 오대제를 8월 '평창 산약 꽃플 축제'와 10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으로 특성화한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불교문화축전은 체험의 장, 참여의 장, 화합의 장, 전시의 장, 공연의 장, 판매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첫째 날 '불교한마당'에서는 200여평 규모의 수련시설인 대법륜전 점안식 및 낙성식이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에 이어 상원사에 봉안돼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에서는 외국인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보천태자의 헌다례 과정을 재현해 불교가 일개 종교가 아닌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알리게 된다. 보살계 수계 대법회와 점등식(만등 밝히기, 탑돌이), 전국 규모의 불교 합창단 찬불가 경연대회, 산사 영화제를 끝으로 축제의 하루가 마감된다.

둘째 날 '문화한마당'에서는 오대산 사진 공모전, 청소년 사생 백일장 대회, 불교문화공연(영산작법, 학춤), 사물소리향연 및 체험 등이 열린다. 특히 월정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오대산불교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국제 불교문화공연도 선보인다. 월정사측은 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불교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연등빛과 소리의 만남에 이어 국악과 서양음악, 대중음악, 마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가 둘째 날의 끝을 장식한다.

셋째 날 '지역주민한마당'에서는 오대산 비로봉 금빛 걸음 등반대회, 회향식, 회향한마당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유물로 보는 문수신앙 특별전, 중국 오대산 사진전, 오대산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서각전 및 체험, 예술연등 전시회, 티베트 탕카전 등 다양한 전시회와 먹을거리 시장, 특산물 판매, 서로돕기 바자회, 다례체험, 사찰음식 및 산채비빔밥 체험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믿고 편안히 맡기세요

부산 선재어린이집, 24시간 탁아소 개원


부산 선재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받는 모습.

"사찰 이점 살린 정서교육 할 것"

부산 교계 최초로 24시간 탁아가 가능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 내에 문을 연 선재어린이집(원장 이명숙)은 12개월부터 7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의 직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탁아가 가능하다. 24시간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과 다양한 놀이, 게임을 진행한다.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이 운영하는 선재 어린이집은 95평의 건평에 교실 4개, 놀이방 1개, 사무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40명 정원으로 8월 초 문을 열었고, 8월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24시간 보호 아동 2명을 비롯 22명의 원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재어린이집은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교실을 적게 하고 공동 놀이방에서 함께 어울려 놀려 있도록 놀이방을 크게 설계했다. 이 밖에도 기둥과 복도를 모두 둥글게 마감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했다.

이 명숙 원장은 "절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하는 어린이집이라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고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다도 수업, 텃밭 가꾸기 등의 수업을 통해 사찰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서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증심사 입구역'이 마땅

광주 타종교계 재심청원 광주사암련 강력 비판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이하 광주사암련)는 특정종교의 일부인사들이 이미 최종 확정된 광주지하철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최근 재심 청원을 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사암련은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한 시비제기와 역명변경요구는 특정종교에 편향된 일부인사들의 편협적인 현실인식이 낳은 독선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암련은 이어 "종교적 명칭의 역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원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광주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하무인격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증심사 입구역'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은 증심사가 단순한 불교사찰의 이름을 떠나 천년역사를 통해 지역민에게 깊이 인식된 전통명칭인데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방향과도 전적으로 부합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차 통한 만남의시간 즐겨요" 해인사 다경원 차문화 수련


청운다례원과 관정다례원 등의 차 시연 모습.

해인사 다경원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경당에서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차문화 수련법회는 전국의 다인들과 차를 좋아하는 불자 120여명이 동참해 차를 통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에는 박희준(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씨가 '차와 향의 어울림'에 대해서 도예촌 밝달가마의 여상명 씨가 '차실문화와 도자기'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참선에 이어 법진 스님의 법문, 백련암 참배와 헌다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9일 율원 앞 파란 축구장에서 펼쳐진 들차회는 이번 수련법회의 하이라이트로 청운다례원(원장 박선우), 관정다례원(원장 전정희), 명정차회(회장 배명자)의 잎차, 말차, 중국차 시연이 진행됐다.

다경원은 차를 마시며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차를 좋아하는 해인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모임이다.

4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다경원은 <다로경권>이라는 회보 발행으로도 유명하다.

배지선 기자

노인학대 해결책 모색 불국토 8일 워크숍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쉼터를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9월 8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열리는 노인학대 예방 제10차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워크숍은 '노인학대 예방센터 도입에 따른 발전방안' '노인학대 예방 실천 사례연구'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전략' 등의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부산광역시 노인쉼터 윤기혁 소장, 박남철 ISO9001 사회복지분야 심사원 등이 나서 이론, 현장, 심사의 세 분야에서 살펴본 노인학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051)867-9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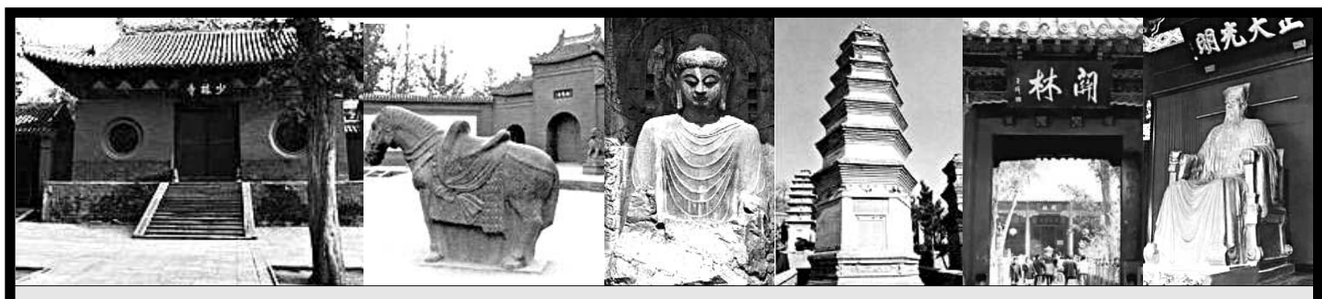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울산 관음암 '들꽃축제' 열어

울산 관음암(주지 대활)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관음암 경내에서 들꽃 전시와 음악회가 어우러지는 '들꽃축제'를 개최했다.

들꽃축제에서는 좀개구리밥과 개족도리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0여종의 야생 들꽃이 전시됐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는 지역의 통기타가수와 색소폰 연주자, 국악인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려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4년 10월 1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4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 림 사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 마 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판관 포청천의 개 봉 부
삼국지 관우의 묘지 탑 림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10월1일	인천 정주	전세기 CZ8090	22/50 23/50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2일	정주 등봉 낙양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등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 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3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원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10월4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섬간회관, 포청천의 관저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철탑공원 관광. 정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10월5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팁,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마감 : 9월 20일 ◆ 계 약 금 : 150,000원 ◆ 비자수수료 : 18,000원
◆ 연 락 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7-9337
FAX 02)337-3231~3858

불교문화로 '중원의 발전' 견인

충주 우륵문화제 · 중앙탑탑돌이 지역대표행사 **음성** 교통요지 포교중심 부상

충북 충주·음성

8월 31일 밤 11시. 충주의 밤은 빨간 불을 켠 십자가들로 뒤덮여 있었다. 20여개가 넘는다. 붉은 십자가가 유난히 크고 많아 보였다.

인구 22만의 충주. 정확한 교회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 수로만 본다면 기독교세가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누라 뭐래도 중추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불교'다. 충주는 삼국시대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중원문화권을 대표하는 곳. 충주의 130여 사찰들은 선조들이 이룩했던 찬란한 불교문화를 되살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음성 광명선원은 8월30일 백중법회에서 합동천도재 의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열렸던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중앙탑 탑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

충주 불교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우륵문화제'에서 진행되는 중앙탑 탑돌이 행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중앙탑 탑돌이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지역의 각급 기관장 등을 포함한 지역인사 170 여명으로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하는 한편, 중앙탑 탑돌이에 10바라밀의 의미를 함축시켜 법계도를 도는 의식으로 탑돌이 행사를 진행해왔고, 결국 충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암연합회는 이번 기회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 받겠다는 각오 아래, 올해 행사는 10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개최, 국제무술축제(10월1일~7일)와 전국체전(10월8일 개막)이 열리는 기간에 탑돌이를 선보이며 국내외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사찰들마다 고유의 색채를 다듬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황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미륵대원선원과 미륵사지세계사는 아름다운 산수와 사지(미륵대원터, 미륵리사지)를 품고 있는 특성을 살려 역사에 남으면서도 참배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불사를 추진 중이다.

충주의 대표적 도심포교당인 우암정사는 어린이 포교에 주력하고 있고 미륵대원선원 충주포교당, 창용사, 삼충사 등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대웅전 낙성법회를 가진 석종사가 내년에 출 · 재가자의 수행을 위한 참선 전문도량을 열고 본격적인 참선수행 확산과 포교에 나서게 되면 충주불교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머지 않아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교통요지로 떠오르게 될 중부권의 핵심 지역. 음성불교가 상당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명선원을 비롯한 몇몇 사찰들이 있다.

음성불교를 대표하는 광명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포교 1번지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회만도 정진법회, 요전법회 등 10여 개나 되고, 활동 중인 신행회도 청 · 장년층 신행회와 충주지역, 이천 · 여주지역 신행회 등 7개에 이른다. 게다가 지역의 초 · 중 ·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봉사단체인 한사랑회는 8년째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활발한 복지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특히 음성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 학생 · 청년 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주대와 서울여대 대학법회도 여는 등 불교인재양성의 산실로도 각광받고 있다.

용화사는 거사들의 모임인 반야회를 축으로 신도들의 활동이 활발하며, 가족단위의 신행을 장려하면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화암사는 참선 프로그램을, 미타사는 비구니 선방을 운영하면서 지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충주 · 음성=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스님들

간화선 중흥의 대표 선지식

혜국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제주 남국선원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선수행 지도를 해오면서 조계종 수행가풍을 잇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식을 하며 장좌불와(長坐不臥)했고, 성철 · 구산 ·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도성암 등에서 정진했다. 20년 전부터 석종사 불사에 뜻을 두었던 스님은 3년 간 대웅전, 요사채 등 불사를 추진, 마침내 지난 5월 충청불교계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의 문을 열었다. 내년에 스님 선방인 금봉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원이 완공되면 직접 참선 지도에 나설 계획.

재소자 포교에 각별한 노력

경우 스님

충주 신흥사 주지
한국불교해동종 종정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 40년을 한결같이 지역불교를 지켜 온 충주불교의 아버지 경우 스님. 1987년 충주사암연합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사암련 고문을 맡아 헌신하고 있다.

특히 경우 스님은 재소자 포교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쏟아왔다. 15년째 청주여자교도소 종교위원을, 5년 전부터는 대전지방교정청 종교위원을 맡고 있으며, 20여 년 동안 충주소년원 종교위원, 청주교정협의회장, 전국교정협의회 중앙위원 등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현재 한국불교해동종 종정으로 있다.

약수 공급으로 시민에 각광

정관 스님

충주 미륵대원선원 원장
선학원 총무이사



충주 불자들은 정관 스님이 이곳에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수행력, 행정능력, 포교 마인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실공히 충주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좋은 물을 혼자서는 마실 수 없다며 1997년부터 미륵대원선원에서 나오는 약수를 매일 5톤씩 하루도 빠짐없이 시내에 마련한 포교당에 실어 날라 지역민들에게 공급해왔다. 정기적인 법회를 통해 신도교육과 포교에도 매진했다.

선학원에서는 총무이사와 중앙선원 주지를 맡아 행정과 수행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선학원에서는 수행과 실무를 겸비한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도제양성과 석조대웅전 불사에 전념,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지역 발전에 '개인' 버린 스님

의천 스님

충주 칠곡사 주지
충주 사암련 회장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천 스님이 그렇다. 4년 전 사암련 회장을 역임한 뒤 물러났지만 자기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스님을 지역불교계는 그냥 두지 않았다. 충주불교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보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선봉에 섰다. 자타가 공인하는 충주불교의 핵심.

중앙탑돌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사암연합회 합창단을 창립하는 등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 위원, 충주 구치소 교화위원장, 군부대 지도법사 등을 맡아 지역과 포교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전방위' 포교활동 분주

혜공 스님

충주 우암정사 주지
삼론종 부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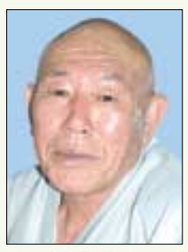
어린이 포교와 복지에 대한 원력이 크다. 한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충주의 어린이 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불교유아유치원연합회를 창설하고 유치원 교재 · 교구를 연구개발해 보급하는 등 젊은 시절을 어린이 포교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주구치소 교화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12년째 한국불교노인복지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복지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지금은 노스님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들고 싶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삼론종 6 · 7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4년 전부터는 부종정으로 있으면서 종단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애종심이 남달라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중앙탑 탑돌이 재현 주인공

혜성 스님

충주 동가섭사 주지



7년 전 충주 사암련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중앙탑 탑돌이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고는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생각해 낸 것이 법계도를 따라 도는 형식에 10바라밀의 사상을 녹여내는 것이었다. 각 바라밀을 상징하는 절을 연구, 10바라밀을 의미하는 10가지 절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중앙탑 탑돌이는 이런 혜성 스님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불교문화재로 태어났다.

불사를 사랑하고 즐기는 '일꾼'

충주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 주지부임 1개월만에 미륵세계사를 몰라보게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량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미륵리사지를 참배하기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느라 하루가 짧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상호 좋은 미륵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 위로 뜨는 예쁜 둥근 달을 볼 수 있고, 또 부처님 일에 몰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매력이 느껴지는 스님이다. 미륵세계사를 충주의 최고 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는 열정아래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덕관 스님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생활불교로 '고향포교'

음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화사를 창건해 20년 넘게 '고향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음성불교의 터줏대감. 생활불교를 강조하며 꾸준히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역민들과 가까운 강점도 있지만 친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포교영역을 확대했다. 내년에 신도들의 신행공간인 설법전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이 끝나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청 스님

음성 용화사 주지



대작불사 성공사례 '귀감'

명안 스님

음성 미타사 주지



폐사지나 다름없던 곳에 대규모의 지장보살성지인 미타사를 일궜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잔치를 여는 등의 포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비구니 스님 선방과 요사, 그리고 수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돋보기


미륵리사지 5층석탑과 석불입상

중원 미륵리사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 사각석등, 당간지주, 5층석탑, 3층석탑, 미륵리석불입상 등이 산재해 있는 사지로, 중원문화권의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불교유적지다.

사지 바로 옆에 미륵세계사가 있고 문화유산해설사도 상주하고 있다. 충주호, 수안보온천, 수옥정폭포 등의 관광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어 볼거리도 풍부하다. (043)848-3034

신흥사 법당 옆 미륵부처님 앞에 서면 충주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강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장관이 일품이다. 사찰 규모는 작지만 고려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찰. 16나한전에는 석불 4분이 모셔져 있다. (043)852-4261

미륵대원선원 대웅전에 들어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단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단청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미륵대원선원으로 가라. 단집에서 천장, 법당 문까지도 단청의 미가 스며들어 있다. (043)846-5945

창룡사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말 나옹 스님과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주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절. 충주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남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절에 이르는 숲길의 운치가 그만이다. (043)847-2702


가을경치가 아름다운 광명선원 대웅전.

광명선원 파란 잔디 위에 펼쳐진 전각들, 나무 아래 벤치, 산신각으로 나 있는 자연미 넘치는 계단. 그 조화로움 한 복판에 서서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맞닿을 듯한 하늘.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부족한 곳. 이런 절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 (043)877-5000

3cc 헌혈,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생명나눔본부, 골수 기증 희망자 1500명 돌파

대학생 청년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 호응 높아

연내 2500명 목표 다각적인 홍보 전개키로

"골수기증,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 이하 실천본부)가 9월 현재 1500명의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았다. 올 처음 시작한 '골수기증등록 캠페인' 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괄목할만한 숫자이다. 연말 목표 등록수도 고쳐 잡았다. 500명 늘려 2500명의 골수기증 희망자를 등록시키고, 기증캠페인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실천본부가 이렇게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에서 성과를 보인 원동력은 설립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복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삶과 생명을 나누는 참뜻을 실천한다는 창립 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 초 10주년 기념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불교계 직장 · 직능단체, 강원, 신도단체, 복지시설 등과 연대활동, 자원봉사조직 기반 재정비도 한 몫을 했다.

실천본부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16차에 걸쳐 진행된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캠페인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8월 25~27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캠페인에서 501명이 기증등록신청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경주 불국사 56명, 대구 동화사 14명 등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불교계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8월 4일 개최한 연합캠프에서 청소년지도자 39명이 골수기증등록을 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6일 연 여름대회 현장에서 청년불자 85명이 기증 희망자로 동참했다. 거리의 시민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 서울 종로타워 일대에서 300여명, 서울대학로에서 103명 등이 3cc헌혈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천본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골수기증등록자 수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인간 골수기증을 위한 유전자 일치율이 70%를 상회하려면, 최소한 골수기증등록자가 20만 명이 돼야 하기에 그렇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2003년 기준으로 파악한 골수기증등록자는 불과 5만3천여 명. 전국민적인 관심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천본부는 이를 위해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9월 10일 서울 동대문 프레야 타운 일대를 비롯해 12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는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22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골수기증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은미 기획홍보부장은 "골수기증등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골수기증이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며 "본인의 유전자형을 미리 등록해놓다는 생각으로 동참하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연예인봉사단과 함께 8월 31일 서울 종로타워 일대에서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골수기증등록' 이렇게 하세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이란?

골수기증희망자등록은 3cc 정도의 채혈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증희망자에게서 채혈한 혈액으로 조직형(HLA)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단체 신청시에는 10명이상의 기증희망자가 모이는 날짜와 장소 등을 연락해 주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직접 채혈해 주고, 개별적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연락 하면 채혈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기증 대상

18세~40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면 누구나 가능

▌골수 기증 절차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유전자형이 입색되면 기증자는 수혜자와 조직적합여부를 결정, 건강검진을 거쳐 골수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부담금

없음(검사비는 정부에서 부담, 수술시 비용은 수혜자 부담)

▌나눔의 성금 접수

한 불자님이 익명으로 나눔의 손잡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해 주었습니다.

부산 이제권 님 – 5만원
이현이 님 – 5만원
김준성 · 장윤희 님 – 48,900원
총 누적금액 21,894,580원

▌살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봉은사 나눔가게로 오세요"

26번째 상설매장 문열어

수익금 장학사업에 쓰기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가운데)과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 등이 8월31일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삼성역점'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눌 작은 터전이 마련됐다.

봉은사 경내 건물에 중고물품 판매수익으로 이웃돕기 기금을 조성, 지역사회로 회향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8월 30일 개점된 것이다. 26번째 상설매장인 이곳 '아름다운 가게'는 '봉은사 삼성역점'으로 명명됐다. 불교계에서는 부천 석왕사 원미점에 이어 두 번째.

봉은사는 자원봉사인력, 장소, 물품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손숙 · 윤팔병 · 박성준)' 단체에서 운영해 나간다. 특별히 이번 봉은사 '아름다운 가게 삼성역점'의 개점에 맞춰 인근 코엑스 직원들이 의류 200여점, 책 300여권을 비롯, 생활 소품과 주방기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봉은사가 운영하는 서산 · 사명 장학회(회장 김경남)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아름다운 가게'측은 수익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분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한다.

한편 이날 개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아진 소중한 가게의 의미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피어나는 나눔으로 모인 열매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존재하는 것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 뚫어진 생명의 그물코를 다시 엮는 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이슬비처럼 세상을 적시며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불자님들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부천 상동점 운영) 등 종교계의 아름다운 가게 운영자를 비롯해 포스코 이구택 회장과 인터콘티넨탈 심재경 사장, 인터파크 이상규 사장 등의 재계 인사도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www.beautifulstore.org (02)516-7887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 · 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눈빛조차 마주치길 꺼려하는 불자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체류' 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떨군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스리랑카 식당 '구시아' 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

불안·배신감…교회라도 다녀야할 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후 그들의 삶은?

"절에 가고 싶어요. 법회만이라도 열어주세요."

9월 1일 경기도 김포시 OO리.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스리랑카 식당 '구시아' 주인 가미니(33) 씨는 어둠이 깔리면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틈까지 단속한다. 얼마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언제 출입국 단속요원들이 들이닥쳐 자신과 친구들을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 눈빛조차 편히 놓아둘 수 없다.

'구시아'에 모인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의 눈에서도 극도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옆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출입국관리소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담배를 문다. 예전에는 단속 기간만 피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잡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긴 한숨을 쏟아낸다. 낮 동안 바깥출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아예 공장에서도 외출을 못하게 막는다.

그나마 어두워질 무렵 눈을 피해 다닐 뿐이다. 그래도 한국을 불교국가라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감' 뿐이다.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20일 14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한데 이어, 21일 290 명 30일 157명 등 하루 평균 1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내쫓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스스로 귀국 비행기에 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루 평균 50여 명에서 130여 명으로 곱절이나 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자나타(26) 씨는 "'코리안 드림'은 접은 지가 이미 오래"라고 말한다. 2001년부터 한국 땅에서 번듯한 사업체를 꾸릴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키운 자나타 씨. 하루에 꼬박 12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연장근무도 마다 않았다. 하지만 그 꿈이 절반도 이뤄지기 전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됐다. 이제는 분노마저 없어졌다. 남은 건 고향에 남겨둔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뿐이다.

자나타 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같은 불교나라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사찰도 가고, 한국 말을 배워 법문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스님들의 법문을 들려달라는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사찰은 한곳도 없었다. 법회라도 열어준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절에 가고 싶었다. 한번만이라도 법석을 마련주기를 바랬다. 한국 스님을 붙잡고 애원도 했다.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무관심뿐.

불교계 무관심 속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 개종 잇따라

'코리안 드림' 잊은지 오래…노동허가제 실시, 연수생제 폐지해야

스리랑카 공동체 회장 두민다 씨.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준 사람은 교회 목사와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교회는 일단 한국생활에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주었다.

한국 말 배우는 것부터 병원 가기, 밀린 임금 받아는 법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러다보니 예배시간을 참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성경을 읽어야한다는 것도 거북한 일이 되지 않았다.

"임금 체불, 산재 등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의사와 변호사뿐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한국에는 불자 의사와 변호사가 없는 줄만 알았어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스리랑카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랑카(28) 씨는 "이대로라면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쫓겨날 처지"라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자에게 강한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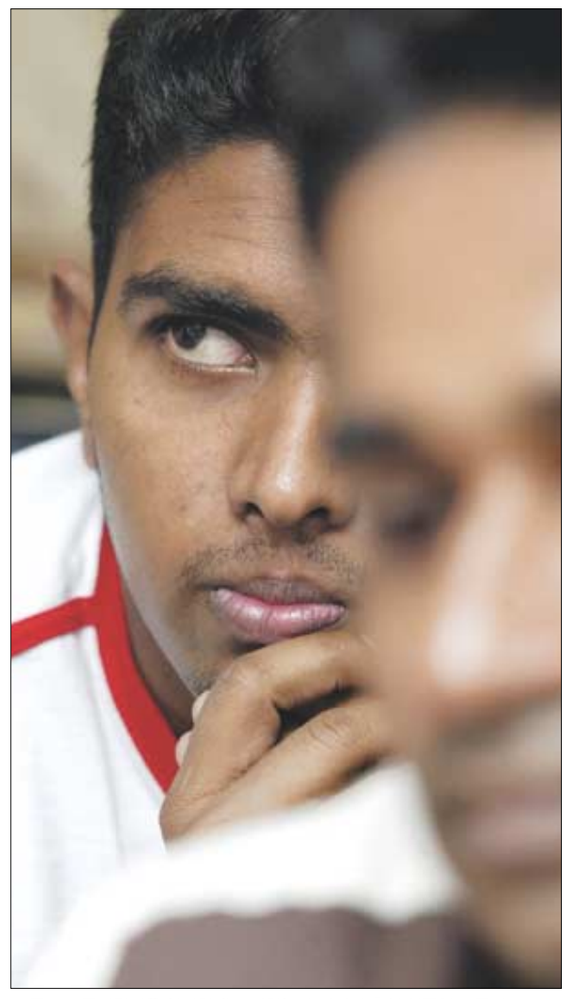
현재 한국에는 36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불법체류자는 17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무려 6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천주교의 '말씀의 선교수도회' '착한목자수녀회'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등, 개신교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지만, 불교계가 지원하는 단체는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부천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보성 대원사, 부천 석왕사, 구미 남장사, 작은손길 산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 안산 보문선원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회개최, 의료서비스, 한글학교 등을 열고 있을 뿐이다.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5%에 달하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UCCP(필리핀 연합교회) 소속 존스 갈랑 선교사는 8월 17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확실한 전도 기회"라며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구본희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산업 연수생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등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글=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국으로 돌아갈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조계종, 외국인 노동자 법회 활성화 · 지원확대 대책 마련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6월 견지동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 외국인 상담지원센터를 열었으며 8월 27일 첫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찰의 외국인 지원활동 유도 △한글교실과 사찰문화체험 △정부정책 등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나서고 있다.



www.drsa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불교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일과 시간에 쫓기는 일터불자일수록 한달에 한번 정도 집중수행이 필요하다.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 원들이 지난해 서울 기원사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크게 한 번 나를 죽인다(大死我一番)’. 7일 안에 깨우치라며 ‘집중수행’을 강조했던 선지식 해안(1901~1974) 스님이 불자들에게 던진 법어다. 죽기로써 대드는 용맹심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짧고 굵은’ 수행을 해야 마음공부의 진전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렇기에 일과 시간에 쫓겨 사는 일터불자들에겐 ‘집중수행’이 더욱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나를 죽이는’ 수행을 하는 일터불자들에게 그 효과를 들었다. 이들이 공개하는 집중수행법, 구체적인 수행담 등을 소개한다.

집중수행하면 업무 생산성 ‘up’

자기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확인한다

삼흥컨설팅 김성부 회장(63 · 은암). 지난 3년간 서울 안국선원에서 6번의 안거수행을 마쳤다. 스님들이 여름과 겨울에 3개월간 들어가는 안거 기간에 맞춰 화두를 집중적으로 들었다. 새벽 5시와 저녁 7시면 시민선방에서 2시간씩 화두 정진을 했다. 회사 일로 바쁜 그였지만, 안거기간만큼은 언제나 안국선원 시민선방을 지켰다. 이유는 간단했다. ‘수행의 고삐’를 확실히 다잡기 위해서였다. 느슨해진 마음자리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화두공부의 진척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또 직장업무로 제대로 풀지 못했던 마음속의 의심덩어리를 뿌리 채 거둬낼 생각도 있었다.

집중수행은 김 회장에게 즉각적인 자기변화를 일으켰다. 일에 치여 혼미한 자신을 ‘깨어있는’ 모습으로 탈바꿈시켰고, 치우친 마음자리를 평상심으로 돌려놓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일도 당연하게 여겼던 무딘 감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또 일방적인 업무 지시에 익숙했던 30년차 금융계 CEO의 마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꿔놓았다.

“안거기간의 집중수행은 변하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화두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점검하고 반성도 할 수 있었지요. 마음자리가 부쩍 커지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경험은 집중수행에서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3년간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해온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총무 김영균 경사(49 · 진산)도 집중수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면 광주 원각사에서 3시간씩 염불집중수행을 하면서 한 주간의 마음흐름을 점검한다. 3교대 근무로 치안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김 경사는 일에 쫓기다보면, 순간순간 마음가짐을 똑바로 챙길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집중수행. 짧은 시간동안 수행력을 집중하면서 마음자리의 변화를 관찰했다. 울컥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고, 나태했던 마음 끈을 단단히 조였다. 덕분에 김 경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감정조절을 하게 됐고, 일에 집중력도 생겨 업무 능률도 몰라보게 높아졌다.

‘집중수행’ 왜 필요한가

기존 일터불자들에게는 ‘재발심’의 계기를, 불교에 갓 입문한 직장불자들에게는 ‘환희심’을 일으켜 주는데 있다. 달리 말하면, 수행의 변두리에서 서성이는 일터불심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다. 집중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흥컨설팅 김성부 회장은 특히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마음공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데에 집중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중수행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 정찬연 기관사(48 · 현봉)도 1년에 두 번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정기관사는 직장인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수행의 긴장감을 가져야 일이나 마음공부에 향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부쩍 커지고 일도 잘 합니다. 특히 참회가 담긴 발원을 해야 합니다. 3천배 철야정진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서원을 세우는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집중수행’ 어떻게 하나

위빠사나 수행을 10년 넘게 해온 우리회계법인 고영일 대표이사(53 · 법광)는 우선 ‘수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수행이 일터불자 스스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야 평소 해온 수행력이 집중수행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고, 자기 변화를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집중수행은 불자 자신이 수행 정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공부에 진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재미를 맛봐야 효과도 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중수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단지 ‘수행 리듬’에 있다. 자기 수행의 패턴부터 파악해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

고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집중수행 계획표’를 만들어 볼 것을 주문했다. 먼저 수행 일정, 정진 시간, 수행처, 점검지도법사 친견여부 등을 기입한 뒤, 집중수행에 들어가라는 것.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수행 일정은 △기존 집중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할지 △자기 수행 리듬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련할지 등이며, 정진 시간은 △수행일정을 제대로 소화시킬 정도로 근기가 되는지 △마음공부의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처와 점검지도법사 친견여부 등은 △단계별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수행 진척을 점검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밖에 자신의 집중수행목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스크랩해도 좋다. 불교계 신문, 잡지 등의 수행관련 기사를 틈틈이 읽고 오려두면 든든한 수행지식이 된다.

유의할 점은

고 대표이사는 우선 집중수행을 하기 전에 ‘왜’라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목적의식이 선명해져 그 수행력과 추진력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직장불자들의 근무여건, 수행정도 등에 따라 탄력 있게 집중수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인다.

특히 정기적인 법회 참석, 선지식 친견, 사찰 순례 등을 통해 자기 수행의 방향이 올바른 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중수행을 하는 일터불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집중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평소에 수행력을 착실히 쌓아 밑바탕을 튼튼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

국민 건강을 책임집니다. 질병과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는 회원간 친목 도모와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뭉쳤습니다. 또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명랑한 직장생활을 가꾸는 직장인으로, 공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불자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 2004년 6월 21일 27명의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를 1만배로 시작한 안병헌 강남동부지사 가입자지원부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70여 명의 회원들로 첫 출발을 했지요. 그리고 올 7월, 서울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을 모시고 회원 및 가족들이 창립기념법회를 원만히 봉행했습니다. 불과 3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환희심은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정말로 일터에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 법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뻤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자회가 여법하게 출범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불자들은 나서기를 꺼려하고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불교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에 불자회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죠. 불자회 창립의 간절한 마음은 소극적이었던 불자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신심 깊은 몇 분이 먼저 앞장섰고, 그러한 마음이 모아져 지금은 73명의 회원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불자회는 창립법회를 원만하게 마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부에서 활동 중인 불교문화탐방 단체모임인 반야회와 연계한 신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순례법회 · 수계법회 및 신행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활발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원들이 올 6월 서울 BBS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불심으로 뭉친 ‘국민의 건강지기’ 긍지
순례법회 · 봉사활동으로 내실 ‘튼튼’

특히 기존 공무원불자단체들과 연계를 통한 신행활동도 벌일 생각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심사평가원 불자회, 보건복지부 불자회 나아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연계를 확대하여 연합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불자로서 다양한 신행활동교류는 각자의 신행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법우애와 도반애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는 전 · 현직을 가리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고 현실적 고통과 유한한 존재로서의 비애를 다 같이 극복하고 명랑하고 행복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토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세봉 총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A팀 기간 : 10월24일~11월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B팀 기간 : 10월26일~11월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C팀 기간 :10월25일~11월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D팀 기간 : 10월26일~11월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시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암 디스크관절,당뇨,백혈병 합병증,근육병,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복사

문신 제거해 드립니다
▷눈썹, 바디, 얼굴
문의 전화 02)969-8080

추석선물특별할인
♦주문신청기간 :
9월 22일(음 8월 9일)까지만 접수함
♦포도원액 엑기스
50봉 1Box 29,000원
♦양송근원액 엑기스 (재료:더덕,양파,솔잎, 표고버섯) 50봉 1Box 1 32,000원
♦장뇌산삼 12년근 - 23만원
011-9973-4248 무애선원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일시 : 9月6日 18:00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서울권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확실한 신도확보 포교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016-776-8226
정도스님

법납 8년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소임을
원합니다
010-3956-96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사이
02)2234-3310
017-260-3310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처사님 모십니다
▷강원도
010-6384-7557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조계종
011-9538-7775

경기도 현대식
도심사찰에 PC가능한
여성 총무님을 모십니다
▷침식가능
011-493-1121

기도스님 모십니다
▷30~50세
051)542-5600
011-551-1719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경주산내
010-9664-4817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31-973-8534

공양주 구합니다
전남 광주 근교
조계종 사찰
조용하고 경치좋음
011-419-548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기도하면서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6-9580-0495

부전스님, 도량관리
하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낼 신심있는
처사님 모십니다
▷대형면허증 소지자
▷40세 이상(경남김해산사)
011-693-774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초구 포교당
02-3472-1080
010-9980-1080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계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행자모집
▷대상 : 40세미만
천년기도도량 조계종사찰
063)653-7642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대
어린아이 있어도 무방
사무능력자 우대
054)636-0229

부산 교통중심지인 조계종스님설립 평생 산사에 있다 도시 포교당을 운영중 도시체력에 맞지않아 90평을 인수를 받아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은 전화문의.
그리고 내원암과 부산설법원에서 40~50대 공양주보살을 구함
부산설법원
경북 054)653-1180 소백산 내원암
부산 051)441-1430 설법원

경기도 여주군 흥편면
기백리 청운사
헌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스님, 행자모집
▷45세이상
011-259-5989

포교에 관심있는 주지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대처스님
(법납 10년이상 50세미만)
서남해 섬사찰
011-663-4893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심지 (포교 최적지)
● 평수 : 50평 (2층)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5백만원(시설 완벽)
052)293-1237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층건물 3층
● 평수 : 총 100평 ● 법당,방3칸,주방, 화장실,앞마당20평, 냉 · 난방완비
● 가액 : 7천만원(월세없음)
032)422-0778
011-9864-1095
017-265-63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총평수 : 40평, 방2개, 주방,샤워실, 법당
● 가액 : 2천 2백만원 월세 23만원(보증금포함)
※ 스님이 급히 해외교육차 출국관계로 양도하고자 함
011-9850-2946
053)653-028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 306평 ● 건평 : 60평 (법당20평,산신각5평,큰방5개, 화장실3개)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8천만원(융자별도) 답사 후 가격절출 可
011-9371-085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도로변
● 평수 : 30평 독채, 큰방 2, 주방, 샤워실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0. 4. 월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금요일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교리 공부를 필요로 하시는 불자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조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6천

- 농가주택 -
- 위치 : 경남김천
- 주택 : 30평 (토굴로 적합)
- 부지 : 510평
- 가액 : 5천5백

- 사 찰 터 -
- 위치 : 경남거창 건축가능,차량진입가 1급 약수있음
- 부지 : 20,000평
- 가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임야 전답 3500평
- 가액 : 6천만원

010-9763-127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돈암동 시내 사찰
- 법당1동, 요사2동
- 전세: 없음, 월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지하수 있고, 기타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께 최적합

055)646-2766
016-377-63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 안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남 양산
- 평수 : 30평
- 법당, 방2개,주방, 샤워실
- 보증금 1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無 전, 월세절충가능

055)386-2376
017-563-4602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 평수 : 1,853평
- 가액 : 1억 9천 8백만원
- 산세수려, 공기맑고, 조용하며 수행하기 최적합

011-265-325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 양도가 : 5억 5천

- 위치 : 일산
- 평수 : 11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보증금 : 2천 5백 / 백오십
  시설비 : 2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금강공원쪽입니다 깨어있는이는 명당을 찾아가고 명당을 만들어쓰는것. 이자리가 본래(반야)자리입니다.
- 작품 , 수행.신앙.욕심없이 하고싶은스님 문의바랍니다.
- 비구니스님환영

011-482-2091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죽장 하옥
- 법당, 요사, 대지 200평, 밭 500평, 반듯이 붙어있음
- 산세와 경치를 보고 기도도량 찾는 분, 아주 좋은 곳임
- 가액: 1억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사찰 전,월세 안내

- 위치: 부산 최고 시내 중심요지
- 1층 집, 2층 법당 (시설물 일체)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절충가능)

051)244-3024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 돌탑영험부처님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033)766-0057

사 찰 안 내

<전원주택(토굴)>
- 위치: 의령
- 대지: 1,300평
- 건물: 58평
- 가액: 1억8천
- 의령에서 10분거리

<절터>
- 위치: 부산
- 대지: 1,700평
- 가액: 20억
-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임 버스진입가능

양산 부산간 중간지점인 양산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부동산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매물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7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9천만원

011-810-8402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 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총 500평 건평 : 115평
- 시설모두 갖춰져 있음 정원 완벽
- 가액 : 1억 5천만원

041)363-4905
011-325-127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

032)544-6127
041)834-0206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사찰 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1억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 서구 도마동
- 전세 : 2천 2백만원
  시설비 : 1천 3백만원
- 법당 포함 50평

019-699-2201
010-4405-7161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층 4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엠프 모두 갖춰져 있음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500만원에서 500만원받겠음

010-4422-5575
041)832-5575

사찰 안내

- 위치: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 대지 : 66평, 건평 :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5억 3천만원

02)815-030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외서읍
- 대지 약 100평 건평 37평 법당 주지실 주방
- 가액 : 융자 1천만원, 인수금 7천5백만원

011-859-2252
010-8524-225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 상업지구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주차장,베란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1-438-7569

사찰부지안내

- 위치: 천안(천안역10km) 2차선 포장도로 근접
- 면적 : 2000평 ● 관리지역 : 밭
- 산으로 둘러쌓인 삼태기형
- 가액 : 5억원

041)621-4411
010-3121-3900

암자(급)안내

- 위치 : 전남 (최적지) 시내중심시장에서 걸어서 3분거리
- 대지 : 103평
- 30년된 안정적인 암자
- 가액 : 1억3천만원(절충가능)

011-9667-90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목조 12평
-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 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6-652-75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화목동
- 대지 140평, 2층건물2동 (신축건물) 1동은 법당, 1동 요사채 2차선도로 인접
- 가액 : 3억 6천만원

011-9542-5726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

016-424-050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에서 5분거리
- 대지 : 250평 전 250평, 임야 6,000평 법당 80평 삼존불 방 8개 요사채 30평 (한옥전통기와) 황토방(온돌)1
- 가액 : 1억 7천만원

033)661-1375
011-202-8288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5거리
- 평수: 60평
- 법당, 방2, 거실1,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불, 지장동불 50불

052)261-4664
011-9511-865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홍은동 전철역 10분거리 상가건물 1층
- 평수 : 약 50평
- 전세 : 3,206만원 시설완비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2)3216-1118
017-766-278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1동 온천식물원 4거리 근교
- 60평 2층 3층에 방1칸
- 가액 :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 ※ 스님이 몸이 안좋아 좋은인연 찾습니다

051)556-1457
016-844-2403

문화재전통사찰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내
- 면적: 약600평(종교부지등)
- 가액: 4억 (임대는 1억2천 월세가능)
- 개인등기된 문화재 전통사찰로서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하고 깨끗함 6m넓이 진입로 포장 되있고, 약수터 있음

011-703-3030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랑구 망우 4거리 2층
- 평수 : 28~30평
- 법당, 방1,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모든시설일체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1-9064-333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부근 미륵사지 뒷편 산쪽 요지
- 1천7백평(전답) 건물 약 60평 미륵부처님 조성
- 법당 25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
- 가액: 2억5천만(조정가능)

019-632-80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고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부지: 독립된 청정계곡
- 16필지 총 8000평
- 관리지역 가액: 임야 1만원 전답 3만원 1억3천만원

011-9393-4965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 건물 : 일반주택사찰
- 요사채, 총건평 36평
-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편리한교통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위치) 모든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산현리
- 대지 : 108평
- 법당 21평, 요사 20평 주방, 보일러, 욕실 완비
- 포교 교통 요충지
- 가액 : 7천5백만원

054)533-1477

사찰터(급)안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38국도변 단곡계곡 두위봉 등산로변
- 용도: 사찰, 납골당, 연수원, 종합휴양시설
- 총평수: 밭 3만평, 필지 14, 주변국유림
- 가액: 평당 3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 사정상 급하게 처분합니다(분할가능)

017-342-4261 / 043)533-95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뒤
- 평수 : 60평
- 2층 방3개, 3층 방1개
- 가액 : 전세포함 4천만원에 월 50만원

(집기 일체 제공.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6-844-2403
051)556-1457
051)554-24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사찰 (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내근집)
- 대지 : 임야포함 240평 건물 : 법당 30평 1동 요사채 1동
- 부대시설 : 화장실,창고
- 2001년 신축 등기필
-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좋은곳
- 가액 : 시설비포함 2억 5천 절충가능

061)654-1812
011-247-726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550만원(절충가능)

032)511-4974

<신 행정수도 인접> 사찰부지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참나무) 울창계곡 /
- 대전에서 25분, 계룡시에서 15분, 신 행정수도에서 40분
- 마을포장도로 인접
- 이용가치 : 종교시설(사찰부지, 기도원), 참나무찜질방, 유실수단지조성 가능,
- 면적 : 7만 3천평 ● 가격 : 5억 8천만원

017-405-1554
042-522-2588
(야간 10시 이후)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343번지 태백산
- 산세경관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100m앞 유원지 내리강이 흐르고 도로 잘되어있음.
- 부지 180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 되있으며 천탑을 조성하려고 자연돌 수천톤이 확보되있음. 기와건축물 50평 전기수도 유선 잘되었음
- 가액 : 2억 5 천만원

018-223-2101

삼국유사 속 고구려와 발해 "우리 역사 맞네"

일연학연구원 학술발표회서 집중 조명
고조선 고구려 고려 역사적 연결고리 분명히

고구려사를 강탈하려는 중국의 역사왜곡 음모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국유사>의 고구려 · 발해사 등 고대사 인식을 집중 조명한 학술발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 주최로 9월 3일 경북 군위 군청에서 열린 '<삼국유사> 체제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그것.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인각사의 '삼국유사문화제' 학술행사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의 '<삼국유사> 고조선조(古朝鮮條)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 조법종 우석대 교수의 '<삼국유사> 부여조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 김현숙 박사(고구려연구재단)의 '<삼국유사> 내 주몽의 출자기사를 통해 본 국가계승의식', 박진숙 충남대 강사의 '일연의 발해사 인식과 <삼국유사>' 등 네 편. 이들 논문은 <삼국유사> '왕력'과 '기이편'을 중심으로 일연 스님의 고대사 인식을 다뤘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론을 담은 것은 김현숙 박사의 논문이었다. 김 박사는 고구려 당시에 부여와 단군조선 계승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고려 또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고조선 · 고구려 · 고려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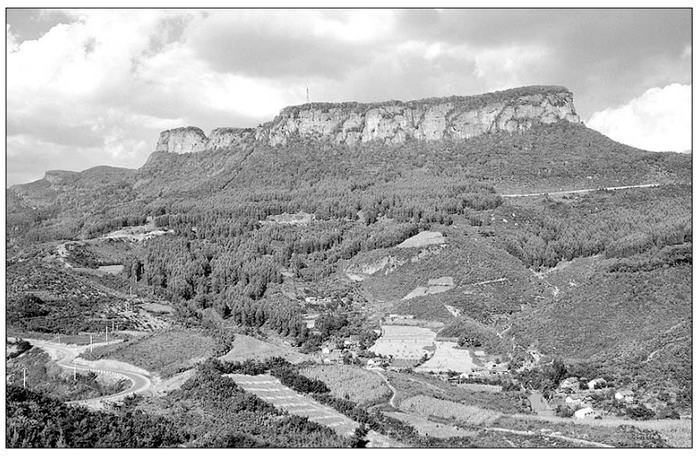
김 박사는 4세기경 고구려에는 부여 계승의식이 보편적이었고, 대부분의 역사서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삼국유사>에만 제시되고 있는 '단군조선 계승설'의 의미를 규명하려 시도했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여러 가지 계승설 가운데 하나인 '단군조선 계승설'은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와 단군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 '단군조선 계승설'이 일연 스님 개인의 창작이 아님을 밝혔다. 김 박사는 장천1호분에서 동굴 안에 웅크린 모습의 곰이 단군신화를 묘사한 것이라는 점, 고 고구려의 10월 국중대회에서 사람들이 곰, 즉 웅녀를 섬겼다는 점을 들어 당시에 단군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고구려가 고조선의 신과 국가정체성을 계승했다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있었음을 김 박사는 강조했다.

박진숙 씨는 일연 스님이 발해사를 기술하면서 옛 고구려영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삼국유사>는 발해의 15부 가운데 유독 압록 · 남해 · 부여 · 책성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옛 영토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삼국유사>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적 연속성을 입증함으로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구려역사 계승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호정 교수는 고구려 · 발해사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사에 대한 <삼국유사>의 인식을 다루며, 특히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초점을 맞췄다. <삼국유사>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고조선조'에서 단군조선에 이어 기자조선을 기록해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단군조선에 이어진 후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고구려 첫 도읍터인 오녀산성(중국 길림성 집안시 소재). 지난 7월 다른 고구려 유적들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고대사를 기술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고려 말 우리의 역사의식이 담긴 중요한 저술이다. 특히 단군조선이라는 민족의 시원을 밝히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은 최고(最古)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을 다룬 이번 학술발표회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만했다.

<삼국유사>의 구성

5권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왕력(王曆) · 기이(紀異) · 흥법(興法) · 탑상(塔像) · 의해(義解) · 신주(神呪) · 감통(感通) · 피은(避隱) · 효선(孝善)의 9개 편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째 편목인 '기이편'은 고조선 · 위만 · 조선 · 마한 · 이부 · 칠십이국 · 낙랑국 · 북대방 · 남대방 · 말갈 · 발해 · 윤서국 · 오가야 · 북부여 · 동부여 · 변한 · 백제 · 고구려 · 진한 · 신라 등의 국가사를 다루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장검색 등 가능… 신수장경 비교 오자 최소화"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2004' 내놔

"일본의 <신수대장경>에 의해 주도된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고려대장경>이 불교학 연구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 이하 장경연구소)는 9월 1일 안암동 대원암에서 가진 '디지털 고려대장경 2004 시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려대장경 2004' 출시를 계기로 그간 외면당해온 <고려대장경>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장경연구소가 이처럼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그간 <고려대장경> 활용에 걸림돌이 돼왔던 이체자가 새 버전에서는 정자로 교정돼 현대 불교학자들의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고, <신수대장경>과의 일자 대조를 통해 오자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체자를 정자로 고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다. <고려대장경> 원판의 훼손, 인경 및 영인과정의 오류, 유사자형, 둘 이상의 정자를 갖는 이체자 등의 문제로 인해 장경연구소는 우선 통용자와 통합자 목록을 정리해야 했다.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의 5천만 개가 넘는 글자들을 한 자씩 대조하는 작업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만도 4년. 서로 다른 글자에 한해서는 원판까지 확인해 어느 편의 오류인지도 찾아냈다. '고려대장경 2004'는 그 같은 작업결과가 반영돼 어느 대장경보다도 오자가 적은 대장경이 됐다.

'고려대장경 2004'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용자 편의에 주안점을 둔 기능개선이다. 분류체계 · 경명 · 경번호 · 주제 검색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은 물론 다자검색, 문장검색도 가능해졌다. 또한 <고려대장경> 해제, 표제어 9,944개를 수록한 불교용어사전, 2만1,000개의 정자와 이체자 2만9,478자를 수록한 전자한자자전 등을 통합 환경으로 제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배려했다.

그밖에 '고려대장경2004 연구정보'를 별도 CD로 제작해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일자대조 목록과 상세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정보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장경연구소는 티벳 · 빠알리어 대장경과의 통합 전산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의 한글대장경과의 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7>

앎과 삶의 거리(1)

<장자(莊子)> '소요편'에 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오른다는 붕(鵬)새와 나무 가지 사이나 날며 이러한 붕새를, 말도 안 된다며 비웃는 작은 새의 우화(寓話)가 있다. 우주를 나는 붕새나 그러한 붕새를 비웃는 작은 새나 똑 같이 하늘을 날 뿐이다. 다만, 하늘 밖의 우주란 자신이 갈 수없는 세계라고 믿고 있는 작은 새들은 자신들이 우주가 아닌 하늘을 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붕새는 하늘도 우주의 한 부분이기에 자신은 우주를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전망(perspective)의 전환이며 이에 따른 삶의 문제이다.

하늘을 나느냐 우주를 나느냐가 문제
지식의 공유… 삶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출판매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예전에는 상아탑 속에 머물던 지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요즈음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우리 사회 속의 많은 논의나 환경 문제에 대한 치열한 대립 양상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듯이 보인다. 예전처럼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 놓으면 나중에 일반인들은 '어? 그렇게 되었네?' 하고 끝나던 시절이 더 이상 아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를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전문가나 문외한이거나 우리 모두의 책임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앎과 삶의 거리다.

부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주석서나 해설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도 웬만한 스님들보다 더 부처님 말씀에 대하여 주워섬길 수 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의 앎이 그만큼 충분하다. 하지만 중생의 고해탈(苦解脫)을 위해 이 세상에 펼쳐진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의 삶에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인가.

최첨단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나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그러한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결국 앎의 차원일 뿐이기에 그러한 과학 지식의 앎이 어떻게 인간들의 삶의 문제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마치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잘 알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전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세계는 열려있고 열려가지만 이러한 세계에 대한 '나의 앎이 얼마나 자신의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앎(연구)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앎과 삶의 거리를 좁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각자의 입장이 학자이건 승려이건 일반인이건 여전히 우주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지만, 정녕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장자>의 작은 새들에 불과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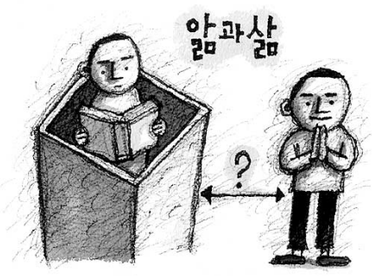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장선원 만불보탑 낙성법회

귀의삼보하옵고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에 만불보탑을 신축하여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낙성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일 시 : 불기 2548년 9월 13일(음 7월 29일) 월요일 지장보살 오신날 오전 10시

장 소 :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 지장선원 만불법당

연락처 : 053)986-0151, 983-0152 / 016-9511-9970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장 지 공 손모음

범어사 승가대학 21기 모임 안내

◆언 제 : 불기 2548년 9월 12일(일) 오후 6시
◆장 소 :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 지장선원 만불보탑
◆연락처 : 053)986-0151, 983-0152 / 011-809-0151

공마, 무관, 보명, 불공, 성고, 승범, 원광, 원철, 자현, 현공, 효명(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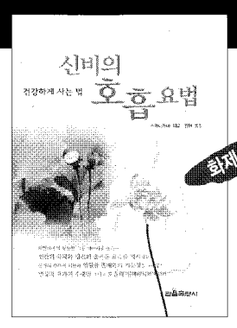


▶ 진인삼거리에서 앞 갓바위 쪽으로 100미터 지점 위치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 요법



■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나면 순조롭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없다. 다른 호흡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흡의 흐름이 불규칙하면 육체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명상은 한 곳으로 정신집중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깊은 명상에 있어서는 한 곳으로 정신집중된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의 층을 뚫고 초의식의 경지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스와미라마 지음 · 길연 옮김 · 신국판
240쪽 ·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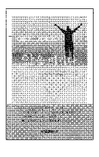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아키 감수, 미야나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유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써, 아유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십세기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산트 레드 지음 · 신국판 · 206쪽 · 값 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술선주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30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신국판/녹현 이세진 지음/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일주문



대만 국제공승대회 참석

경기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9월 2일 대만에서 열리는 '2004 대만 국제공불제승대회' 참석차 1일 출국했다.



부산파라미타협, 창립 8주년대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재 대성 스님(범어사 주지)은 9월 12일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 8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051)513-4306



탈북자 초청, 천안지역 산업시설 견학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8월 27일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탈북자 80명을 초청해 위문행사와 천안지역 우수산업시설 견학 행사를 가졌다.



부산경남 불교대학원 개설

양산 불광사 주지 청봉 스님은 9월 5일 부산 대하프라자 빌딩 7층에 불광 포교원을 개원하고 부설 부산경남 불교대학원을 개설했다. (051)703-4745



부산BBS 법당 부처님 봉불식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은 9월 2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11층에 마련된 법당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봉불식을 거행했다.



서울대 첫 석좌교수 임명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가 9월 1일 서울대 첫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지범 스님 컬러링에 '음성 공양'



불음포교사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사진)이 '한글반야심경' 독경으로 핸드폰 컬러링(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출연해 화제다. 지범 스님은 "최근 핸드폰이 일반화됐지만 독경 · 찬불가 등 불교적 내용을 다룬 컬러링은 적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인들이 우리말 반야심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컬러링 서비스 수익금은 전액 불음보급회에 기증된다. **김철우 기자**

동국대 박상진 교수 국무총리 표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 박상진 교수(사진)가 9월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진 교수는 지난해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동안 문화예술기획단의 총괄기획과 개막식 지휘자로 활약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후원기관, 봉사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차원에서 이뤄졌다. **조용수 기자**

"계는 바뀌지 않아도 율은 융통성 많지요"

동국대서 특강 사사끼 시즈카 교수



"소승불교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재가자가 아닌 출가자였습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초청으로 8월 30일 동국대(총장 홍기삼)에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율장연구의 권위자 사사끼 시즈카 교수(일본 화원대 · 사진)는 자신의 율장연구 성과에 근거, 출가자가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삼십여 년 간 일본에서 정설로 굳어지다시피 했고, 한국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히라카와 아키라 씨의 재가자 기원설을 부정한 것이다.

<유마경> <승만경>의 예를 들어 대승불교가 재가자 중심이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사키 교수는 "경의 주인공은 재가자였지만, 그가 비판한 것은 '성문의 길을 걷는 이' 즉 소승이었지 '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두 경이 재가자 기원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국 불교 승단이 전통적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사끼 교수는 "계(戒)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진리로서 불변적인 반면, 율은 승단의 구체적 규율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며 율(律)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스님들도 이제 리더십 배울때"

'불자지도자…' 논문 낸 혜인 스님



"스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지도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혜인 스님(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 사진)은 불교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스님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종단과 불교는 물론 나아가 국가와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혜인 스님은 또 논문에서 불교지도자들이 지녀야할 리더십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개발 훈련법도 제시했다. **박봉영 기자**

'묘법연화경' 4개국어 출간 기념법회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고희 맞아…6백여명 축하



현해 스님(왼쪽에서 다섯번째), 통광(쌍계사 승가대학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석주(봉은사 회주),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종산(원로회의 의장), 백창기(중앙신도회장), 설정(수덕사 수좌), 정념(월정사 주지) 스님 등이 축하 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이 4개 국어로 이뤄진 <묘법법화경>을 출간하고 9월 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현해 스님의 고희 기념 잔치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조실 석주 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동국대 홍기삼 총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스크리트어와 한문, 영어, 국어 등 4개 국어로 풀이된 <묘법법화경>은 전 3권 중 이날 1권이 선보였다.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법화경> 연구의 권위자인 현해 스님이 지난 3년간 꼼꼼한 원본 대조작업을 거쳐 출간한 이 책은 경의 핵심 사상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세월 <법화경>을 공부하며 오역에 따른 뜻풀이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번 책에서는 4개 국어로 이루어진 <법화경>을 함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뜻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해 스님은 이날 첫 법문집 <그대, 마음의 고향을 보았는가>(이른아침)도 함께 출간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법타 스님 만해상 수상 서울 축하법회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의 제8회 만해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법회가 8월 31일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연꽃마을 대표 각현 스님, 자민련 이인제 고문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조계사, 야생조류 방생법회 봉행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8월 31일 하안거 회향을 맞이 올빼미, 황조롱이 등 생태방생법회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봉행했다. 1600여명의 불자들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원담 스님은 "방생은 나와 사회를 맑게 하는 보시행"이라며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의 가르침 지역발전 코드로

'불교시론 백선' 등 발간 김승석 변호사



"이 사회가 풀어야할 문제의 해답은 불교의 화합과 상생사상에서 있습니다. 지역발전 전략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3일 지역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모아 <불교시론 100선>과 <제주의 현실 · 꿈 · 미래>(미래사회연구소 刊)를 출간한 김승석 변호사(미래사회연구 소장 · 사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불교적인가?'를 화두삼아 지역발전과 포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의 글을 모으다보니 시대가 지난 내용도 있지만 당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대로 실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만 한다면 지역도 불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동 안 제 주 에 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불교계 언론과 지역신문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김 변호사. 그는 '제주불교신문'의 전신인 '한라불교신문' 초대 대표이사와 제3대 제주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아왔다. **이준엽 기자**

"청계사서 기도하며 棋風 향상"

제4기 오스람코리아배 우승 이희성 5단



제4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최강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이희성 5단(22 · 사진)이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5단은 8월 28일 한국기원서 벌어진 오스람배 최강전 결승 2국에서 고근태 2단을 263수 만에 2집반 차로 승리,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 5단은 안정감 있는 행마와 기리(棋理)에 어긋나지 않는 정통적인 바둑수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동 안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이 5단은 "모친과 과천 청계사에서 계속 기도를 올렸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부처님께 감사드린다"며 "불교는 집중력과 인내를 키워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인사

천태종 포교사임명

△배두출 서울 관문사 △장성준 서울 구강사 △박국일 서울 삼룡사 △하승훈, 윤태봉 서울 관문사 △임영배 서울 명화사 △김부환, 이종희, 김종휘 부산 삼광사 △이금복 서울 관문사 △이춘수 원주 성문사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 22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시는 스님, 법사님, 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 · 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22기 강좌는 어린이 · 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늘어나며,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 불기 2548(2004)년 9월 13일 ~ 12월 6일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강 의 시 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타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100m)
▣ 대 상 :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 강 좌 내 용 : 이 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진행의 실제, 모임진행법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스포츠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싱어롱), 찬불가&율동
생활부문 - 마술,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 · 실외게임, 전래놀이, 게임 진행의 실제
▣ 참 가 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재성)
▣ 문 의 : ☎ 02-738-7860, 739-4967 / FAX 738-7863
홈페이지 : http://www.burec.org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특전 :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계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출고정가 15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노인들의 四苦

최근 우리나라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노년에 의한 지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8.7%로, 약 420만 명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매일 65세 이상의 노인이 580명씩 탄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인인력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을 건강한 노인과 건강치 못한 노인으로 구분하고 또 빈곤한 노인과 중산층(이상)의 노인으로 분류했을 때 건강하면서 빈곤한 노인에게는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재취업을 비롯한 인력활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면서 중산층(이상)의 노인에게는 여가활용,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강치 못하면서 빈곤한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하고, 건강치 못하면서 중산층 정도의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유료나 실비요양시설에서 편안히 케어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생에서의 4고(四苦)가 생, 로, 병, 사 라면 노인들의 4고는 빈곤, 건강 약화, 소외와 역할의 상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빈곤과 건강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낸 이들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직접 총을 들고 전쟁을 치루며 갖은 고생을 하고, 전후에는 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건국과 경제개발을 이룩해 낸 세대이다.

노인에게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0만 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29%를 차지한다. 게다가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까지 합치면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해 온 세대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75%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다. 또 한달 용돈을 5만원 미만 쓰는 노인이 29%, 5~10만원 미만이 32%로 전체 노인 중 62%가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쓴다.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또 노인 중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은 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노인들 가운데 건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사회에 재취업시켜야 하는데 이와관련된 사회적 제도와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2~6%를 고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경제적 어려움(29.3%)이 건강문제(23.4%)나 외로움, 소외감(2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그들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첫째, 정부는 산업인력정책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연령계층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년퇴직을 연장하거나 신축성 있게 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 능력급제도 도입, 계약에 의한 근무, 시간근무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적합 직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넷째, 노인 취업알선 센타를 활성화 하고 노인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노인인력 활용이 가능한 기업체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융자, 보조금지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인력의 보고(寶庫)는 노인인력과 여성인력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좌표라고 믿는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 사회의 건강함과 건전성을 무엇으로 측정 할 수 있을까. 자비와 사랑, 이웃에 대한 선의의 관심, 아낌없이 주는 보시의 실천 함량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의 높은 성과는 아직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낙관하게 해 주는 하나의 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초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교수 학생 등 5백여 명이 골수기증을 등록받았고, 서울 종로 거리 캠페인에서는 3백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1천8백여 명을 넘겼다. 이에 연말 목표치를 2천5백 명으로 올리는 등 기증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에 타인의 골수기증은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유전자일치 율이 낮아 현재 환자 80% 이상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만 명의 기증 등록자가 있어야 한다.

골수기증 그 찬란한 '나눔'

지금 전국적으로 기증을 위해 등록한 사람은 5천3백여 명. 치료율을 높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다른 장기와 달리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작용 없이 몇 번이라도 골수를 기증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일치 문제 때문에 등록자 수가 치료율에 비례하게 된다. 홍보의 폭을 넓힌다면 보다 등록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캠페인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적절해 보인다.

골수기증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거둔 '나눔'의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이밖에 불교계에서 '나눔'의 캠페인은 요즘 들어 확산되는 느낌이다. 본지가 연중 캠페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에 손잡기'에 대한 호응도가 그렇고 부천 석왕사, 서울 봉은사 등이 이웃 사랑 실천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와 손잡고 펼치는 '나눔'의 활동도 돋보인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상대방에 상처 주는 구호들이 난무하는 오늘의 '병든 사회',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바로 이러한 나눔과 자비 보시의 실천이 희망이며 불교는 그런 캠페인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 앞으로 그 성과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카드대란을 보며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으며 오히려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온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수수료 분쟁이 끝내 파국에 이르렀다. 비씨카드는 당초 주장한대로 9월 1일부터 이마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즉시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65개 점포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현금 보다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중간에서 골탕먹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문제는 수수료 분쟁이 이 두 업체간의 줄다리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KB카드와 삼성카드, LG카드 등도 내주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며, 이에 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를 단행한다고 밝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자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양사는 양보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양산시켜 많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나쁜 마당에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소비심리마저 위축시키면 더욱 큰일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먼 안목으로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분명 현명한 타결점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한 치졸한 분쟁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인재불사 시급하다

고교종교교육 편향이 심각하다고 한다. 서울시내 289개 고등학교 중 기독교재단 학교가 59곳인데 비해 불교재단 학교는 단 3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다가 10~20년 후 세상이 온통 기독교인으로 넘치는 게 아닐까.

물론 현행법상 종교 재단 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종교 재단 학교들이 정규 교과시간과 교과외 시간에 상당량의 종교행위와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교내 종교적 행위를 거부하다 퇴학 당한 강의석 학생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불심만 확고하다면 사찰도, 시민들을 끌어당길 문화행사도 사실 필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불교계는 겉치장에 바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이고 있는 듯 하다. 불자 없는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중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기 위한 포교의 핵은 어린이 · 청소년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불교계가 서둘러야 할 것은 인재불사라며, 종자돈을 모아 장학회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돕고 있는 어느 스님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는건 이러한 일이 불교가 전체가 아닌 일부 스님들의 노력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박기용(광주 동구 소태동)

큰스님, 법어 좀 쉽게 해주세요

최근 '현대불교'에서 하안거 해제를 맞아 방장 스님들이 내리신 해제법어를 보았다. 수좌들에게 주시는 법문이라선지 우리 일반불자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졌다. 결제?해제법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해나 부처님오신날에 주시는 법어도 우리 중생에게는 어렵기 마찬가지다.

오랜 수행을 통해 우러나오는 법음이니, 우리네 재가불자들에게는 청량한 채찍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큰스님들의 법어는 의미를 새기고 싶어도 언감생심일 뿐이다. 법어를 받아들면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한문 형식의 어투와 모호한 의미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법어라도 불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먼 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의 수준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재가불자도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있을지 걱정이다.

큰스님들의 법어는 중생들의 황량한 정신을 메워주는 청량한 울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중생들을 위해 근기에 맞는 법문을 내려주길 고대한다.

허미진(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민영교도소, 남의 일 아니다

최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용한계를 넘은 교도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다. 반가운 일이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를 민간에 일정 부분 이양해 자율적으로 재소자를 교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개신교 재단인 '아가페'의 경우, 수 년 전부터 민영교도소를 준비해와 500~600명 규모의 시설을 내년쯤에는 개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교계에서는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불교계 내부의 불사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영원히 불가능하기만 한 액수는 아닐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1984년에 가톨릭에 위탁한 교도소의 출소자 재범율을 4%까지 낮춘 경험이 있다.

우리 불교계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원희(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2004년도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원서접수 :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신발과학이 탄생시킨 효도신발!!

파동에너지 건강신발 "롱~스마일" 인기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작된 효도신발의 대명사!!

신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 확 생겨!

롱~스마일은 신는 순간 누구나 2번 놀란다.

첫째는 가볍고 편안함에 이런 신발이 있을까 하고 놀라고, 둘째는 다리에 힘이 확 생기는 것에 놀란다. 신발 가방단 30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가벼운 신발'이란 별명까지 붙은 **롱~스마일사** 장균혁(60)씨 대표가 중, 노년층의 무병장수를 위해 만든 신발로 신발 기능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아 무병장수하고 평생 못고 사시라는 뜻에서 브랜드를 **롱~스마일**이라 붙인 이 신발은 신어본 아들의 입소문을 통해 신청하던 10일이상 걸려야 신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달려 왔다. 집도 오래되면 벽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듯이 몸도 오래된 집과 같이 모든 관절이 변형을 일고 허리도 구부려져 있다. 오래된 집도 제일 중요한 기초를 보강하던 반듯해 지듯이 사람의 인체구조상 기초는 발이다. 그래서 발은 인체 어느 곳과도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제2심장 이라고 한다.

롱~스마일 신발은 사람의 기초인 발을 보강시키는 기능을 접합시켜 일반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다. 첫째는 어른들 누구나 다리에 힘이 부족하기에 전 WBA유니이클라이급 세계 챔피언 김환진씨가 발명한 파동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여 신는 순간부터 다리 힘이 생기게 했으며, 둘째는 몸의 균형과 허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용천을 받쳐주게 제작하고, 셋째는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 비올 때도 제일 안전하다는 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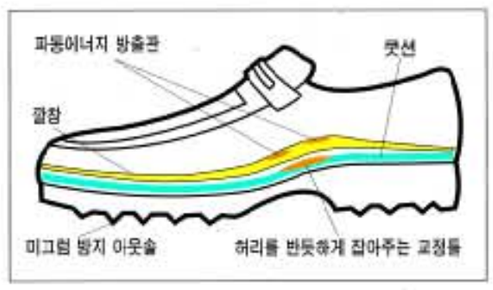
30대 건강 80대 까지!

본드형 조각의 고무창을 개발해 부착하고, 넷째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장시간 보행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음이온과 원조의선을 발산하게 하고, 신발의 무게를 휴기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한것이 특보인다. 최고급 천연소가죽과 최첨단 신소재가 총 동원된 최고급 신발로 여성용 120,000원 남성용 125,000원 전화로 싸이즈를 알려주면 보내준다. 문의080-555-3080

농협 944-12-441157 김현석

롱~스마일 신발 내부설계도

발은 사람의 제2의 심장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장도 튼튼!! ·허리도 튼튼!! ·승리의 수호신!!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필고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같거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과음예술원에서 불퇴·정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측원 봉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상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등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이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치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등 밸트는 실용성안 및 건겸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벨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벨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평발에도 최고!

신발에 넣고 출근과 퇴근 하는것 만으로 3시간 운동효과

▶배나온 고민 걱정 끝

살 빼는 "스타캔" 인기짱

배는 나오고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신에 넣고 솜, 퇴근만 하도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캔"이 남, 여 직장인과 가정주부 및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용품 "스타캔"은 착용 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생활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킨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다이어트 용품이다. 스타캔을 넣고 신을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끝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스타캔에 적용된 기술은 뒤축에 실리는 체중을 발중심에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적용했을 때 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주며 걸을때마다 사람의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자극해 장시간 보행해도 피곤함이 없고, 신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생겨 넘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타캔"를 착용해 본 이들은 다이어트 은동효과에 대해 다리에 힘이 생기고 3개월이면 배가 들어가며 허리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캔"을 발명한 (주)제이테크는 2년전 부터 일본으로 수출되어 다이어트 용품중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 8천엔에 판리고 있다. 가격48,000원으로 주문하면 보내준다.

(080)330-7555 농협 944-12-441157 김현석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무게2.7kg높이20cm가로17cm

추석 제례시 품위있게 사용!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자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인불공과 축문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립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여년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대기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심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돌고 피했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가격295,000원 문의(080-330-7555)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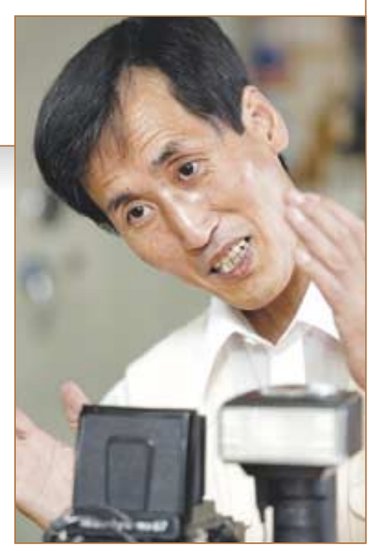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 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젠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심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조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였 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자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테크제이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25,300원 (080)566-3083)



순수하고 소중한 순간 담아 드리죠

*영정용 사진 촬영 무료봉사하는 **유종산** 씨*



유씨는 어르신들의 가장 편안한 표정과 동작을 담아낼 뿐이다..

'영정사진 찍는 공무원'으로 유명한 유종산 씨가 촬영에 앞서 할머니의 옷매무새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손수 살핀다.

작은 키, 깡마른 체구의 그가 40kg에 육박하는 촬영 도구들을 들쳐 메고 길을 나선다. 물어물어 다다른 곳은 낡은 기와집이 빽빽이 들어찬 서대문구 용두 1동. 미로처럼 얽힌 길을 밀치고 제쳐서 양로원을 찾는다. 어르신들의 머잖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진기사님 오셨으니 돌아가실 양반은 싸게 준비해. 제일 먼저 찍는 위인이 제일 먼저 간다는 거 알지? 몇 점? 5점? 흔들었어?"

자신들의 영정용 사진을 찍어줄 인물이 무거운 장비에 허덕이며 육수(肉水)를 흘리고 있건만, 고스톱 삼매에 든 어르신들은 좀체 일어설 생각이 없다. 오랜만에 갖춘 꽃무늬 넥타이, 에메랄드 빛 셔츠가 쑥스러운 듯 화투짝을 더욱 날쌔게 내리꽂을 뿐이다. 그러나 쉽게 돌아설 그가 아니다. 무르익은 판을 해칠세라 빈 공간을 총총 걸음으로 오가며 간이 스튜디오 셋팅에 여념이 없는 사람, 바로 유종산(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담당관 총괄팀 · 55) 씨다.

'영정사진 찍는 공무원'으로 유명한 유 씨는 올해로 24년째 무료 영정 사진 촬영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연고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덜컥 시작한 일은 이미 4000여명 분의 사진 제작을 회향할 만큼 '큰 일'이 되어 버렸다. 촬영에서부터 앨범 제작까지 그 모든 일을 여벌 시간에 소화하는 것은 생업 잇기보다 벅찬 '취미'였지만, 1년에 24일 있는 연가와 숙직 다음날을 활용하여 틈틈이 셔터를 눌렀다. 필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운 이들의 애환을 쉬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정사진은 '육신을 떠난 나'를 추모하는 이들이 '나'를 되새기는 대상, 즉 '사후의 나'와 같죠.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그 소중한 모습조차 남길 수 없다니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유씨는 '서글픈 선물'으로나마 그들이 아름다운 회향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랬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못다푼 한으로 남은 터라 발심이 어렵진 않았다. 서원의 실천을 위해 사진관을 찾은 그는 잡일을 거두면서도 틈틈이 기술을 익혔다. 스승하나 없었지만 그는 쉼없는 도전과 인내로 사진술을 터득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봉사에 나서게 됐는데, 처음에는 영 안되겠더라구요. 이게 웬걸, 렌즈에 얼굴이 맺힐 때쯤이면 내 눈에 눈물도 따라 맺혔죠. 죽음을 준비하는 그네들은 저리도 의연한데, 나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멈출 줄을 몰랐어요."

24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틈틈이 봉사
의연한 어르신들 표정에 눈물 흘리기 일쑤
영정 촬영하며 제행무상 이치 깨달아



용두 1동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 '찰칵'.

그러나 그 슬픔이 전부가 아니었다. 복지관을 찾아 봉사 의사를 밝힐 때면 사진촬영을 내세워 물건이나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일쑤였다. 한 사람당 2만원이 넘는 제작비용을 충당하느라 70~80만원의 한 달 수당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지만, '공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편견 앞에서 의지가 꺾인 날도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다. 까다로운 어르신들은 촬영 내내 투정아닌 투정으로 속을 끓이게 했다.

"그 덕에 인연없던 담배 가치까지 물고 살게 됐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하심을 배웠지요. 불평 ·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렌즈를 응시하며 어르신들의 과거 마음자리를 살폈어요. 얼굴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네들 삶의 역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갑디다. 그런데 화려하던 그때, 외로운 그때가 모두 한 순간이더군요. 제행무상(諸行無常)이 따로 없더라구요."

그는 렌즈를 통해 항상함이 없는 인생사를 깨달았고, '사진 봉사'라는 행위에 대한 기대도 집착도 버릴 수 있게 됐다. 그 순수하고 편안한 순간을 사진에 담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촬영에 임하는 마음이 가벼워지자 현장에서의 그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쁘게 찍어달라고 조르고 보채는 할머니에게는 "이게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안 이쁘게 나오겠어요"라며 너스레를 떠는 한편, "10년 후에 다시 올테니 사진이 잘못 나온 분은 그때 말씀하세요"라고 덧붙이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함께 기원한다.

행여나 그네들의 서글픈 마음 한켠을 자극할세라 '늙음과 죽음'은 고스톱 판 아래 살포시 묻어두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신 깊게 패인 주름살 속에서 한창 때의 매력을 읽어내고 입가의 희미한 미소를 잡아 억척스러운 의지를 새삼 들춰내기도 한다. 요동쳤던 살아생전의 삶이 순간의 컷 안에 오롯이 담길 수 있을까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그는 찰나의 시간에 백여 년의 삶 · 사람을 일군다.

"이래 입어도 괜찮겠소?"

급하게 오느라 치마는 입지 못했다는 '저고리 덧댄 어르신'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보살의 자비광명이 그윽하다. 팔순이 가까워오는 듯한 할머니. 문득 할머니에게 머물던 시선이 액자 속의 어구로 옮겨간다. "저승사자가 오거든 이말 전해주오, 희수(77)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생을 즐기라 하소."

그 저승사자가 그를 찾을 때까지 그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혼자, 그리고 일정한 계획없이 틈날 때마다 시도할 뿐이지만, 주름살에 묻힌 얼굴을 들기 힘들 때까지 사진기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유 씨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금주의 발원
[새벽쇳송-5]
서방정토 극락세계 언제든지 계시옵는 말로할수 바이없고 곱할수도 없사오며
삼십육만 억하고도 일십일만 구천오백 말로할수 전혀없는 항하사수 모래같은
같은이름 같은덕호 두루갖춘 아미타불 티끌수의 극락세계 온갖초목 수와같은
대자대비 넓은품에 지성귀의 하나이다 셀수없는 많은수의 부처님이 계시나니
서방정토 극락세계 언제든지 계시옵는 삼백육십 만억하고 일십일만 구천오백
장대하신 부처님몸 끝이없는 상호로써 같은이름 같은덕호 두루갖춘 우리스승
금색광명 발하시어 시방세계 비추시고 크나크신 대자비로 극락세계 이끄시는
사십팔원 원력으로 중생들을 건지시는 아미타불 넓은품에 지성귀의 하나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0>



칭명과 염불선

요즘에는 염불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행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심지어는 나반존자, 화엄성중, 산왕대신을 부르는 것도 염불에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불교의 포용력이 아니라 염불의 근본 뜻을 모른 채 세속적 욕망에 부합하여 불교의 근본과 나아갈 방향을 흐리게 하는 저급한 방편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자와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더불어 기복불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명호가 아니라 부르는 뜻에 있습니다.

칭명은 믿음 성취하는 방편
믿음 성취해야 염불선 가능

원효는 이 점에 대하여 칭명과 염불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은 모두 '자비광명에 의지함'이요,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며, 안심법(安心法)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하되 부처의 경계를 생각하는, 즉 타력에 힘입어 '스스로 닦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도 칭명(稱名)과 염불(念佛)의 뜻을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하품하생>에서 "하품하생의 사람은 착하지 않은 업을 짓고, 오역죄와 십악을 모두 갖추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악업에 의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의 고통을 끝없이 받겠지만, 목숨이 다하는 때에 이르러, 선지식이 갖가지 안심과 위로를 베풀고 묘법을 설하여 '염불하라' 함에도 고통의 핍박으로 인해 부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 착한 벗이 '그대가 만약 염불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부르라' 하고 말했을 때,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십념(十念)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때문에 생각 생각에 가운데 80억겁 생사의 죄를 소멸하는 중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깊고 죄업이 무겁기 때문에 정토의 경계나 부처님의 상호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종시라도 참회와 믿음의 뜻을 실어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 50억겁,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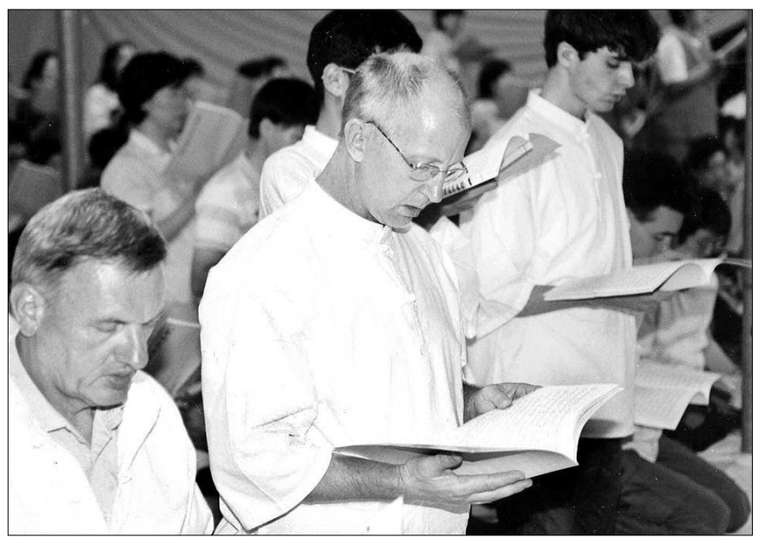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명은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삶에서 야기되는 특정한 고통 혹은 욕망의 해결이 아니라, 생사해탈이라는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이 변화를 성취하여 얻은 성소작지에 대한 믿음이요,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삶이 괴롭지만 그것은 생사윤회라는 사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수행의 목적도 생사해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명염불은 명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만 가지고 부르면 되지 명호를 의심하거나, 소리를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명은 육근 가운데 둘 이상을 동시에 작용할 수 없는 범부를 위해 열어 보이신 대자비방편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명호를 부르고 믿음이 성취되어야 염불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칭명으로 성취하는 '믿음의 극치'가 염불삼매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禪 바로알기 '금강경 강좌' 인기



대표적인 <금강경> 공부모임인 금강경독송회 통합법회에서 독경중인 외국인 불자들.

"방아를 다 찧었느냐?"

"다 찧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키질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늦게 오조홍인 대사는 혜능 행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아무도 모르게 <금강경>을 강의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은 이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날 밤 홍인 대사는 혜능을 선종의 제6조로 정하고 전법의 징표로 가사와 바루를 물려준다. 육조혜능 스님과 <금강경>과의 기연이다.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는 조계종헌의 규정에서 보듯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올초부터 불어닥친 간화선 수행붐을 타고 최근 <금강경>을 통해 선(禪)을 공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선교쌍수(禪敎雙修)의 바람직한 신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02-765-9602) 원장 지관 스님이 9월 24일부터 2년여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금강경 오가해(五家解)>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보문사와 공생선원도 '금강경 선해(禪解)' 강좌를 잇달아 연다. 보문사(02-823-7443)에서는 9월 14~20일 오전 11시 직지사 강주를 10년동안 역임하고 봉암사 해인사 동화사 백담사를 거쳐 백장암선원에서 정진중인 대진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한다. 공생선원(02-900-2448)에서는 선원장 무각 스님이 직접 9월 7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에 '선으로 푼 <금강경> 강좌'를 연다. 지난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불국사 문화회관(054-746-2211)에서 5개월동안 열리고 있는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의 '<금강경> 대강좌'도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강경>을 하루 7독송 하고 있는 금강경독송회(02-742-0172) 등 신행단체의 법회와 고양 흥덕사(02-381-7970) 등 각 사찰의 교양대학 강좌를 포함하면 '금강경 강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버리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금강경>이선 수행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경문에 나타난 핵심 수행법에 대해 알아본다.

▮선종의 소의경전이 된 까닭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택한 것은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 말 것을 강조한 정신" 때문이다. 또 인욕·보시바라밀 등을 강조한 <금강경> 실천행 역시 소의경전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에 포함된다. 육조혜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깨친 후 중시한 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무념행(無念行)의 실천

그렇다면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설을 듣고 견성하여 체득한 '반야삼매(般若三昧)'란 무엇일까.

혜능 스님에 따르면, 반야삼매란 자재해탈(自在解脫) 또는 무념행(無念行)이라고도 한다. 만법을 대하되 그 만법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유지하며 육근(六根)을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반야삼매는 만법 속에서 만법에 걸리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유지하는 무념행이자 자재해탈이다"고 말했다.

금강경 - 선객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

▮무상 · 무주 · 묘유의 실천

혜능 스님은 <금강경해의>의 머리말에서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無相), 무주(無住), 묘유(妙有)에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으며, 무주로 체를 삼고, 묘행으로 작용을 삼는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래 이 경전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게 하고 성품을 보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무상, 무주, 묘유 중에서 더욱 근본적인 것은 무상이라 할 수 있다. 무주는 상에 머물지 않음을 말하고, 묘유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무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등 네가지 개념을 떠남으로써 모든 아집을 깨뜨리고 참된 보시바라밀의 묘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기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소박하게는 대립, 분별, 집착을 버린 참 마음을 가짐으로써 너와 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보시를 행할 것을 말한다. 이 '머무는 바 없는 행'에 대해 조주 스님은 "부처님이 계신 곳은 머물지 말고 급히 지나가라"했고, 임제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말까지 했다. 대주 스님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佛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무주상 보시

<금강경>에서 '마땅히 상이 없는 마음(無相心)으로 보시한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구체적인 보살수행으로 꼽힌다. 밀양선원장 고목 스님은 무주상보시를 "주체로서의 마음도 없고 보시하는 객체로서의 물건도 보지 않으며, 보시를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음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철저한 공사상에 입각,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었을 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며, 반야지혜를 얻어 대각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머무름이 없는 보시'는 반야의 지혜로 일체법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데 있다.

▮스스로의 마음 항복받기

<금강경>에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항복 받는(降伏其心)' 문제를 주된 테마로 다루고 있다. 밝고 맑은 본성에 물든 잘못된 판단을 자기 부정으로 극복하는 수행이다. 보살은 모든 것을 (인욕한다는 생각도 없이) 인욕으로 참으며, 모든 사물에 탐욕심과 분별심을 내지 않으므로 참된 보시행을 할 수 있다.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지도법사는 이에 대해 "수행시에는 항상 지성심으로 몸으로는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입으로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찬탄하며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되새김을 연습함이니, 이것이 닦는 사람의 항복기심(降伏其心)이라."고 말한다.

▮늘 '지금 여기'에 살기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삼세심) 불가득'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불가득'이라고 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즉 절대적 현재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운문 스님의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는 말은 영원이 현재에 응축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선종에서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심은 마음이 텅 비어버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곧 일심(一心)이다.

▮금강경 공관법

"모든 있는 바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은 금강경 사구게를 중심으로 공관법(空觀法)을 닦을 것을 권한다. "분별 망상에 의해 나타난 일체의 법은 일시적인 꿈이요, 환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아침 이슬이요 번갯불이다. 실체가 없는 몸과 마음, 허깨비 같은 우주의 모습, 이 이치를 보고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자각하라"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2005 CALENDAR | 불기 2549년 단기 4338년 乙酉年
山寺
사진 · 윤명숙


大 30.5cm×30.5cm
小 30.5cm×22cm
해마다 좋은 달력을 제작해 불자님들께 365일 기쁨을 드려왔던 저희 불광문화사업부에서는
2005년도 달력 '산사'와 '수미산'을 정성 다해 제작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찰, 단체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산
사진 · 김규현

주문대상 : 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 문 처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 - 1/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 : 02) 420 - 3200
팩시밀리 : 02) 420 -3400
http://www.bulkwang.org
E - mail webmaster@bulkwang.org
매수 | 13매(표지포함)
제본 | 특수고급제본
주문부수 100부 이상 주문시 사찰명이나 단체명, 법회 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인쇄해드립니다.

요가학 석사 3명 국내 첫 배출

원광대 동양대학원 요가학과 류시현·김옥분·신정희 씨

요가 강좌가 줄을 잇고 요가 관련 물품이 연일 인기 품목에 오르고 있다. 그에 반해 요가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열기는 아직도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광대 동양대학원 요가학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요가학 석사 3인을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인도철학과 등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요가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한 요가학 전공자는 김옥분 · 류시현 · 신정희 씨가 처음이다. 국내 요가학 연구에 지표를 제시한 이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본다.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 원전 번역 연구 – 류시현 씨



원전을 번역한 작업으로 석사논문 통과라는 험난한 터널을 뚫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것은 국내 요가학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류시현 씨는 '요가의 가장 뛰어난 보석같은 우파니샤드'로 꼽히는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를 산스크리트어 원전 의미 그대로 살리며 번역, 요가학 연구의 길을 열었다.

류 씨는 "형이상학적인 요가의 원리를 강조하는 초기 우파니샤드와는 달리,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에서는 현실적인 수행의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어 현대인에게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실질적인 호흡법은 물론이고 수행의 장소와 시간, 택해야 할 음식까지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다.

이중번역 문제 해소 원전 새롭게 조명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국내에 거의 소개돼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산스크리트어 원전 자체의 번역작업도 더딘데다, 그나마 이뤄지는 번역조차 일본어 주석에 기댄 이중번역이 전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스크리트 주석을 보조삼아 원전을 새롭게 조명한 류 씨의 연구는 요가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한다.

류 씨는 "<요가 쭈다마니 우빠니샤드>가 제시하고 있는 요가수행의 6가지 요소, 꾼달리니 각성을 위한 수련법 등을 체화한다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며 "국내 요가 수련장에서도 철학에 근거한 요가수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가 꾼달리 우파니샤드 원전 번역 연구 – 김옥분 씨



"몸 깊은곳에 잠자고 있는 '꾼달리 샥티'가 깨어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애가 소멸된다."

요가의 목적은 '꾼달리 샥티의 일깨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꾼달리'는 척추기저부에 감겨져 있는 힘을 뜻하고, '샥티'는 모든 개체의 근본 에너지를 나타낸다. 김옥분 씨는 "'꾼달리 샥티'로 알려져 있는 인간의 잠재된 힘을 물질적 · 정신적 작용으로 생활 속에 끌어내고 싶어 <요가 꾼달리 우파니샤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문판과도 비교작업 오역·누락 등 바로잡아

김 씨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며 영문판 <Kundalini Tantra>와의 비교작업 역시 함께 전개했다. 영문 번역가인 수와미 사띠아난다 사라와띠 역시 요가 관련 저서와 역서를 상당수 남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영문 번역본은 수천 년 간의 시대적 간극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씨는 산스크리트어의 언어구성이 영문법보다는 우리말의 배열 순서에 더 가까운 이점을 살려 후대에 새롭게 추가 · 누락된 부분, 원전의 본뜻과 다른 풀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요가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예를 들어 김씨는 원전에서는 '경전이 없이는 스승도 성취하기가 힘들다'라고 표현된 것이 영어원문에서는 단지 '어렵다'라고만 표기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원전에서 '잘못된 아사나에 의한 질병'이라 표현한 것을 영어원문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영향'이라고 표현한 것을 짚어내기도 했다.

요가교육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신정희 씨



요가경전인 빠딴잘리의 <요가수트라>에는 요가의 8가지 요소가 언급된다. 그 가운데 가장 첫째 요소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 · 진실할 것 · 도둑질 하지 않을 것 · 음란하지 않을 것 · 소유하지 않을 것' 등의 사회적 계율인 '야마(yama)'이고, 두 번째 요소는 '청정 · 만족 · 고행 · 자기학습 · 신성에게 귀의함' 등의 개인적 계율인 '니야마(niyama)'를 가리킨다. 이 같은 계율이 인간의 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신정희 씨의 연구는 그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6세 어린이 268명 실험 요가 교육의 잇점 밝혀

오랜 기간 어린이 요가 교육을 담당해 온 신 씨는 '야마'와 '니야마'가 유아의 사회성 교육과 사회적 발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268명에게 실험을 실시했다.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1회 4개월 · 15개월 요가 수련교육을 실시한 후 사회성 검사에 임했고, 이들 검사결과를 '요가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집단'과 비교해 결론을 내렸다. 요가 수련을 거친 유아들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안정돼 있었으며 △또래의 유아들에 비해 보다 독립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가 그것이다.

신 씨는 "어린이 요가가 확대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 요가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문이 전무하다시피한 어린이 요가 연구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개념풀이

#우파니샤드(upanisad)

upa는 '가까이', ni는 '확실하게', sad는 '앉는다'. '제자가 스승 아래 아주 가까이 앉아 전수받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자가 스승과 일대 일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전수받는 '신중하고 엄격한 가르침'이자 '비밀스런 가르침'이다. 인도의 베다학파를 통해서 발전한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에 걸쳐 저술됐으며 그 종류만 해도 150종에서 200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요가에 관련된 우파니샤드는 50개 정도이며, 그 가운데 <아드바야타라카 우파니샤드>, <마하바키야 우파니샤드>,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 <요가 꾼달리 우파니샤드> 등 21개의 요가 우파니샤드가 전해지고 있다.

#요가의 6가지 요소

<요가 쭈다마니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요가의 6가지 요소는 아싸나(요가자세), 쁘라나야마(호흡법), 쁘라뜨야하라(감각기관의 제어 · 철수), 다라나(집중), 드야나(명상), 사마디(삼매)이다. 요가 수행자는 '아사나'를 통해서 질병이 없어지고 '쁘라나야마'를 행함으로써 죄를 태워 없앨 수 있다. 또한 '쁘라뜨야하라'는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마음의 일그러짐을 놓도록 도와주고, '다라나'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드야나'라는 명상, '사마디'라는 삼매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선의 세계 ㊽

돈오(頓悟) – 1

지금까지 선종에서 말하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 불립문자교외별전(不立文字敎外別傳)이라는 구절의 뜻을 하나하나 뜯어봄으로써 선의 교의(敎義)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에서 말하는 그 밖의 주요한 교의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돈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여기며, 모든 신행을 깨달음의 문제로 수렴시킨다. 적어도 교의 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단박에 터진다고 하는 점이 선종 교의의 가장 특징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돈오라고 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한국말로는 '몰록 깨친다'고 표현했다. 반면에, 점차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점오(漸悟)이다.

깨달음은 갑자기 단박에 터지는 것 점오 추구하는 교종 인정 안해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도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그게 참 아리송한 얘기이다. 우리의 일상 체험에서도 단박에 깨닫는 일이 있기는 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찾는데 어디에다 두었는지 아무리 끙끙거리며 기억을 더듬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니, 포기하고 별 생각 없이 다른 일 하고 있는 동안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수가 있다. 하지만 말만 들어도 거창한 불교의 깨달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그 깨달음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엄청난 수행이 쌓이고 쌓여서 무르익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열쇠 찾는 일의 예에서도, 따지고 보면 한참을 끙끙거리며 기억을 더듬고 애쓴 과정이 있었으니 나중에라도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리라. 인간사 모든 일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여긴다.

그런데도 선종에서는 돈오를 말한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오라야 옳다고 역설한다. 간혹 어투를 좀 누그러뜨려서, 교종에서는 점오(漸悟)지만 선에서는 돈오라고 한다. 유식(唯識) 사상에서 삼아승지겁 동안 환생을 거듭하면서 점차 공덕을 쌓고 수행을 닦으며 지극히 노력해야 마침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나, 화엄(華嚴) 사상에서 52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두고 교종에서는 점오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로 든다. 교종에서는 점오요 선에서는 돈오라 한다 해서, 교종의 점오도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선의 입장에서는 과격하게 말하자면 교종은 다 틀렸다. 좀 덜 과격하게 말하자면, 모자란다. 그러나, 깨달음에 점오와 돈오 두 가지가 있으며, 점오도 추구할 만하지만 돈오가 좀더 낫고, 그러니 점오를 추구하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종의 수증론(修證論)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선종의 입장이다. 그리고 교종이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점오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저 앞에서 말한 적이 있듯이, 선종은 교종에 대한 부인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 하였다. 교종은 불교의 교의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했다고 본다. 또는, 근본적으로 잘못 대변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불교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기에 점오를 추구한다고 본다. 돈오는 그만큼이나 선종의 교의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면 단박에 깨친다는 그 아리송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음 회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봉 행

대한불교원효종 제11대종정 추대식 및
제1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입추지절을 맞이하여 존체 금안 하시오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호로 원만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제11대 宗正 崔德山(秉一)大宗師의 椎戴式과 제13대 總務院長 金高山(壽元)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함께 나누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04년 9월 22일(음 8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총본산 금수사 ☎ 051)466-0977, 467-3316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제11대종정 추대위원회 위원장 종회의장 정도전

불광사 해운대 포교원 부처님 점안식 및
부경불교대학원 개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진리향기가 가득하기를 합장합니다.
금번 불광사에서는 해운대신도시의 대하프라자(대하목욕랜드)빌딩 7층에 불광포교원 및 부산경남 불교대학원 개원과 함께 부처님 점안식을 올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님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부처님의 진리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의 법화사상까지 불교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경전진리를 배울 선남선녀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례를 바랍니다.

부경불교대학원

불교대학원 교수법사 :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주지(양산 통도사 上 노전스님, 역임) 청봉스님

경전 교리	교육 내용	수 강 일	수강 시간	전 형 료	수 강 료	수강 자격
불교대학(낮)교리반	기초교리와 금강경 ※불교의식의 의미와 내용	매주 월요일(1년 과정)	오후 2:00, 4:00	2만원 교재대 포함	1만원	일반인 누구나
불교대학(밤)교리반	기초교리와 금강경	매주 월요일(1년 과정)	오후 7:00, 9:00		1만원	일반인 누구나
2005년부터 2006년부터	금강경 연구과정 법화경 연구과정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시간같음	교재대 (책 값)	1만원	교리반졸업자 동등자격
매주 土요일 | 염불강의 | 저녁 7~9시 | ※ 소리, 염불, 범음·범패						
한국고전 무용반	한국 고전무용과 불교무용 일체	매주 월요일	오후 1:00, 2:00	무용반 문의. 017-844-9500		

● 안무지도자 : 부산 삼성문화센터 한국무용 전임강사(부산시립무용단 안무지도자 역임) 조영선 선생
부경불교대학원생에 한하여 2개월간 무료강습 후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선발하여 특별지도함

◆ 개원일시 : 양력 2004년 9월 5일 오전 10시 (부처님 점안식, 학인모집)
◆ 불교대학 : 첫 개강일 2004년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 위 치 : 해운대<장산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10번 출구로 나와서 대하프라자(대하목욕랜드)빌딩 7층 701호
※ 당일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 포교원 부설 부산경남 불교대학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4번지 대하프라자 7층 701~703호

문의전화 불광포교원 : 051)703-4745 불광사 : 055)364-4747

영남범음 · 범패 통도소리 이수자 원장 석청봉 합장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1) '반야'를 그대로 쓸까, '지혜'로 번역해서 쓸까

'서양 개떡'에서 '피자'로

'번역'은 문명사적 교류와 창조의 과정에서 넘지 않으면 안 될 산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설 때 우리 또한 그 문제적 상황에 부닥쳤는데, 그 고민과 해결을 아쉽게도(?) 일본이 대신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주도적 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18 · 19세기에 걸쳐 서구문명과 문물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번역청을 설치하여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어휘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말의 적어도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전통식 개념이지만 의미가 달라진 것들을 포함하면 이 신조어들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언어체계를 구분해 주는 사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들 "한자면 한자지, 뭐, 다를 것이 있겠노?"라고 하시지, 전통식 한자와 근대식 한자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불교든 유교든, 동양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기가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체계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난해함과 모호함, 그리고 오해가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아니 되는 마당에 유효한 설득이나 학문적 축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 두 언어체계를 분명히 갈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대의 언어체계를 존중하고, 전통한문 용어와 어법들을 과감하게 '해석'하는 용기와 결단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달라진 언어를 전폭, 조건 없이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길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일반인들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동양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열고 있는 이 강좌도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개념에서 어법, 문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해부하여 당대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기염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를 그대로 쓸 것이냐, '지혜'로 번역해 쓸 것이냐

'금강반야'를 설명하다가 또 엇길로 샜습니다. 다시 기침 한번 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 혹은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듯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리하고, 견고하며, 그리고 무지 비쌉니다. 어떤 것도 잘라 버리면서, 그 자신은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결혼 예물이나 보석상에서 보듯이 비싸고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반야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혜능 스님은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오히려 불성 쪽에 귀속시켰지만…) 반야(般若)는 지혜(智慧)입니다. 그러나 반야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지혜와는 성격이 다른 어떤 것입니다. 이를테면 반야는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맺거나,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노하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반야는 또한, 같은 정신적 지혜라고는 해도, 유교의 일상적 도덕규범이나 도가의 은둔적 자연관조와도 매우 다른 '독특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갭이 너무 컸기에, 불교는 결국 번역어인 '지혜'보다 원어인 '반야'를 정착시켰습니다. 아시죠, 반야는 프라즈나(prjna)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그대로' 읊어 놓은 것입니다. 열반(涅槃)도 마찬가지이지요. 열반은 한자 자체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니르바나(nirvana)라는 말을 발음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니르바나도 무위(無爲)로 번역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장의 무위(無爲)와 불교의 니르바나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너무 크고, 이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었기에, 결국 원어인 열반을 그대로 쓰는 쪽으로 낙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번역의 역사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요. 언젠가 어느 한국 교포에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5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피자'라는 물건을 보고는 대뜸, '서양개떡'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태로 보면 피자는 오히려 두툼한 개떡보다 오히려 넓적한 '빈대떡'에 가깝지요. 그 할머니는 아마도 '형태'보다도, 맛도 형편없고 천한 음식이라는 '가치'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격의(格意) 불교의 시대

어쨌거나 처음 번역은 이렇게 낯선 물건의 형태와 속성, 가치 등에 입각해서 '근사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략은 오해를 가급적 줄이면서, 주변에 익숙한 물건을 연상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불교 또한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인도의 개념과 역사, 불교의 독특한 사유를 담고 있는 말들을 이방의 중국인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말들 가운데 가급적 비슷한 용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프라즈나는 지혜 니르바나는 무위, 아뇻다라삼약삼보디는 무상정등각으로 의역(意譯)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기원 후 불교가 수입되는 것과 더불어 수백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격의(格義)불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격의란 '의미(義)'를 '격자화(格子化)'한다는 뜻입니다. 인도불교의 낯설고 분방한 의미들은 이렇게 중국의 이미 존재하는 개념의 격자에 맞추어 구겨 넣어(?)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격자에서 부당하게 삐쳐 나오고 잘려나간 의미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려나간 부분이 본질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의 층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맥락이 섬세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이 격자화에 갇히기를 포기하고, 원래의 이름 그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는 반야로, 무위는 열반으로, 무상정등각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흡사 사람들이 외국에서 피자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도 피자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서양개떡'이나 '서양빈대떡'이 사라지고 본래 이름인 '피자'가 정착되듯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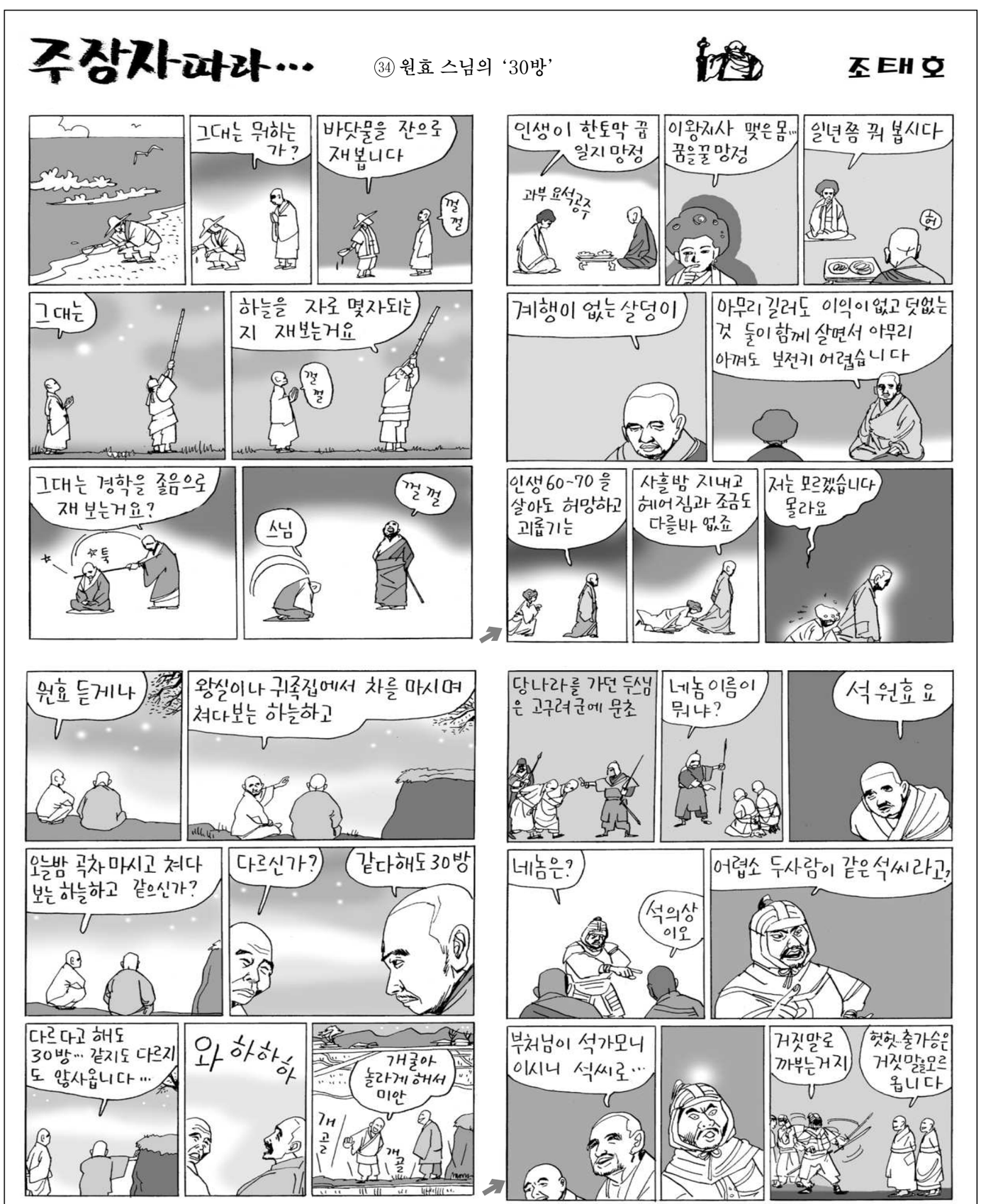
아, 이 과정이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 없이 따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대단히 탈권위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느 편이든 선택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즉, 어떤 이름을 쓸 것이냐는 오랜 세월에 걸친 대중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 종류의 번역어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완승을 거두거나, 또는 양쪽이 다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혜능 스님은 반야를 해설하면서 "당언(唐言)은 지혜(知慧)"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혜능 스님 당대만 해도 두 번역어들이 서로 공존 각축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야는 최종적으로 원어가 승리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 용어가 불교 전통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이 근본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34 원효 스님의 '30방'

조태호



원효 스님(617~686): 신라후기 지금의 경북 경산군 生. 32세에 황룡사로 출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일체유심론' 도리 깨침. <금강삼매경소> 등 23권 저술.

네티즌 교리문답

'크게 한번 죽으라(大死一番)'는 뜻은?

문 선어록에서 '크게 한번 죽으라(大死一番)'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거짓 나'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ID '초발심')

답1 : '대사일번'의 경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사망념의 분별심이 없어진 경지를 말합니다. 이 경지는 천길의 절벽에서 손을 놓는, 목숨을 건 구도의 정신으로 정진해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한번 죽는 큰 용맹정진으로 일체의 자아(我相, 人相)를 죽이고 참된 깨달음으로 되살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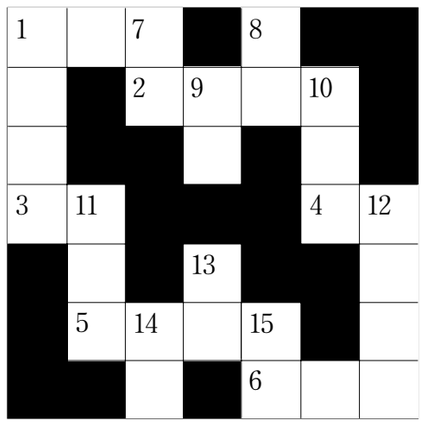
답2 : 살아서 망식이라고 하는 식정이 일어남으로서 모든 분별과 그로인한 집착이 생기게 되고 집착으로 인한 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득, 모든 식을 다 놓은 상태로 돌아가서 사물의 모든 경계에 무심해 보자는 말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도, '죽어야 산다'는 말도 실로 그래야만이 진실로 살게 되는 것을 일러서 '크게 죽어 크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심하건대 무슨 경계에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을 알아야(크게 죽을 줄 알아야) 무심의 경계에 담담함으로써 무심의 바다에서 무심의 파도를 타면서 고기도 잡고 조개도 줍고 헤엄도 치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암만요')

답3 : 인간이 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속된 삶에 매이게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라고만 느낀다면 그때 어떤 자유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인과의 사슬 안에서 흘러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는 인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우리가 몸과 완전히 비 동일시되어 있을 때에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아가 크게 한 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 넘어 참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이지요. ('자등명')

답3 :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이니 ('거짓 나'가) 죽으란 말입니다. 거짓된 삶의 불을 끄라. 부패한 마음을 청소하라. 욕망에 불타는 육체를 소멸하라. 명상을 하며 삶을 깨끗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과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 2. 듣기 좋게 꾸민 글귀 3.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달리듯 걷는 육상경기 4.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하는 윤동주 시의 제목 5. 바이올린곡 치고이너바이젠(Zigeunerweisen)을 작곡한 이 6. 자연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각의 수의 합이 같게 만든 것.

세로 1. 불교의 유식사상을 설한 법상종 근본경전 7. 어떤 일의 맨 마지막, '○○를 장식했다' 8.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의 진리 9. 회사에서 내는 광고 10. 중국 당나라의 정사(正史)를 기록한 책 11. 묘향산에 있는 절로 서산 · 사명 대사가 주석했던 곳으로 유명 12. 시가를 통하여 행진하는 일 13.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주는 학위 14. 라듐이 알파 붕괴 할 때 생기는 희귀한 기체 방사성 원소로 원자 기호는 Rn 15. 주제라는 뜻의 외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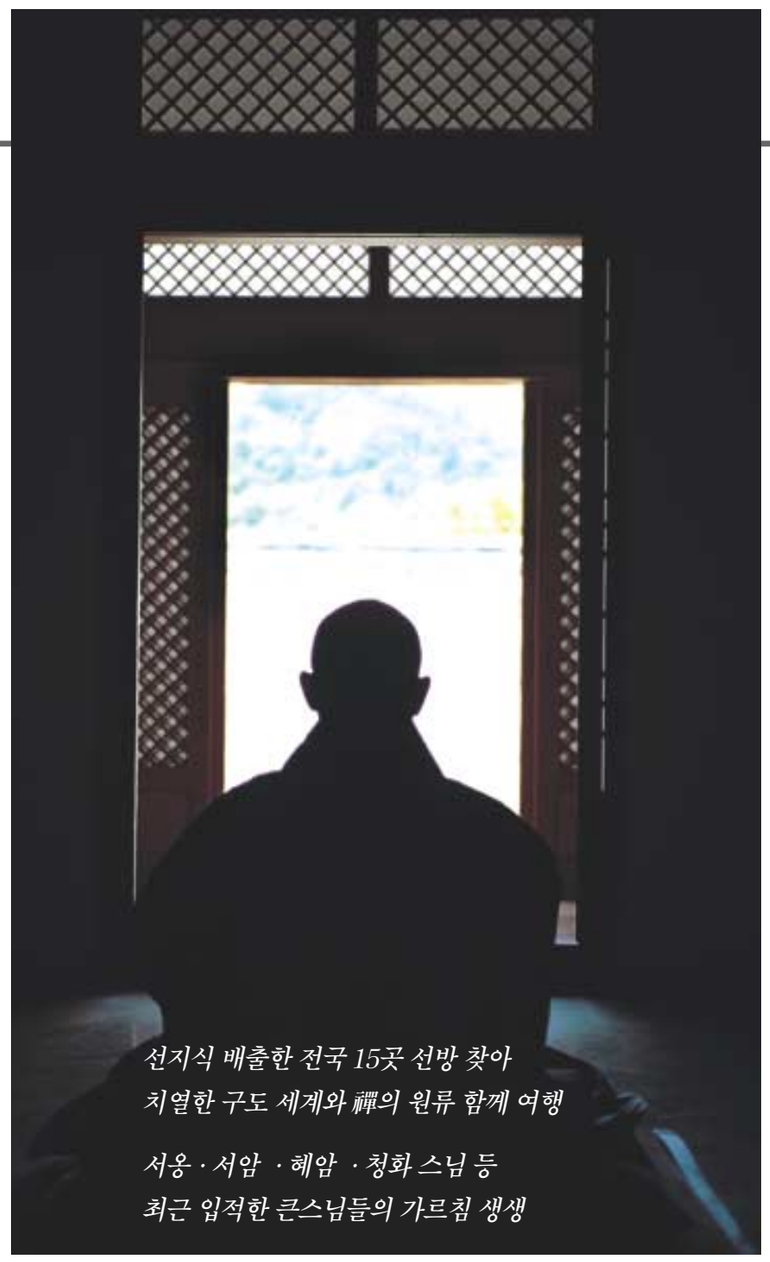


선방 가는길
글 정찬주 | 열림원 | 1만1천원

청산은 바삐 떠도는 흰구름 보며 웃네



해인사 소림원 유나 원융 스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저자 정찬주 씨(사진 왼쪽).



선지식 배출한 전국 15곳 선방 찾아
치열한 구도 세계와 禪의 원류 함께 여행

서옹 · 서암 · 혜암 · 청화 스님 등
최근 입적한 큰스님들의 가르침 생생

'이 곳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선원입니다. 참배객 등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사찰 경내 그중에서도 선원(禪院)이 있는 곳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문구다. 일주문 밖 매표소를 들어갈 때 설령 관광 온 기분이 들지라도 촌철살인 같은 '일반인 출입금지'라는 내용을 보는 순간 바로 이곳이 속세와 격리된 외딴섬(?)이라는 외경심이 전해진다.

<암자로 가는 길>의 저자 정찬주씨가 이번에는 암자가 아닌 바로 전국의 선방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한데 모아 책을 펴냈다. <선방 가는 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전



국 선원(禪院)에 대한 가이드북 정도로 생각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선방(禪房)을 선방답게 만들어주는 참된 선승(禪僧)들에 관한 이야기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가는 '나그네'임을 자칭하는 저자가 몸소 답사한 선원은 백양사 운문선원을 비롯해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사 소림원, 백장암 백장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등 총 15곳. 이 곳에서 저자는 깨달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지식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엄격함과 따스한 수행의 향훈을 저자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필체로 들려준다. 특히 그 선지식들중에는 해인총림의 혜암 방장 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의 서암 조실 스님, 성륜사 청화 조실 스님, 백양사 고불총림의 서옹 방장 스님과 같이 최근 2~3년 사이 입적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들도 포함돼 잠시나마 눈시울을 붉게 만든다.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은 백장암 백장선원에 머물며 수행할 때 수건 두 장을 벽에 걸어놓고 살았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면 "공부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끝이 없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므로 걸어놓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혜암 스님은 "적게 먹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을 남기며 무엇을 일단 하기로 맹세했으면 전 인생을 걸어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서옹 스님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마음 가짐으로 살겠느냐"고 일갈했다고 한다.

선방 생활이 견디기 힘든 고된 수행이라는 것은 성철 스님 제자이자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의 일화에서 잘 알 수 있다. 추운 겨울, 찬밥을 양재기에 떠서 김치 조각 하나 놓고 대충 먹고는 돌샘으로 나가 찬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는 게 법전 스님이 드신 공양의 전부였다. 그래도 스님은 "마음을 밝혀 눈을 떠라. 뜨겁게 한 생을 걸고 화두를 참구해서도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몽둥이로 나를 쳐라" 고 자신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해인사 소림원의 용맹정진은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안거 때마다 1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장좌불와가 기본이고, 30분 이상 졸거나 자리를 비우면 즉시 퇴출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8년 장좌불와로 수행 정신의 극점을 보인 성철 스님은 단연 귀감이다.

하루는 수행자가 성철 스님께 '공부가 안 된다' 고 하소연을 하자 스님은 바로 꾸짖었다고 한다. "니 정말 공부는 해보고 하는 소리냐."

이렇듯 선의 가풍이 살아있는 선방들의 풍경과 스님들의 일상, 여러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정갈하게 하게 정리한 저자의 글맛과 함께 사진작가 유동영의 빼어난 컬러 사진들이 선승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이 책의 두드러진 점이다.

이 책은 크게 두 갈래의 독특한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 갈래는 치열한 구도의 현장에서 지혜와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일종의 공간 여행이고, 다른 한 갈래는 선의 원류를 찾아 먼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선객들의 계보를 찾아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이다. 저자는 선의 정신과 진실한 나를 향해가는 이 여정을 통해 수행과 일상이 하나된 삶이야 말로 진정한 구도의 실천임을 깨닫게 해준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의 저술과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서울을 떠난 것이 공연한 객기를 부린 것 같아 가슴 철렁할 때는 방벽에 초의 스님의 시 구절을 적어 놓기까지 했다. '청산이 바삐 움직이는 흰 구름을 보고 비웃는다' 는 구절로 묵묵한 청산을 닮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구절로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재발심했다고 털어놓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1분의 지혜 고진하 지음 | 꿈꾸는 돌 | 9천5백원

1분은 우리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1분이라면 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1백여편의 일화와 잠언은 1분만에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 때로는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때로는 유익한 인생의 조언서로 삶의 무거운 때를 말끔히 씻어줘 언제 어디서건 부담없이 읽혀진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1분만큼의 짧은 시간은 아무일 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보낸 1시간보다도 더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준다. 그만큼 군더더기 없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아 한토막씩 읽다보면 가슴속이 무엇엔가로 꽉 채워진 느낌이 들 정도다. 또한 일상의 삶에 지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 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도 빈 항아리처럼 자신을 비우는 법을 함께 가르쳐준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의 "혼탁한 세상에서 만나는 고진하 시인의 고요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넌지시 깨우쳐 준다. 가끔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 크진 않지만 강한 외침으로 우리를 일깨워 줄 책이다."라는 추천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1분 찾기

삶의 묵은 때 씻어줄 감동 가득한 잠언집

그중 감명 깊었던 일화 두 토막을 소개한다. 어린 수도자 하나가 사원에서 경전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스승이 다가서서 물었다. "무슨 경전이냐?"

수도자가 공손히 대답했다. "유마경인데요."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었다. "뭘 읽었으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너는 무슨 경전이냔 말이다." 이 말에 어린 수도자는 퍼뜩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야기 속의 영적 스승은 수도자에게 문자로 쓰인 경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을 읽고 되돌아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성이 모두 자기 자신 속에 있으니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읽을 것을 권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 더 소개한다. 폴란드 태생의 랍비 하페즈 하윔의 이야기다. 하페즈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한 여행자가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 유명한 랍비의 집인데도 방도 하나밖에 없고, 그 방마저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여행자는 무척 놀랐다. 가구래야 고작 탁자와 긴 의자 하나뿐이었다.

"랍비여, 집엔 왜 가구가 별로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 가구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랍비 하페즈가 여행자에게 반문했다.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소?" "제 가구라니요? 전 여행을 온 사람 아닙니까 여행을 온 사람이 무슨 가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 하페즈가 말했다. "허허, 나 역시 마찬가지요. 나도 이곳에 여행을 온 사람일 뿐이오!"

이렇듯 짤막한 글들이지만 술술 읽혀지고 읽음과 동시에 고개가 금방 끄덕여질 정도로 내용도 쉽고 간결해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다. ■김동현 (영서방송 PD)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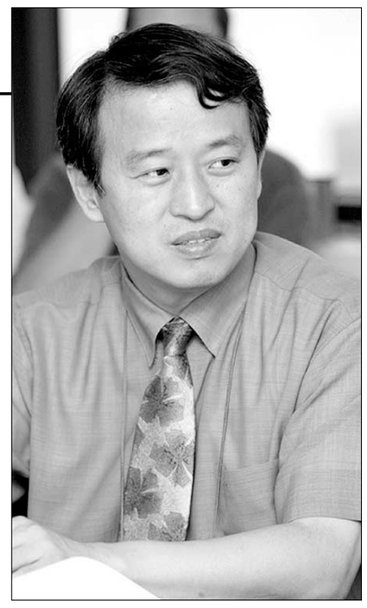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해체 논리 알면 중론이 보인다

김성철 교수 '중론' 해설서 11년만에 다시 써


108수의 게송으로 <중론>의 사상을 풀이한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중관학 연구로 유명한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가 <중론(中論)>을 쉽게 풀어 쓴 해설서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을 펴냈다. 길고 난해한 제목과는 달리, 책은 초보 불자들도 <중론>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읽힌다. 그동안 <중론>의 '논리 해탈'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거나, 김 교수의 전작 <중론>(경서원, 1993)에 실린 해설이 아쉬웠던 독자라면 읽을 만하다.

그렇다면 <중론>이란 어떤 책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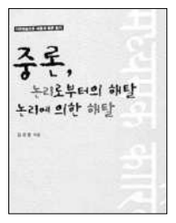
<중론>은 기원 후 150년경의 불교학자 용수(龍樹, 150~250년 경)가 중도와 공에 대해 해설한 대승불교의 대표적 논서다. '중론'은 '중도(中道)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한 문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도는 '사상적 중도'를 의미한다. '사상적 중도'란 '무엇이 있다, 없다' 혹은 '무엇이 같다, 다르다'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뜻한다.

<중론>은 총 27장 450여 수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게송들은 그 내용에 따라 '논리적 게송' '선언적 게송' 그리고 '비유적 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김 교수는 <중론> 전체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귀경게(歸敬偈) 이외에 '논리적 게송'을 중심으로 그 중요도가 높고 의미가 명확한 108수를 가려 뽑아 설명하고 있다.

1부 '<중론>을 읽기 전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 용수의 생애와 저술, <중론>의 특징과 공부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게송을 읽기 전에 <중론>을 공부하는 법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론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선언(宣言)들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되고, 해체의 논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수가 사용한 이 해체의 논리는 바로 '4구비판(四句批判)'이다. 4구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방향, 즉 긍정과 부정,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것,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을 모두 비판함으로써 중도적인 조망(觀)을 제공하는 것을 '4구비판의 논리'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2부 '가려 뽑은 <중론>'에서 108수의 게송을 하나하나 읊으며 용수의 주요 사상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간다. 불교 전문용어 중에서도 '반야'나 '중관' 같은 단어는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3부 '<중론>을 읽고 나서'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명제 자체도 '공'한 것에 포함된다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설명한다. 결국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세계관을 심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 주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김성철 지음
불교시대사 | 1만원

또한 김 교수는 '간화선과 <중론>, 그리고 부처님의 침묵'에서 중론의 논리해체법과 전통 간화선 수행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간화선의 화두는 직관을 사용해, <중론>은 분석을 통해 우리를 지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중론>은 선불교와 초기불교를 연결해 주는 논리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론>이 전통 간화선 수행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샨티니케탄>**(하진희 지음, 여름언덕, 1만2천원)=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일군 교육도시 샨티니케탄에 관한 이야기. 샨티니케탄의 비스바바라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가 10년에 걸쳐 그곳에서 공부하고 왕래하며 겪은 이야기들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과 프린스턴대학 교수 푼돌이 까끄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자라난 샨티니케탄의 자유로운 수업방식과 이 마을의 역사와 운영방식, 그리고 학교를 세운 타고르의 일대기 등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3>**(최준식 지음, 사계절, 1만5천원)=국제한국학회 회장 최준식 교수(이화여대)가 펴내는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세 번째 권에서는 원불교와 증산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원불교와 증산교를 통해 신종교가 한국 종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짚어보고 있다.



■ **<밥상머리 치유와 행복>**(김수현 지음, 중앙생활사, 1만2천9백원)=식생활 전문강사인 김수현 씨가 '밥상머리'에서 자연의 심성을 배우는 법을 소개한다. 책에서는 여성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나가는 법을 알려준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먹이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3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 림 원
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5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택	불교시대사
6	예세초겔	예세초겔	김 영 사
7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8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9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10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 용 범	수 희 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日 계율연구서 일부 풀이



비구계의 연구Ⅱ
히라카와 아키라 지음
혜능 스님 옮김
민족사 | 2만5천원

흔히 '계율'이라고 하면 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율의 연구는 단순한 율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교리와 사상 그리고 개인의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이나 인생관에 의해 그 사람의 생활이 규정됨과 동시에, 자신의 생활에 의해 사상이 좌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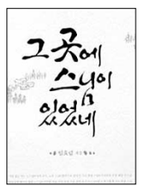
최근 혜능 스님이 펴낸 <비구계의 연구Ⅱ>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이 지켜야 할 250계에 관한 연구서인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의 <이백오십계의 연구> 전 4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다.

책에서는 부정법 2조와 사타법 30조를 다루고 있다. 각 계율의 갖는 의미와 계율이 성립된 인연담을 설명한 뒤 조문을 하나씩 해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조문을 산스크리트어본, 팔리어본, 티베트어본, 한역본과 함께 비교해 살피고 있다.

부정법(不定法)이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조사하여 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타법(捨墮法)이란 비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빠지는 죄다. 이 경우에는 죄에 저촉된 물건을 승가 혹은 다른 비구에게 내놓고 소유를 버린 뒤 참회를 하게 된다. "비구는 스스로 판매하며 이익을 구할 수 없다" "여분의 발우를 얻은 경우 10일간만 소지할 수 있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사타법의 조문을 통해 초기 비구의 일상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배시시 웃음 퍼지는 스님들의 수행일화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지음
바보새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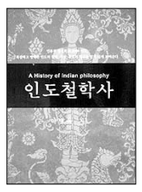
일화 하나. 상원사에 주석하던 운산 스님이 매일 새벽 도량석을 하는 스님에게 명주 목도리와 벙어리장갑을 선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스님. 자신도 목도리를 받겠다며 도량석 소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량석을 하다가 노스님의 방 앞에 멈춰 선 스님의 한 마디. "명주 목도리 사바하…."

아침 공양 후 노스님은 "좋은 진언은 감응이 빠른 법"이라며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주고, 그 스님은 "훌륭한 선객은 부처님의 감응을 직접 받지 않고 즉각 회향하는 것"이라며 목도리를 돌려줬다고 한다.

스님들의 수행일화를 듣다보면 스님에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한 모습을 발견하고 살며시 웃음 짓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를 반성하기도 한다.

효림 스님의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는 이러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매일 아침 백팔참회를 잊지 않았던 청담 스님과 조는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내리친 후 "너희를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단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혜암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들과 도반들에 대한 애정 어린 글을 볼 수 있다.

인도철학 강의 맥 짚기



인도철학사
이병욱 지음
운주사 | 1만원

'인류의 정신적 보고(寶庫)'라고도 할 수 있는 인도철학. 그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복잡한 '인도철학'의 흐름을 짚어주는 개설서 <인도철학사>가 나왔다.

이병욱 박사가 펴낸 이 책은 인도철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물은 아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인도철학을 가르치며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때문에 "인도철학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는 지은이의 말처럼 그리 어렵지 않게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지은이는 인도철학사를 맹아, 성립, 체계화, 전개 그리고 영국 지배 시기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책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불교철학을 같은 시대에 다루고, 흔히 '6사외도'라 불리는 6명의 사상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의 역사나 사상을 우위에 놓고 보는 선입관을 넘어서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전문용어나 학술적 근거에 대한 주(註)와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 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열역신서

增補版 증보판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Ⅰ, Ⅱ型
太陰人 Ⅰ, Ⅱ型
少陽人 Ⅰ, Ⅱ型
少陰人 Ⅰ, Ⅱ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숙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욕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세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젼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절친한 친구였던 청담 스님을 굵은 선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박생광 화백의 '열반의 청담 대종사'.

숨 멎을 듯한 원색의 美

박생광 화백 탄생 1백주년 회고전 풍성

"예술가란 죽은 뒤가 아니고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이리라."(작곡가 드뷔시)

현대에 들어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음악가와 미술가, 작가 등 예술가들에게서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살아생전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게르니카의 '피카소', 절규의 '뭉크', 자화상의 '샤갈' 등 미술가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올해로 탄생 1백주년을 맞은 내고(乃古) 박생광 화백(1904~1985) 역시 75세를 넘어서까지도 화단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오히려 '왜색풍'이란 혹평속에서 화단의 주변만을 맴도는 불우한 화가였다. 그러다 죽기 7년전인 78세가 돼서야 겨우 백상기념관 개인전(1981),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인전(1984), 사후 호암 미술관 유작전(1985) 등 단 세 번의 전시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긋기 시작했다. 이유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한 근대 채색화의 대가란 것이었다. 생전에 이런 평가가 내려졌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의 탄생 1백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는 갔어도 그가 남긴 작품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늦게나마 갤러리현대(9월 8~24일)와 경기도 용인 이영미술관(9월 17일~10월 31일)에서 그를 기리는 대규모 회고전이 잇달아 열린다.

갤러리현대는 미술평론가 이구열 씨와 박 화백의 막내아들 박정 씨 등이 중심이 된 박생광기념사업회와 함께 회고전을 마련한다. 80년대 그의 대표 수묵채색화 50여점과 인도 성지순례에서 그린 스케치 30여점, 편지와 화구 등 유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중 원효대사, 이순신, 전봉준, 명성황후 등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화 시리즈와 토속적이고 민족성을 찾아낸 단청 기법의 '무속'과 '불교시리즈'는 눈여겨 볼만하다. 또 박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4일전까지 그렸다는 미완성작 '피리부는 노인'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악기를 부는 노인의 슬픈 모습이 담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전해준다.(02)734-6111

이영미술관의 '박생광 탄생 100주년 기념전'은 박 화백이 45년 해방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해 경남 진주에서 살던 1960년대까지 연대순으로 작품을 일목요연하게 벽에 걸었다. 독창적 세계가 짙은 '무녀' '토함산 일출' '무위사의 관음' '시왕도' 그리고 말년에 주로 그린 '녹두장군' '명성황후'와 같은 역사인물화를 합쳐 1백여점이 전시된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작

강렬한 오방색에 한국美 추구
사후 근대 채색화 대가로 인정
청담 대종사 등 미공개 10점 전시

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케치 40여점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박 화백과 진주농고 동창이자 절친한 죽마고우였던 청담 스님을 그린 '청담 스님 영정'(이영미술관 소장)과 '청담 스님'(도선사 암자인 현성정사 소장) 등 미공개 작품 10여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031)213-8223

한편 부산광역시립미술관(051-744-2604)도 '동양의 샤갈'이란 주제로 박생광 회고전을 11월말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이외에도 진주 경남도립미술관(055-211-0333)에서는 9월 9일~11월 4일,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기념전이 열린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무위사의 관음'.



'십장생'.



'무속'.

■박생광 화백은?

190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박생광(사진 위) 화백은 진주 농고에 입학한 14세때 친구 이찬호(청담 스님)와 함께 진주 호국사에 입산한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하산해 진주농고 일본인 미술교사의 주선으로 1920년 일본 교토로 미술 유학을 떠난다. 이후 1924년 일본 '선전(鮮展)'의 동양화 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1929년 '명랑미술전' 입선 등을 통해 일본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45년 귀국 후 진주에 정착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시켰고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는 '동해일출도' '의랑순국도' 등 민족성이 짙은 작품들을 주로 그렸다. 1982년 79세의 나이로 인도 불교 성지순례 길로 오른 뒤부터 불교에 심취해 1985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할때까지 '출가' '열반' 등 불교 작품과 역사 인물들을 많이 그렸다.

20년전 첫 유작전 기획 윤범모 교수
"불교미술 지향점 제시한 큰스승"

1985년 당시 호암미술관에서 박생광 유작전을 기획했던 윤범모 경원대 교수는 "한국적인 정서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박 화백의 작품은 20세기 국내외 화단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화법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완전한 불교작품이 아니면서도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돼 있으며, 동시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박 화백의 작품들은 현대 불교미술이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평했다. 또 윤 교수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비좁은 단칸방에서 살았던 박 화백이 500~1000호 정도의 대형 작품들을 그릴때마다 도화지를 말아가며 조금씩 그려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윤 교수는 "박 화백은 특히 경주 남산을 좋아해 이를 화폭으로 옮기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병이 악화돼 꿈을 실현시키기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6>



메달 놓쳤을 때 마음이 아픈 이유

마라톤을 끝으로 아테네 올림픽 경기가 모두 완료됐다. 200여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금메달을 향해 선전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여러 경기에서 선전해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관을 쓴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를 향해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태극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환희와 감동으로 눈엔 눈물이 고이고 가슴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진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만의 선수와 대만 사람들은 자국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 못하자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중국의 힘에 밀려 대만은 공식적으로 국가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메달 획득은 단순히 특정 경기 종목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기 민족 내지 자기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신념을 스포츠를 통해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상대하여 선전할 때 우리는 환호하고 즐거워한다. 밤늦게까지 지켜보았지만 전혀 피곤하지도 않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어이없게 타국의 선수에게 지게되면 낙담하게 된다. 잠을 참아가며 늦은 밤까지 지켜본 것을 후회하게 되고 피로가 엄습한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못한 나라의 선수와 경기를 하게되면 감정의 골곡이 더 심하다. 우리나라 선수의 승패에 가슴 조이며 초조해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가 참여하지 않은 경기를 지켜볼 땐 좀 더 여유있게 선수들의 기량과 재주를 지켜보며 즐긴다.

왜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를 지켜볼 땐 가슴 조이며 다른 나라 선수끼리의 경기엔 초연할 수 있을까? 다음의 경전(잡아함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율비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결박하거나 때리거나 꾸짖거나 혹 죽인다면, 네 마음에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이 일어나겠느냐?' 촌장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율비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내가 아끼는 사람이거나 원하는 사람이거나 애정을 두고 있는 이거나 서로 친한 이라면, 그가 결박되거나 맞거나, 혹 꾸짖음을 듣거나 죽임을 당할 때에, 저는 곧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중생에 대하여 내가 아끼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애정이 없거나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가 혹 결박되거나 맞거나, 꾸짖음을 듣거나 죽임을 당한다 한들 제가 어찌 쓸데없이 근심 · 슬픔 · 번민 · 고통을 일으키겠습니까?' "

촌장의 대답은 우리 중생들의 사고 방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애를 태우고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의 애정이 더 많이 간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고통이 비례하여 극심해 진다. 심지어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상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죽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가 정성 들여 키우던 애완견의 죽음만큼 고통스럽지 않다. 대상에 대한 애착 여부에 따라 고통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에게 생기는 갖가지 괴로움은 모두가 다 애욕이 근본이 된다. 괴로움은 애욕에서 생기고 애욕으로 인해 쌓인다. 그러므로 촌장이여! 만일 전혀 애착이 없으면 곧 근심과 괴로움의 번뇌도 없어질 것이니라."

애욕이나 애착은 대상을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 생기는 이기적인 감정이다. 배타적인 애착심 없이 경기를 본다면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올림픽 경기는 개개인의 기량을 겨루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12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올림픽 선수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 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올림픽은 개인의 역량과 덕을 가리는 선의의 경쟁이었지 국가나 민족의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 국제대회에선 배타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휩싸이지 말고 가장 훌륭한 기량을 다투는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슨 경기이든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의 선수와 경기할 때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나라와 경기할 땐 민족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해 배타적인 자국주의를 해소해야지 역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면 그런 스포츠는 하지도, 보지도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괴로움은 애착에서 생기고 쌓이는 감정
배타적 민족주의 벗어나면 즐길 수 있어



혜인 스님은 항상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통해 참 불자의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기 깨치고 남 편케하는 길



지상 백고좌

혜인 스님

(광덕사 회주)

단양 광덕사에 도착하자마자 산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형 크레인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대불이 들어선다는 백만불전(百萬佛殿) 불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혜인 스님을 발견했다. 근래 보기 드문 대작불사 현장을 뒤로하고 스님의 뒤를 따라 요사로 내려왔다.

인사를 올리고 근황을 여쭈니 "무고하다" 하신다. 한 말씀 듣고자 찾아뵈었다고 하니 스님은 대뜸 "불교가 무엇인지 아는가?"하고 되묻고는 게송을 읊으셨다.

원각산중생일수(圓覺山中生一樹)
개화천지미분전(開花天地未分前)
비청비백시비흑(非靑非白亦非黑)
부재춘풍부재추(不在春風不在秋)
무거무래역무주(無去無來亦無住)
무일물중무진장(無一物中無盡藏)

원각산에 한그루 나무가 살아있는데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꽃이 피었네.
그 색은 푸르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않으면 또한 검지도 아니하되
봄이나 가을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네.
오고 감이 없고 또한 머무른 바도 없건만
한물건도 없는 속에 무진장의 보배가 들었나니.

스님은 게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셨다.

"원각산을 찾으려니 그 모양이 없습니다. 이런 산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심을 막 해요. 헌데 그 산에 한그루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속에는 일체의 한 물건도 없는데, 그 속에 또 무진장 보배 창고가 있다 합니다. 온갖 금은보화, 성인(聖人), 지옥이 모두 이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이는 이 나무를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우주'라고도 부르는데 다들 제 맘대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불교의 '무변광대(無邊廣大)'함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일평생을 이 마음이란 놈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찾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잘 사용하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의 근본은 마음을 찾는 종교요, 마음을 보는 종교요, 마음을 아는 종교요, 마음을 깨닫는 종교요,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덧붙였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교를 믿는 것은 마치 '소리 나지 않는 북'과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죠. 불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서 불교를 믿어야 합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혜인 스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러 주었다.

"나는 불자님들을 대할 때 마다 늘 하심(下心)하는 마음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매사에 하심할 줄 알아야 해요. 하심은 자신을 깨치고 남을 편하게 하고, 부처님 가신 길을 한 걸음씩 좇는 수행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경경>에 '무상즉불(無相則佛)'이고 '유상즉중생(有相則衆生)'이라고 했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生황토

활성생황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황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황토 반죽은 적정 접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황토의 기능
원적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활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활성생황토로 시공한 내부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황성생황토 제품을 ...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생황토로 시공된 벽

활성 생황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제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음능력 및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황토시공
•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늘 상에 얽매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더 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요즘 정치판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놈, 저놈 하고 함부로 험구를 퍼붓는 일이 다반사더라구요. 면전이 아니라고 남을 낮추는 것은 더욱 잘못된 거죠. 항상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세요. 고인(古人)의 말씀에 '도가 높은 자는 마음을 더욱 적게 쓰고, 벼슬이 높을 수록 항상 뜻을 낮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복은 손 모아서 비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얼음이 많으면 물도 많다"

혜인 스님이 이렇게 하심을 강조하는 데는 은사였던 일타 스님의 가르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일타 스님은 스무 살에 대장경을 독파하고 스물여섯에 손가락 네 개를 연비해 부처님께 공양한 그야말로 '생이지지(生而知之)' 한 분이었다.

제방의 대율사로 존경 받으면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비로웠던 스승은 누구에게도 모질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혜인 스님은 요즘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일타 스님에게 기도를 올린다.

간혹 어떤 이들이 일타 스님과 음성이나 언행이 닮았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한없이 자비로웠던 스승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은 세월이 가도 변할 줄 모른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며 다들 아우성인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혜인 스님은 평소에 불자들에게 행복에 대한 법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질병, 전쟁, 취업, 재산, 자녀문제 등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불행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은사 스님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이 '얼음이 많으면 물이 많고, 얼음이 적으면 물도 적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보다는 난관에 당당히 맞서 물리치는 사람이 성취도 큰 법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심으로 불보살의 원력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도 어려서 출가했지만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무 살 무렵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은 후 관세음보살 염불에 무섭도록 집중하다보니 일순간 그동안의 난관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뒤에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한 것도 이런 신심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의 100만배 수행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늦은 나이에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참선공부를 시작하면서 상기병으로 고생했다.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던 스님에게 당시 방장이셨던 성철 스님이 100만배 수행을 권했다. 성철 스님은 '절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라'는 당부만 내린 채 회향할 때까지 말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다.

"100만 배를 하고 나니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때가 아마 서른 살 때였나 봅니다. 성철 스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동안 죄지은 것 모두 닦고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불법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 5000배를 하는데 쉬지 않고 쏟아지는 코피가 제일 문제였어요. 피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 다시 코피가 쏟아지곤 해서 애를 먹었어요. 무릎이 곪아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벌쩡해 지더군요. 그때 모든 것은 순간이고 육체의 고통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혜인 스님은 늘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100만배 수행해도 정성이 문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수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스님은 정작 자신의 100만배 수행을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했다.

"절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하심의 표현이죠. 단 한 배를 하더라도 정성으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대하듯 절해보세요. 진짜 절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님들처럼 용맹정진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참회의 절을 하다보면 어느날 문득 많이도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중생에게 참회의 공덕만큼 수승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혜인 스님은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참회를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말했다. 마치 스님들이 선(禪) 공부에 임하는 것처럼 내가 절을 하고 참회를 함으로써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때때로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절이나 참회라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고, 정성이 부족했다면 정성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64만평 규모 국제 신행도량 불사 추진

혜인 스님은 혜인(慧印) 스님은 1943년 남제주군에서 출생하여 14살에 출가했다.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62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 강원을 나와 동화사 금당선원 등에서 10안거를 성만하고 71년에는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제주 약천사를 중창했던 스님은 무서울 정도로 저돌적이다. 원력을 세우는 규모 또한 남다르다. 혜인 스님이 중창불사를 시작하면서 약천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이 됐다.

현재는 단양 도락산 광덕사에서 64만평 규모의 세계일화도량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세계 108개국 불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 신행도량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대형불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요즘, 혜인 스님은 불사는 어떤 의도로 왜 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지 무조건 대형불사라고 지탄받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지금 하고 있는 불사는 효봉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사해일가 세계일화(四海一家 世界一花)'라는 법구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것이라고 한다. 법문집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효림刊)이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 법철 스님 (上)

천주교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천진암(天眞庵)에 가서 변기영 신부를 만났을 때다. 천진암에서 찍은 홍보물에 불교에 대해서 잘못 표기한 것이 있어서 바로잡기를 요구하러 갔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천주교인이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인도에 간다며 나보고 인도를 몇 번이나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말을 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 마음속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가보겠다는 원을 세웠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

바쁜 법회활동으로 성지 순례를 많이 못하지만 불교방송이나 불교텔레비전에서 사찰순례를 가자고 하면 말없이 따라 나선다. 가는 도중에 사찰의 구조와 역사 및 불교의 기본 교리 등에 관



그림 · 문병성

해서 차를 갈아타면서 설명해주고 사찰에 가서도 아는 대로 전각의 구조나 가람배치와 스님이 야기를 해주면 신도들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사찰순례를 가 보면 사찰기둥마다 게송을 적어놓은 주련(柱聯)이 있고, 법당의 뒷벽에는 부처님의 일생이나 소의 발자국부터 뒤꽁무니 뿐 아니라 소를 잡아탄 소년 그리고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소 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선종(禪宗)의 마음 찾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그려 놓은 그림인 십우도(十牛圖)또는 심우도(尋牛圖)이다.

마음을 소에 비유하여 찾아가서 자기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거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다.

심우도의 마지막 그림 같은 스님이 바로 법철(法哲) 스님이다. 스님은 나의 사제다. 운산 스님을 모시고 정릉 천중사에서 같이 살았다. 은사스님을 회주로 모시고 내가 주지랍시고 살림을 맡고, 법철 스님과 사숙인 도종 스님과 다른 사제들 그리고 지금은 출가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경 법사 등 제법 많은 식구가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말이 주지이지 태고종 총무원 일이나 밖으로 경불련,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성북구 사암연합회 등 걸린 일이 많아서 많이 나가도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 나를 배려해서 사제들이 일을 나누어 맡아주었다.

그 중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솜덩이 같이 피곤해서 새빨간 눈을 하고서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가지고도 예불에 빠지지 않았던 법철 스님이야말로 든든한 기둥이었다.

학교에서의 모임을 파하고 들어온 시간이 열두시이건 새로 한시이건 꼭 예불을 모셨다. 처음에 내가 소임을 맡게 되자 "나 못박아 놓고 몰아다니려고 하지요?"하고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나는 우스개 소리인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절대로 내가 예불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스스로를 위해서 예불하시게. 나도 백암 스님께 배운 것이 있네." 예불을 지극히 여기는 마음은 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백암(栢巖) 스님께 배운 적이 있었다. 성북동 태고사에서 모시고 살 때 백암 스님은 우리들이 한 번이라도 예불을 빼먹을라치면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근엄하게 타이르셨다.

"중이 예불 한 번 빠지면 머슴이 쌀 한가마니

늦은밤 절에 돌아와도 예불 꼭 챙기는 수행자

불태워 없애버린 것과 같다. 단 세 번 절을 하더라도, 선사들이 죽비 세 번 치더라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법철 스님은 절에 살기는 했지만 낮에는 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정식 교사였다. 천중사는 도심속의 사찰이기는 해도 산에 자리하고 있어서 도량석 목탁이나 종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사찰이다. 도량석을 내가 하면 종성을 법철 스님이 하고, 도량석을 그가 하면 종성을 내가 했다. 장중한 음색인 나의 그것에 비해 법철 스님의 종성은 전통적인 음색의 비탄조라 마음의 울림이 컸다. 종마치 울리는 것부터가 정말 남다르게 제대로 배운 느낌이 들었다.

출가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지만 달빛이 시리게 들어오는 법당에 앉아 종마치를 치면서 장엄염불을 청아하게 하는 맛이야말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장엄염불은 시식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슬픈 곡조로 하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내용이 장중하고 깨달음의 소식을 담은 것이기에 힘 있게 하고 있지만 법철 스님은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계속)

이번 호부터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법현 스님은 중앙대 기계과를 나와 1985년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고 태고종 교무 · 총무부장,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경불련 공동대표, 정릉 천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태고종 교무부장,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를 맡고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수험생에게최고 은행석온열복대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불,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얀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작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독경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 격 : 10.000원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팩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척척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희귀 금강야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한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불 1인용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2단주,108, 손목염주 225.000원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또한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8염주,12단주 195.000원
12단주,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잉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불교용품점,개인사업자

■도서관 주요 프로그램

지역	도서관	주요 프로그램	일시	연락처
서울 (02)	강남도서관	강남도서관 한 책 읽기	8월 16일~9월 30일	
		인형극 공연(헨델과 그레텔)	9월 18일	3448-4744
		책잔치, 이야기잔치	10월 28일	
	강동도서관	인형극 공연(꿈꾸는 애벌레 등)	9월 9일	
		재미있게 학습하는 NIE(신문활용교육) 특강	9월 15일	483-0728
		강북문화정보센터우리도서관 그리기	9월 14일	
		5행시, 6행시로 짓는 우리 도서관 사랑	9월 17일	
	강서도서관	우리 함께 동화랑 놀자	10월 중	
		모범독서인 시상	9월 중	2653-1233
		도서교환전	9월 중	
	개포도서관	작가와의 대화	9월 16일	
		책 바꿔가기 장터	9월 16~20일	573-5780
		다독자 표창 및 간담회	9월 21일	
	고덕평생학습관	독서표어 및 포스터 모집 전시	9월 16~22일	
		강동 가족 문학의 밤	9월 25일	426-2063
		도서교환전	9월 14~17일	
	고척도서관	어린이 및 주부 독서회	9월 4일, 18일	
		미술작품 전시회	9월 23일~10월 4일	2615-0526
		어린이를 위한 동요, 동시 전시회	9월 15~21일	
	광진정보도서관	관내 소년, 소녀 가장 책 선물행사	9월 중	3437-5092
		독서 및 도서관 이용 가두 캠페인	9월 22일	
	구로도서관	어린이 독서퀴즈 공모 및 시상	9월 중	
		어린이 글쓰기 교실	9~11월	861-6495
		버스도서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 독서 캠페인	10월 중	
	금천구립정보도서관	가족사진 콘테스트	10월 중	
		도서 바꿔보기 행사	10월 2일	863-9545
		다독자 시상식	10월 23일	
	남산도서관	교양강좌 : 자녀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9월 15일	754-7338
		모범이용자 및 다독자 표창	9월 16일	
	도봉도서관	인형극, 정보탐구대회, 작가와의 대화	9월중	906-2668
	동대문도서관	인형극 공연(아기돼지 삼형제 등)	9월 20일	
		재활원순회독서지도	6회 실시	
		독후감상문모집	9월 13~24일	
	마포평생학습관	독후감쓰기대회	9월 15일	3141-6988
	서대문도서관	책 잔치 한마당	9월 중	
		독서회	9월 22~24일	
	성동문화정보센터	구민독서경진대회	9월 13일~10월 30일	
		독서퀴즈대회	9월 10,17,24일	2290-4604
		독서 인형극 공연	10월 2일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어린이 독후감 쓰기대회	9월 19일	962-1081
	송파도서관	책 나눔터	9월 17일	
		우량도서 목록배포	9월 중	404-7916
	양천도서관	NIE 전시회	9월 20일~10월 10일	
		인형극 공연(헨젤과 그레텔)	9월 17일	2643-3806
		문학 강연회(신영법의 고전독법)	9월 13일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글짓기 대회	9월 20일	736-8912
		어린이 독서운동교실	9월 16일	
		이야기실 운영	9월 중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 문화 한마당	9월 12일	3672-4447
	영등포평생학습관	모범 독서인 시상	9월 21일	2676-8883
	용산도서관	어린이 인형극 공연	9월 22일	
		해바라기 독서회	9월 18일	754-3612
		구연동화 특강	9월 25일	
	은평구립도서관	은평 시 문화제	10월 2일	
		어린이 우수도서 전시회	10월 1~10일	385-1671
	정독도서관	인형극 공연(헨젤과 그레텔)	9월 21일	
		부모교육 : 자녀독서지도 강좌	10월 7~8일	2011-5799
		우수독후감 공모 및 시상	10월 중	
	종로도서관	문화교실 도예반 작품전시회	9월 13~26일	
		문화교실 서예반 작품전시회	9월 13~26일	737-1703
		다독자 시상	9월 16일	
부산 (051)	시민도서관	독서골든벨을 울려라, 음악이 있는 시 낭송회 등	9월내내	810-8251
	중앙도서관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독서교육, 동화구연대회 등	〃	248-5752
	부전도서관	도서관알기 퀴즈대회, 이야기 들려주기 교실 등	〃	802-3096
	반송도서관	1일 도서관체험, 유아 책사랑 체험학습 등	〃	545-0103
	해운대도서관	북카페&북토크, 반짝 도서교환전 등	〃	742-2169
	구덕고서관	건강관련 자료 및 서평전시, 저학년 독서지도 등	〃	254-0922
	서동도서관	독서릴레이, 옛 이야기 들려주기 등	〃	522-0456
	구포도서관	독서생활특강, 알뜰 도서상품교환전 등	〃	332-9790
	사하도서관	초청강연회, 내가 만든 숲그림책 전시회 등	〃	203-0373
	연산도서관	마음치유책 목록 배부, 가족독서신문 공모 등	〃	759-3358
	명장도서관	기념가방 증정, 독서퀴즈왕 시상 등	〃	527-0583

영혼은 맑게 감성은 풍부하게

도서관으로 가을걷이 가자



엄마와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9월 '독서의 달' 맞아 전국도서관 행사 풍성

붉은 빛의 노을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가을은 책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 공공도서관과 서울문화재단,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다양한 책 읽기 캠페인과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을 독서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책 읽기 행사부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책나눔장터, 책만들기 체험, 책읽는 모습 디카 사진전까지. 그 종류만도 수십가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 일정들을 꼼꼼히 체크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올 가을 '책사냥' 에 나서보자.

주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9~10월 진행하는 '책읽는 서울' 독서운동과 어린이도서연구회가 9월 12일 여는 '제1회 어린이 책 문화 한마당' 등이 있다.

'책읽는 운동'은 서울시내 공공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기초예술-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도서교환전, 가족문학의 밤, 어린이 글짓이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책 문화 한마당'은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신화와 설화, 전설, 민담 등을 통해 민족과 문학의 뿌리를 찾도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부산시내 11개 공공도서관들은 시교육청과 함께 '읽으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음악이 있는 시 낭송회, 내가 만든 숲 그림책 등의 전시회를 열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정해 10월 14~16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게시판

공부합시다

금강경 대강좌 상도동 보문사가 직지사 전 강주 대진 스님 초청강의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강좌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에 보문사 법당에서 진행된다. (02)823-7443

무료 여성건강강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가을맞이 무료교양특강 '여성건강강좌'를 9월 9~30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3층 대법당에서 연다. 강좌는 갱년기를 대처하는 법과 유방암의 조기진단과 예방법, 호흡기 질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053)474-8228

영어법회 대전 자광사 국제선원이 외국인 스님과 함께 하는 영어법회와 템플스테이를 9월 11~12일 양일간 진행한다. 법회 및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다. (042)822-9220

함께 해요

청평사 조형물 공모 춘천시가 청평사에 설치할 조형물을 공모한다. 공모작품은 6억 2000만원 이내에 제작이 가능한 작품으로, 청평사에 얽힌 '공주와 상사뱀에 관한 전설'을 조영화한 상징물이어야 한다. 작품설치 계획서 접수는 9월 25일까지. (033)250-3060

청소년 인라인동아리 모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인라인 동아리 모임을 실시한다. 매주 첫째, 셋째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모임은 인라인 기초 강습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이뤄진다. (051)264-9033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 여성중앙회가 제2회 청소년대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실시한다.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메시지'로 만 12~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마감은 9월 11일까지. (02)928-2107

함께 배워보는 수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화교실 '손으로 여는 세상'을 9월 13일부터 연다. 3개월간 진행될 수화교실은 지역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수강료 월 1만원. (054)633-6415

마비환자 재활운동 평택시 보건소가 9월 16일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마비환자들에게 재활운동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관련 교육과 실습도 진행한다. (031)659-4707

한밤 영화감상회 인천 여성복지회관 산하 '여성의 광장'이 9월과 10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오후 8시 '한밤 영화감상회'를 개최한다. 상영작은 9월 17일 '슈렉(사진)' 10월 1일 '해리포터와 마법사' 15일 '해리포터와 비밀의방' 등이다. (032)815-7103



아동문화교실 용인시가 용인시 거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용인 노동복지회관과 신갈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아동문화교실을 연다. 문화교실은 로봇만들기, 마술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31)329-2114

농민문학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9월 10일까지 '제5회 화성시 농민문학제'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농민문학제는 자연의 신비와 과학영농, 잊혀져가는 미풍, 전통양속 등을 주제로 시, 수필, 서예, 시화 등 5개 부분으로 진행된다. (031)369-2571

청소년대축제 인천시가 청소년대축제를 9월 18일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인천지역 청소년동아리와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공연마당과 전시마당, 참여마당, 테마마당 등 나눠 다양하게 진행된다.

농촌테마마을 체험수기 농촌진흥청이 전국 27개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 체험수기와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며, 농진청 농촌생활자원과로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031)299-2428

부동산 재테크 특강 인천시 서구도서관이 9월 9~12일까지 부동산 재테크 특강을 무료 운영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좋은 아파트 선택하는 요령 및 부동산 투자개념 등 부동산 투자법을 강의한다. 선착순 50명에 한에. (032)578-0865

가곡사랑대축제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가곡사랑대축제'를 9월 11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원형무대에서 연다. 축제는 청소년합중창단들의 가곡경연대회와 가곡축제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051)868-075

여성학 무료강좌 서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건강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여성학 무료강좌 '새로운 가족관계'를 연다. 9월 14~15일 양일간 진행될 이번 강좌는 효과적인 부부관계와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02)2613-9367

전시



4人4色 다기 세계로



다기(茶器)는 도예가의 솜씨와 차인의 정신이 만나 하나의 예술품이 된다. 옛 선조들은 다기를 단순히 식생활용 그릇이 아니라, 도(道)를 닦는 방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기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전시회가 대거 열린다. 촉망받는 젊은 작가에서부터 내놓으라하는 다기장인에 이르기까지. 이번 가을에 가볼만한 4人4色 다기 전시회를 소개한다.

연잎다기로 유명한 도예가 **연파 신현철** 씨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찻그릇 전을 연다. 신 씨는 그간 전통적인 다기에서 한발 나아간 독창적인 다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2001년 중국 의흥 국제도예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 씨의 대표작 연잎다기를 비롯해 무궁화다기, 참새다기, 이도다완, 한모금 찻사발 등 다기 200여 점이 전시된다. (031) 762-2525

일본에까지 '도자기 한류바람'을 일으킨 도예의 명장을 만나고 싶다면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도천 천한봉** 대표(문경요)의 초대전 '흙을 보석으로 만든 56년 특별전'을 놓치지 말자. 천 씨는 1995년 대한민국 도예명장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일본 NHK에 '아시아 최고 문화인물'로 뽑힌 적이 있는 인물. 이번 개인전은 56년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천 씨가 작업했던 최고의 다기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2회씩 다도 시연이 열리며 둘째 날에는 일본차인 사가라 토시아끼라 씨를 초대해 일본말차 시연을 할 예정이다.(053)426-1515

전원 구성회 씨(미도요 대표)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기 안내서 <다완의 세계> 발간 기념 개인전을 연다. 한국차인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개인전에는 한국차인연합회 이사를 비롯한 여러 차인들의 차시연이 행해질 계획이다.(031)766-6655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의 참신한 전시회도 열린다. **도월 김경수** 씨는 대학에서 현대도예를 전공한 뒤 전통도예인 다기제작에 뛰어든 작가이다. 전시회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서면점에서 '내 마음의 차도구(吾心之茶具)'라는 주제로 열린다. (055)335-6066

개인소장 문화재 담장을 넘다

9월부터 5대 도시 순회 1200여점 특별 전시



고려청자의 멋을 볼 수 있는 '청자기린형필세'.

그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소장 문화재들이 대거 선보인다.

문화재청과 (사)한국고미술협회가 개인소장 문화재의 관리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개인소장 문화재 특별전'이 바로 그것. 특별전은 9월 1~15일 부산시립박물관을 시작으로 △대전시립박물관(9월 18일~10월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10월 21일~11월 9일) △국립대구박물관(11월 12~21일) △국립광주박물관(12월 1~15일) 등 전국 5대 도시 공공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출품되는 문화재는 서화, 조각, 공예, 고문서 및 전적, 민속품 등으로, 지역별 3~400여점씩 총 1200여점이다.

전시작 중에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청자기린형필세'와 사임당 신씨의 필치가 엿보이는 '초충도화첩7폭 전 사임당 신씨필' 등이 눈길을 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서는 협회 감정위원단과 역사학계권위자 등이 개인소장 물품을 감정해주는 '고미술품 무료감정' 부대행사도 진행된다.(02)732-2240

충돌과 만남-동인전, 그 시각의 차이

미술그룹 '동행' 14일까지 공평아트홀

사람과 자연, 사물 등 다양한 소재로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경희대 동문 미술그룹 '동행'이 9월 14일까지 공평아트홀에서 '충돌과 만남-동인전, 그 시각의 차이'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주제와 장르, 공간 등을 하나의 내용으로 개최해오던 그동안의 동인전과는 달리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도 개별 작가의 개성을 살리는 '개인전' 형식이다.

한국화단의 중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그룹은 각각 2편씩의 작품으로 각자가 구축해온 미적 세계를 표현한다.

이중 중후한 붓터치가 돋보이는 최한동의 '가시리'와 '바라기', 시각적으로 색감을 표현한 이인숙의 '생명-에너지' 등이 눈길을 끈다.



연꽃을 소재로 그린 김원교씨의 '因緣'.

신예그룹은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연'을 주제로 연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김원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계단 등을 진한 색상으로 표현한 허순영 등의 작품은 말 그대로 '젊음'과 '실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02)733-9512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희담석 어깨 찜질팩

근육통과 오십견, 장시간 근무 등으로 결린 어깨를 풀기에 좋은 희담석 어깨 찜질팩. 희담석은 원적외선이 다량 합류돼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회복을 돕는다. 찜질팩은 전자렌즈에 데우거나 끓은 물에 담가 사용하면 된다. 냉팩으로도 사용 가능. 가격:6만 6천원. (02)732-1520



상식 퍼즐 (20면) 정답

해	운	대		진		
심		미	사	여	구	
밀			고		당	
경	보				서	시
	현		박			가
	사	라	사	테		행
		돈		마	방	진

신행수기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하〉

유경남 (용인시 기흥읍)

1995년 6월 무더운 여름날 전 세계가 경악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회원들은 교대로 서울교육대학 운동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고귀한 가족의 생명을 빼앗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음료수를 권유하면서 그들과 한 달간을 함께 지낸 후 철수했다.

이때의 봉사활동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했으며, 참된 인욕바라밀과 보시바라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큰스님이 평소 하신 법문들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으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도리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40여년의 교직 생활을 하던 남편이 명예롭게 퇴직을 했다. 남편은 한 평생 외길만 걸어온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분이다. 나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다녔지만 아이들은 모두 순조롭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산다.

정년퇴직을 한 남편을 위해서 서초동 집을 비워놓고 지금은 조용하고 쾌적한 용인시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날은 아침 일찍 나서서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가는데, 적어도 2시간 넘게 걸린다.

그래도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봉사 장소에 도착한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90년대 초에 몇몇 서울대병원 교직원이 모여서 불우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함춘후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의료복지 환경은 매우 열악했었는데, 환자들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환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됐다. 후원회는 해가 거듭될 수록 성장해서 10주년 기념 행사 때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호수가 되었다고 모두가 감격해 마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함춘후원회에서 불우환자 돕기 자선바자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사랑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칠봉회 회원들도 매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많은 사랑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1년간 여러 팀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회를 한다. 20주년이 되는 연말 평가회는 평년보다 다양하게 개최되어 글짓기도 하고 포상도 했다. 그날의 주제는 자원봉사의 첫 자를 따서 4행시를 짓는 것이었는데, 나도 입상을 하게 됐다.

그 때 내가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란 아름다운 뜻을 나툼이요
원력이 크고 넓은 것은 깨달음의 나아감이라
큰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받듦이요
일마다 정성을 다함이 하늘공양과 같아라

자원봉사란 아름다운 뜻을 나툼이요
원력이 크고 넓은 것은 깨달음의 나아감이라
큰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받듦이요
일마다 정성을 다함이 하늘공양과 같아라



그림 · 김홍인

며칠 전, 나는 산사에 가서 깊어가는 가을의 경치에 흠뻑 젖어 큰스님도 친견하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 내내 큰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다.

"진정한 봉사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봉사인지를 모르고 아주 작은 것부터 헌신적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렇다. 나는 분명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도 했다. 어쩌면 내가 20여년 간 해온 일은 참된 봉사가 아닐지 모르겠다. 문득 한없이 부끄럽고 그렇게 내 자신이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솔선된 사랑과 희생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더 나아가서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 크고 넓은 바다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분 한분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더욱 큰 사랑을 이루고 이 사랑이 꽉 채워질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동체대비(同體大悲)가 공허한 가르침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자비행을 실천해 보아야 한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일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로 화현될 것이라 믿는다.

20여 년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랜 세월 나의 봉사활동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장호
하나은행 차장

'임제록 연의' 구하기위해 종성 스님 만나
"화두는 성성적적해야" 가르침 깊이 새겨

임제선원과 처음 인연이 닿은 때가 8년 전 이때쯤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 맞은편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전화통화로 알고 길을 나섰지만, 막상 근처에 도착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결국 법현(法玄) 스님과 두어 차례 통화를 더 한 후에야 땀 흘리는 수고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임제선원을 찾아가는 길이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과 참으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고는 이 산, 저 절 찾아다니며 큰스님 친견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신심(信心)이 부족한 탓으로 순간순간 닥쳐오는 인연에 흔들려서 꿀떡같은 참선공부를 지속해 가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 했을 뿐입니다. 공부 길로 바로 들지 못하고 길가에서 맴돌거나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제 천만다행으로 임제선원에 발걸음 한 이래로 종성(宗成) 스님을 모시고 법현 스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하고 있습니다. 세세생생 깜깜했던 무명을 훤히 밝혀 생사의 모순이 없는 본래자기로 돌아가고자 본래 빈 마음자리에 화두를 들고 참구하며 분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연도 당연'이랄까, 임제선원을 공부처로 삼게 되기까지는 엉뚱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백양사 서옹(西翁) 스님께서 <임제록연의>를 출판하셨다는 글을 보고 구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 백양사로 무작정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서옹 스님께서 전화를 직접 받으셨는데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서울 임제선원에 내 제자가 있으니 거기에 가면 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종성 스님께서 서옹 스님의 법제자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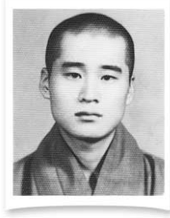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임제선원과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처음 선원에 들어서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았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스님께 사연을 말씀드리니 책 말씀은 안 하시고 "참 잘 왔다"고 말씀하시고는 참선공부의 요긴함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두가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이전부터 품고 있던 화두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화두가 항상 성성적적(惺惺寂寂)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책삼아 해주시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이란 이 한 말씀, "밤 하늘의 별과 같아 고요하고 고요하며 밝고 밝은 것을 성성적적이라고 하니 화두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씀, 어찌 놓치겠습니까. 책 한권을 구하기 위해 임제선원을 찾았는데 이때까지 공부의 끈을 이어오게 된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될 줄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천만다행이고 다행일 뿐입니다.

종성 스님의 법문은 우리들 모두 한두 번쯤 들었음직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법문들이 큰스님을 통해 새롭게 살아나 듣는 이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 심외무별법(心外無別法)'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심(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스님께서 공부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출가 전 스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라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흔히 쉬운 말로 마음 마음 하지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음을 알게 해서 참선 공부길로 자연스럽게 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

공 개 강 의
간(肝)청소비법
대 장 청소비법
220V 경락 소통법
간(肝)청소 방법과 재료 100% 전수함
소통법 당일 실기위주 100% 전수함
일 시 9月 12日(일요일) 12時 맛보기
무료강의 1時 본강의
장 소 수서역 4번출구 E-마트 뒤
목화오피스텔 504호
心川 자연건강쎈터
017-750-9900 [예약필수]

중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연수
연수목적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생업의 소득증대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의 설립과 유학시(편입), 포교사파송시(의료포교)
W.T.O 개방에 대비를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학교
중국 요녕성 중의연구원 (심양시)
연수기간
2004년 10월 5일 ~ 10월 9일 (4박 5일)
연수과목
중의침구학, 중국특수침법, 비만침법, 미용침법, 피부관리침법, 침구진단, 경락경혈, 단혈치료
연수 설명회 및 신청
2004년 9월 12일(일) 오후 2시 ~5시
중국 연수 유학 전문 중국 문화원
02)456-4248 / 016-221-4516
후원 : (주)관광포럼여행사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 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조청안내문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은혜를 어찌 말과 글로써 다 표현 하오리까!
염려하여주신 덕분에 현재 단양 광덕사는 대웅보전 불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2일(토)에는 대웅보전 불사현장에서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수륙천도대법회'**와 **'경로잔치'**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날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 없는 광영이겠습니다.
일 시 : 불기 2548년 10월 2일(토) 음. 8.19
- 수륙천도대법회 : 오전 11시
- 경로잔치 : 오후 2시
장 소 : 단양 광덕사 대웅보전 불사 현장
회주 혜인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 30-1
전화: 043)421-4700~1 연락처: 011-268-0006

'2004 국제도자협회(IAC) 한국총회' 현장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와 성신여대 다도예절학과는 8월 26일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린 '2004 IAC 한국총회'에서 '한국 전통차 시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제도자협회(IAC) 토니 플랭스 회장(사진 위)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특별전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 茶정신까지 알려지길…

"중국차나 일본차는 자주 마시지만 한국 녹차는 처음이에요. 다른 차에 비해 향이 너무 좋고 색깔도 아름다워요."(독일에서 온 코르넬리아 나겔)

세계 각국의 도예가와 미술 관계자들에게 우리 차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제도자협회(IAC,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가 개최한 '2004 IAC 한국총회'에서 선보인 '한국 전통차 시연'과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이 바로 그것.

현대 도자의 흐름을 제시하고 도자를 통한 국제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IAC는 2년마다 정기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서울총회'는 '아시아의 숨겨진 유산(The Hidden Legacy)'이라는 주제로 9월 4일까지 진행됐다. 총회에는 IAC 토니 플랭스(영국) 회장을 비롯, 루돌프 슈나이더(스위스), 웨인 힉비(미국), 히데오 마쓰모토(일본) 등 세계 34개국의 도예가와 큐레이터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녹차 시음 등 통한 우수성 홍보
'한국 차문화와 다기展' 등 행사

8월 26일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린 총회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한국 전통차 시연'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와 성신여대 다도예절학과가 함께 마련한 행사. 참가자들이 녹차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다도예절학과 학생들이 차를 우려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한 모금 한 모금 조심스레 차를 음미했다. 터키 이스탄불의 마르마라대학 귄거 귀나 교수는 "터키에서는 '차이'라고 부르는 홍차를 주로 마시는데, 녹차는 훨씬 더 맛이 깔끔하다"며 "차는 뜨겁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시원하다"고 차 맛을 평가했다.

시연회를 준비한 박동춘 소장은 "차의 맛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충남 홍성에서 직접 물을 길어오고 다구도 꼼꼼히 살펴 선별했다"며 "이번 행사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4 IAC 한국총회' 특별전으로 마련된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 차문화와 다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진 이번 전시는 크게 시대별 유물 전시와 현대작가들의 다기 전시공간, 다실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의 기원과 기능' '왕가와 불가의 차문화' '유불선 지식인들의 차' 등의 코너와 전통도자기법을 응용한 현대작가들의 다기 120여점이 전시된 다기 전시공간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는 "국제 도자미술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차문화의 개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이 전시를 통해 우리의 높은 정신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전은 오는 12월 5일까지 계속된다.(031)631-6504

이천=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중국차문화 강연' (9월 19일)

중국다예연구중심(원장 김영숙)은 중국의 차와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중구차문화 열린강연'을 9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래미안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차문화협회와 성보차문화협회, 통도사 성보박물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절강대 다학과 동계경 교수와 왕악비 부교수가 '중국차문화사'와 '중국 6대 다류의 성분 비교분석'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접수는 9월 10일까지. 참가비 3만원. (02)747-2326

〈일정〉
13:30~15:00 왕악비 부교수 강의 – '중국 6대 다류의 성분 비교분석'
15:00~15:30 중국다예연구소 중심 – 공부홍차 다예표연
15:30~16:30 노차 시음 및 다과, 중국 6대 다류 Tea Table 전시
16:30~18:00 동계경 교수 강의 – '중국 차문화사(당 · 송 · 명대 차문화사)'
18:00~19:00 강사와의 열린 문답

선암사, 한국 전통차문화 심포지엄 개최

"세계화 위해 노력해야 할 때"

한국 전통차의 문화와 효능을 밝히고, 그 우수성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한국 전통차 문화 심포지엄'이 8월 27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개최됐다.

선암사(주지 지허)와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상구)가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역 스님들과 순천대 김재기 총장을 비롯한 차인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발표에 앞서 지허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차의 문화와 역사, 그 효능과 특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차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차는 세계 속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상품이다"고 전제하고 "서로 자기 차가 좋다는 논쟁을 멈추고 세계 속에 각광받는 한국 차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지허스님-덖는 방식의 전통제다법 강조
김상현 교수- '구증구포' 문헌 첫 공개

이어 열린 학술발표에서 지허 스님은 '한국전통 자생차의 법제와 다 · 선맥'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영국차는 발효차이며 중국은 반발효, 일본은 찐차인 반면 우리 차는 덖음차이다"며 "찻잎에 있는 80%의 수분을 점진적으로 증발시켜 차맛을 함축하기 위해 여러 번 덖는다"고 우리 차의 제조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스님은 "차의 대중화에 생산성 높은 야부기다의 공헌이 인정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야부기다 종(차나무)에 대해 언급하고 "야부기다도 적절한 양의 비료와 전통제다법으로 덖어 좋은 차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호남의 다문화 전통'에서 호남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차문화를 소개하며 구전으로만 전하는 전통제다법인 '구증구포(九蒸九曝)'에 대한 문헌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 교수는 "19세기 이유원이 고경선사와 보림차를 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이다'고 평한 뒤 훗날 '강진 보림사 대밭의 차는 정약용이 체득하여 절의 승려에게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며 "이유원의 문집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전통제다법인 '구증구포'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순천대 최옥자 교수는 '국내산 야생 녹차 및 발효차의 특성'에서 "재배차는 비료로 인해 다엽의 질소함량 및 단맛 증가로 진딧물 등 해충이 발생하고 대량생산에 따른 농약재배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내산 야생 찻잎을 이용한 고품질 제다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험결과 녹차는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혈소판 응집효과, 항암작용,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반면 반발효차는 알레르기 억제, 항산화 작용이 높고, 발효차는 치석억제 및 심장병에 효과가 높다"며 "차는 발효할수록 항균력이 떨어져 발효하지 않은 녹차를 이용한 유과, 떡 등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전남의 구산선문계 사찰과 그 문화(순천대 최인선 교수)' '한국 전통차의 효능(국민대 심연옥 교수)'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됐다. 이준엽 기자



8월 27일 선암사와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개최한 '한국 전통차문화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Homepage:www.wonil-c.co.kr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청정도량에서 철야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진실한 믿음으로 좀 더 뛰어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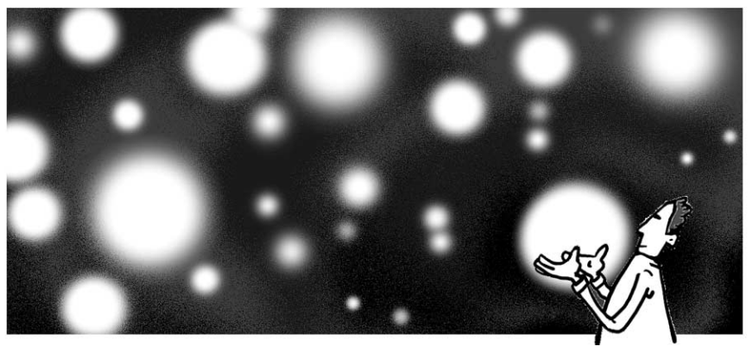
올림픽 응원을 하면서

문 몇 주 전부터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10위 안에 꼭 들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온 국민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수들의 경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응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선수들이 힘을 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면서 응원한다고 해도 선수들에게까지 전달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다가 내 몸을 이끌어 가는 나의 근본을 내가 믿듯이 선수들의 근본과도 본래 둘이 아니기에 마음과 마음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를 지켜볼 때도 그렇고 선수들의 승패에 대해서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들이고 내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공부가 한 계단 뛰어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감사드리며 공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답 마음이라는 거는 아주 광대무변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묘하냐? 마음은 천 리라도 멀지 않고 발 밑이라도 가깝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켜면 상대방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켜집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이죠. 한생각의 가설이요. 이건 두고두고 뭐 전기 가설 하듯이 꼭 해 놔야 가설이 되는 게 아니라 한생각의 가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묘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을 켜면 만 명이 가설이 됐다 해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구, 저놈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다면, 믿지 않는다고 말로 하고 끌어오려면 그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을 켜면 부모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도 마음으로 끌어당기지를 않고 말로 다끊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중용이요, 그것이 바로 묘법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일일이 파헤쳐 보면 참 신기한 일과 불가사의한 일이 많은데,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바들바들하고 애를 쓰면 육신이 벌써 망가지고 해(害)를 보고 그러는데 바둥바둥 뛰면 되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야지, 밝게. 그러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두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지.' 한다면 그것이 그냥 한 찰나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면 수십억 마리의 의식에 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수십억 마리에 불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 연결, 가설이 돼 있죠. 그러니깐 연방 연줄 연줄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부 하는 데는 한 발 계단을 올라섰다 내려섰다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가는 것도 서쪽이요, 서쪽에 가는 것도 남쪽이요, 남쪽에 가는 것도 북쪽이니, 북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마음은 이리로도 갔다 저리로도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한 계단을 올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으려면 벽돌 하나를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놔서 다 올라갈 때까지는 잠자코 그냥 쌓는 겁니다, 잠자코. 뭐 하나 더 갖다 놨느니 덜 갖다 놨느니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쌓아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그 봉우리는 한순간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침착하게 안으로 돌려서 굴리도록 하세요.


그림 · 최주현

보살의 길을 걷고 싶어요!

문 스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스님처럼 보살의 길을 가고자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며칠 전 '자네, 그 보살의 길이 무엇인고?' 하는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보살은 큰 달덩이 바위고요. 큰 달덩어린데 그 달덩어리는 세상을 다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보살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항상 얘기했듯이 내면에 영원한 불성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고 또는 '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히 가졌을 때에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털구녘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가고 옴이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또 생각하고, 또는 말 없이 말을 하고….

부처님의 평발이라는 것이 어째서 평발이라고 했는가. 저 땅 밑에 기어다니는 진드기 발 하나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발이에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부처님의 마음이 들고 나지 않으면서 들고 나시고, 들고 남이 없으면서 항상 한마음이 되어 주시고 한몸이 돼 주기 때문에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한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생각을 내니깐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니깐 법신이 되고 법신이 되니깐 보살이 되고, 이렇게 행하면서 행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 천백억화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선 약사가 되고 때에 따라선 관세음이 되고 때에 따라선 지장이 되고 때에 따라선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약사가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이 용신이 되고 지신이 되면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로운 점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생활해 가면서 공부하세요. 생활도 참선이니까, 그대로. 열심히 해 봐요.

그리고 이 도리를 모르는 청년들도 이끌어 주면서, 이렇게 해서 모두 그 마음들이 당당하고 도도하게 물이 흐르듯이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나고 우주 법계를 두루 한 눈에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는 가고 옴이 없이 한 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만히 이어져서 모두 가설이 됐다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 나부터 믿고 나부터 발견해야 하니까. 그리고 가정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해요.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거기서만이 물리를 터지게 해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친구니까. 수없는 과거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진화를 하고 이날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장본인부터 알아야 모든 바깥의 일들을 전부 알게 되죠.

직접 체험해 봐야만 벗어날 것 같은데

문 스님, 저는 인과응보도 뜻이 있어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병고 액난에 부딪치는 것도 자기 인과응보고 근본자리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 그 자체의 병고 액난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없게 되면 아무리 말로나 글로나 책으로 가르쳐도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병고 액난을 거쳐야만 진심으로 깨닫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모든 것을 나오는 그 자리에다 맡겨 놔라 한다면 진짜 체험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요?

답 맡겨 놓는다는 말은 어디다 던지듯이 내동댕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으로 몰록 내려놓고 관하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뛰어넘어라!' 이 소리죠. 왜냐하면 체험은 스스로 아파보고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냥 붙들고 있게 된다면 그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냥 헛바퀴가 도는 거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니, 좌선을 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맥박이 뛰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왜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세상으로 발전이 됐지요? 그래서 사무실에 열 사람이 일하던 거를 지금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백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도 지금 삼십 명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안다면 과거에 어떠한 입력이 된 것이 다 무효가 돼 버리죠. 무효가 되니까 지금 현실에 그 입력을 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력을 하는 건 좋은 마음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 좋은 일로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자에는 모르고 막 지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자에 입력해 놓은 것부터 녹이고 좋은 마음을 내면서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다면, 컴퓨터에 입력한 대로 나오는 것처럼 마음내는 그대로 좋은 일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인제는 그릇이 비면서 인과응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으니까, 그 작업만 자꾸 하니까 거기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저절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 이 물질은 한계가 있지만, 물질 아닌 마음이란 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의 어떠한 용도든지 걱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그거를 알게 되면 그때 무얼 알게 되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내 속도 알게 되고, 꽃나무나 저런 무정물이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의 마음도 알 수 있으니 그 고난을 몸소 겪어보지 않아도 모든 게 고행을 하고 가는 구다.' 하는 사실을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험이고 바로 탐험입니다. 탐험을 해서 모든 걸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내 몸뚱이로 하느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 계시던 그 당시에도 육신으로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몸뚱이로 고행을 하다가 몸뚱이가 떨어지면 그 생각도 떨어지는데 무얼 그렇게 몸뚱이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력을 기르고, 즉 말하자면 '실험을 하고 탐험을 해서 전체를 알라. 그러면 하나 버릴게 없느니라. 가질 것이 없는 반면에 버릴 게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좀 더 실험을 해 보면서 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종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종교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밖으로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문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의 법문을 탐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십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스님께서는 신이라는 것을 밖으로 찾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을 찾을 수 없게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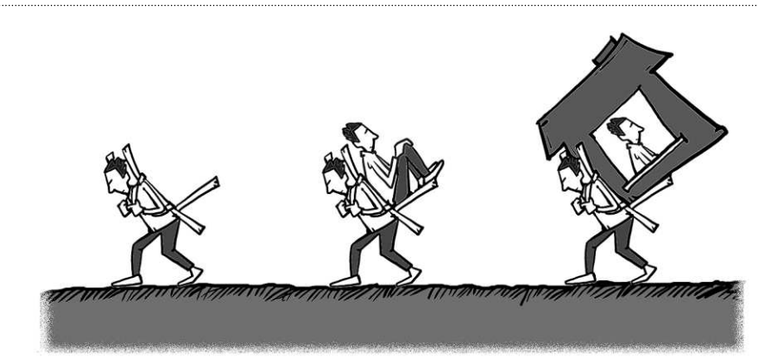
답 그 말은 자기에게 내재돼 있는 자성신을 찾으라고 그런 거지, 그렇다고 없는 걸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갖추어 있는데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다른 신을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십계뿐만이 아니라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모두 지켜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십계를 받든 오계를 받든 몽땅 주인공에 놓고 그냥 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계를 몇 배 더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십계를 받고서도 꼭 지켜야 한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거기다 맡겨 놓고 지키는 사람들은 십계 아니라 백계가 넘고, 이백이 넘는다, 삼백이 넘는다 해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대로 생활 속에서 여여하게 모가 나지 않게 그냥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모든 거를 거기다 놓고 굴리세요. 또 사람들이 모두 그렇잖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잘된 거는 더 잘 압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느냐는 거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모든 일에서 중도를 지키게 되니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면 강을 뛰어넘지 못하고 강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강을 뛰지 않게 되구요. 그런 예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침착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말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실험하고 탐험해서 전체를 알아야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모두 거기다 놓고 굴려야


그림 · 최주현

절은 몇 번을 해야 하는지요?

문 저희 집에서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지냅니다만,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절을 두 번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몇 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것도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해야 하겠죠. 법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겠다 할 때는, 삼배를 일배로 올리고, 또는 좀 여유있게 있을 수 있을 때는 삼배를 올리고 가셔도 되구요.

그래서 절을 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을 움죽거리는 작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몸을 움죽거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몸체가 움죽

☞30면으로 계속

물질 아닌 마음은 한계가 없어

☞29면에서 계속

거리게 되니까요. 마음 작용에 따라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는 육체니까 우선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놀리는 것은 걱정 마시고 바쁘면 바쁜 대로 하시고 또 바쁘지 않걸랑 바쁘지 않은 대로 하시고 그러세요. 상은 간편하게 차리더라도, 간편하다는 말은 가짓수를 줄이되 뜻으로 상을 차리라는 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종류만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절을 하는 것도 그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절을 한 번 하더라도 얼마만큼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마음을 내고 그 은덕에 감사함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재를 지낼 때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참석하니까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집안 풍습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절을 하면 됩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 이거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두 아들이 총으로 부모를 쏴서 죽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죽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답 예전에 누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디다. 그리고 고 다음에 묻기를 "죄가 없는 어린애들끼리 서로 놀다가 한 아이가 연탄집개로 친구의 정수리를 찍어서 죽였는데, 그러면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고 묻길래 그런 말을 했죠. "모르고 죄를 지은 거는 모르고 받게 되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유가 되는 거미와 깻벌레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무슨 벌레가 이만큼씩 한 게 씩씩씩씩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건 뭐든지 다 갉아 먹습니다. 그런데 두 노친네가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것을 안 죽이고는 안 되겠어서 깡통에다가 오줌을 담아 가지고는 그냥 반 깡통씩 한 깡통씩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것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50% 돌아가는 거는 못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는 거미고 하나는 깻벌레인데 하루는 어느 스님께서 탁발을 하러 오셨는데 오셔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당신 두 부부는 그 두 형제한테 뜯어 먹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나서는 스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무얼 했느냐 하면, 겻불을 피워서 두 군데에 놓고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 보니까 글쎄, 그 스님의 도력도 있겠죠. 한 쪽은 깻벌레이고 한 쪽에는 거미가 겻불에 죽어 가는데 그 많은 것을, 인과응보로써 그렇게 되는 거를 그 스님이 양쪽을 다 풀어 주려고 한 겁니다. 인도환생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빼느라고 그냥 전부 한 군데서 죽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없으면 오늘이 없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을….' 하는 거나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연결돼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화목도 없고, 연결이 없으면 싸움도 없고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한 대로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50%에 관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삼가고 더 한번 굴려서 생각해 보고, 욕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고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이르더라도 부드럽게 타이르면 서로 원수 질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단전호흡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문 마음공부는 정신적인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 몸은 육체와 정신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단련으로써 단전호흡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하면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육식보다는 채식을,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 생활을, 사회 생활보다는 신행 생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요?

답 단전호흡은 육체에 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돕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돕는 수련이지 온전히 정신을 돕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머리로 기를 빼지 못한다면, 넣으면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빼질 못한다면 그냥 정신분열자가 되고, 또 머리로다가 열이 모이면 그냥 피를 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경우를 내가 무척 많이 봤습니다. 단전호흡을 해서 잘못돼 가지고 온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한데 모으는 거를 하려면 마음으로 모으라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고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런다면 내놓을 건 없지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궁무진한 거죠.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해 가지곤 머리로다가 열이 나 가지고 그냥 벌겋게 돼 가지고 군 생활도 못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가 밥을 먹고 대변을 못 누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대로 컴퓨터에다, 그전에 과거에 입력이 된 컴퓨터에다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주인공! 나를 넘어뜨린 것도 너니까 나를 일으키는 것도 너다.' 그러고 일으켜졌으면 '감사하다!' 일으켜지지 않았으면 '일으켜지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맡겨 놓고 사는 방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단전을 한다 하고 그냥 꿇어앉았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지금 일분일초가 바쁜데 말입니다. 그거를 꾸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누운 것도 참선, 자는 것도 참선, 사랑하는 것도 참선, 모두 참선 아닌 게 없는데 모두들 절에 간다 그러면서 무슨 멸치꽁지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남편하고 자지도 말아야 하고, 아침에 또 백팔배를 해야 하고,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죄 굶주려 놓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저 혼자.

이게 가정을 이룩하는 부부입니까? 가정을 이룩하고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를 왜 모릅니까? 서로 다복하고 애들한테 도시락을 싸 주더라도 그렇고, 안 싸주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아요. 아무리 나쁘게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이거지요.

그럼으로써 자식도 잘못되지 않고 잘못 빗나가지 않고, 뿌리를 길러 주기 때문에 그 가장구나 이 파리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어이구,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러고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남편도 그렇고, 조금만 어디 가서 저거 해도 그냥 좀더 사랑하고 믿어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여기다 맡기세요, 잘못되지 않게. 주인공은 들이 아니니까. 가설이 돼 있지 않아요? 가설이 돼 있는데 무얼 믿지 못합니까. 가설이 돼 있으니 그 주먹 안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쪽 주먹 안에서도 가설이 돼 있고, 이쪽 주먹 안에서도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전기 가설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린 자가발전소거든요. 그러니 항상 그렇게 조금 못 믿으실 게 있더라도 '주인공밖에는 빨리 오게 할 수 없어. 당신, 빨리 와!' 하면, 어딘가 모르게 빨리 가고 싶어서 허둥지둥 온다는 거죠. 그게 자력의 통신입니다. 자력이 있으면서 통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포함해서 말입니다.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총만히 내가 자유자재해서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으로서의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 쓸 수 있으니 마음놀이이다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하는 거니 마음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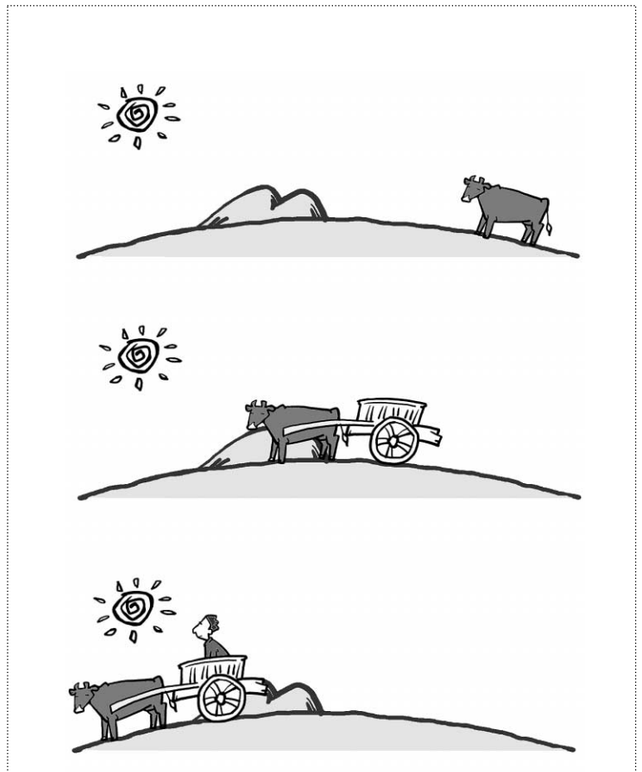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으로 몰록 내려 놓아야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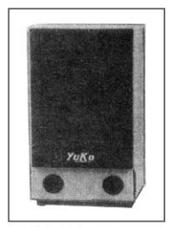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회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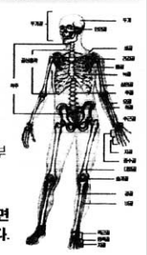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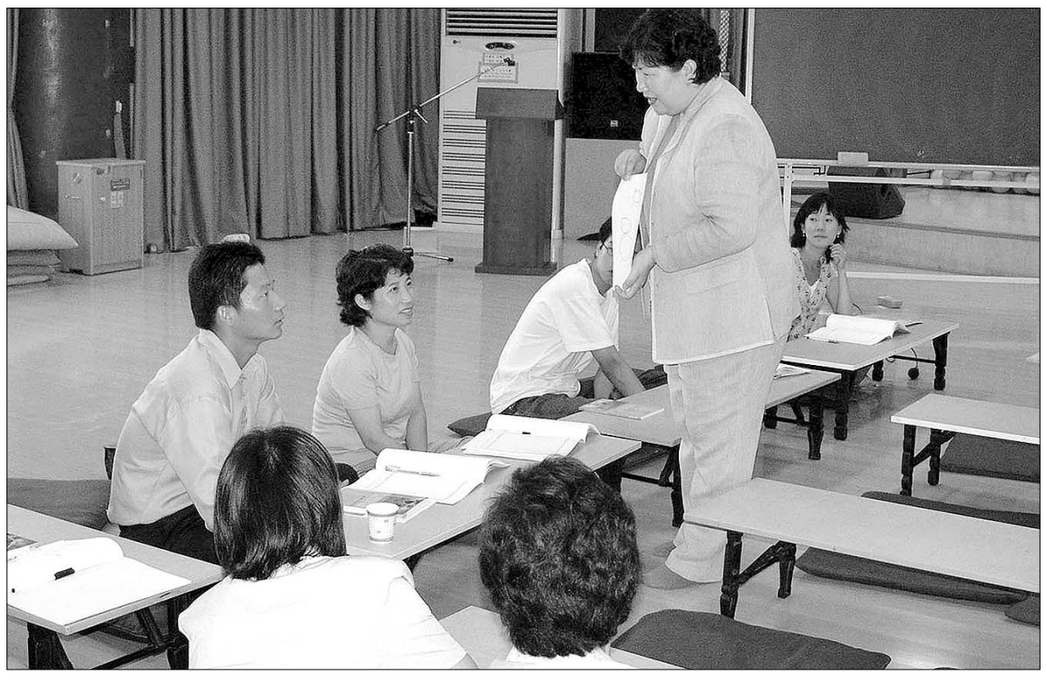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여성개발원 '혼인준비교실' 현장



이영호 교수가 예비부부들에게 '대화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릴레이 그림잇기 게임을 가지고 부부간의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영호 교수.

"진솔한 대화로 한마음 돼야"

8월 28일 오후 3시 강남 봉은사 보우당.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혼인준비교실-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열 다섯 명의 젊은 남녀가 열을 지어 앉아 그림그리기 삼매에 빠졌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릴레이 그림잇기 과제. 앞에 앉은 사람이 그린 그림을 10초간 본 뒤, 기억나는 대로 그려서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제다. 그러나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펜을 굴리는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부엉이의 모습은 뒤로 넘어갈수록 눈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멀찍이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영호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교수가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함께 들어 보이며 입을 연다.

"부엉이 그림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눈사람으로 변하듯,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 릴레이 그림잇기로 말 전달 과정 테스트
> '자비희사'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 중요
> 부부는 '연기적 존재' 양보 · 이해 해야

'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은 에고그램(egogram) 테스트에 몰두한다. 총 50개의 설문에 답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파트너와 서로 맞춰본다.

"두 분의 경우엔 '보호적인 기질'을 뜻하는 NP가 각각 34점과 41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네요. 이런 경우엔 이해심이 깊은 원만한 커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통제적 기질'을뜻하는 CP는 두 분 다 낮네요. 서로 간섭을 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대화의 시간은 가지도록 하되, 각자의 특성과 양자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차이를 차이대로 인정하면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뒤따른다. 그 같은 판단 위에서 풀어가는 진솔한 대화가 있다면 그 어떤 의견대립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에 불교를 접목시킨 강의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불자들의 네 가지 윤리적 자질인 '자비희사(慈悲喜捨)'를 늘 기억하여 상대방에게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비희사란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慈) △진심으로 슬픔에 공감하며(悲)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喜)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捨)을 말한다. 이 교수는 특히 '비'와 '희' 정신의 경우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백경임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또한 '불교와 결혼생활' 강연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연기적 존재"라는 뜻을 전했다. 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이기 때문에 양보와 이해의 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백 교수는 "결혼생활의 모든 덕목은 곧 불교의 근본정신과 다름없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리는 것이 다름아닌 불법의 실천"이라는 메시지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강연을 들은 박선영(동대문구 이문동 · 27) 씨는 "가끔씩 다툴 때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감정으로 화가 치솟았는데, 게임을 통해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나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이에 대한 대화를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며 밝게 웃었다.

청년 불자들을 위한 불교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파주 보광사 학송 스님은 "청년 불자들의 가정문제 상담에 여러모로 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혼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교육으로 결혼 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하에 올해 안에 강좌를 두 번 더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복한 불자가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혼한 불자를 위한 치유상담 프로그램 및 임신한 여성불자를 위한 명상태교 프로그램 등도 시작할 예정이다. (02)722-2102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 사주에에"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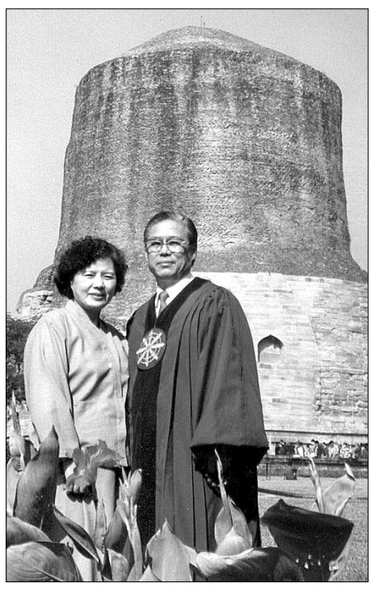
불법실천, 의지있으면 가능하죠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6>

김순경 거사네

"팔순이 가깝도록 경영일선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깨닫지요. 그 아무리 대단한 경영 기술일지라도 불교에서 얻는 경영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불교'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지만 불교 경영 철학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김순경 (새한팅스텐 주식회사 회장 · 76) 봉선사 총신도회장. 만해 한용운 스님이 '부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걸출한 작품들을 일궈냈듯이, 그는 '불교'가 등장하지 않는 '불교적 경영 마인드'로 주목받고 있다. '소리내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신행이요 포교'라는 김 거사 평소 생각이 경영과 맞물리면서 얻어진 결과다.



10여년전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 부부가 함께 인도의 녹야원으로 떠났다. 이들은 이곳에서 월운 스님을 모시고 한달간 용맹정진했다.

불교에서 얻은 지혜 '경영 마인드'로 활용
독경 · 사경 · 천일기도 통해 가정불교 실천

김 거사가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법륜을 굴리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다. 그는 조계종 25교구본사인 봉선사의 총신도회장직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80년대 초 포교사 시험을 통과하고 수락산 내원암에서 18년간 법회를 주관한 이력을 살려 그는 불교교양대학에서 특강을 갖기도 했고, 각종 법회와 수련회를 손수 기획해 유명무실해진 신도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불교, 생활 불교가 정착되는 일이에요. 혼자 깨닫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나의 신행이 가족들의 발심을 이끌어내고 가족들은 타인의 신행활동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시간을 마련했다. 불법 실천을 위한 기도 기간 중에는 가족 누구도 화를 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하루하루 정진을 거듭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반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칙으로 저녁을 굶기까지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독경과 사경으로 천일기도를 회향한 김 거사 가족은 봉선사 내에서도 모범 신행 가족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천일기도 후에도 가족들의 신행은 이어졌다. 김 거사 가족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접하며 향학열을 불태웠고, 뜻없이 되뇌이던 경전의 마디마디에 숨은 깊은 뜻을 가슴에 오롯이 새겼다. 불법의 진리는 언행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으며, 나이 고하를 불문한 묵묵한 실천 역시 끝이 없었다.

"포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면 충분합니다."

김 거사의 아내인 조원인(70) 보살 또한 그의 뜻을 이어 신도회장직을 성공적으로 꾸리며 활동에 돛을 달고 있다.

강신재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세영 Hi-Power 剪定(전정) 제품 set !
사찰 화단관리, 과수원관리 걱정 끝



• 고지절단 가위 톱 겸용 (3단 3m)

set 내용 및 가격
● 105set : ① +④ +⑤ +⑥ - 48,000원
● 205set : ① +③ +④ +⑤ +⑥ +⑦ +⑩ - 75,000원
● 305set :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00,000원
● 별도품목 : 고지 절단 가위 톱 겸용 (3단 3m) - 45,000원
※ 단체 주문 시 필요한 사양을 맞추어 드립니다.(카다로그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람)

추천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각 사찰과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제품은 생산 판매하는 세영산업에서 직접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보내드리며 판매 이익금은 군불교 포교 발전에 쓰여집니다.
군불교 후원 사찰 대구 정토원 고봉 합장 / 053)984-0409

세 영 산 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372번지
주문전화 053)358-1841,1843 / 핸드폰 011-528-2309
농협계좌 : 712-01-068522 예금주 윤희택(大鏡)

여성희소식 요실금
여성의 말 못하는 고민! 요실금! 요실금은 출산, 중년 이후 부터 나타나는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줌이 새는 배뇨이상으로 사회적 활동 또는 위생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요실금의 발생빈도는 중년 여성의 30%정도에서 요실금을 호소하며, 노인층에서는 발생빈도가 더욱 높으며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함과 수치심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점차 고립되고 정신적 장애를 유발 할 수도 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수치심과 정보 부족한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분들께
● 요실금 예방 목적을 생각하는 분
● 케겔운동이 지루하여 도중에 포기한 분
● 요실금 진단을 받은 분
● 요실금 수술하신 분
● 케겔운동을 권유 받는 분
●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

※ 주부 판매 사원 모집중
■ 각지역 영업 능력 있는분 환영. 기존 화장품 영업사원 환영
■ 취급 품목 : 여성 건강, 미용(바스트케어)용품 기능성 화장품(인태반 및 수입)

가자라이프 | www.GAJA.TV 여성상담실 (02) 969-8080

마하몰 추석용품 웰빙상품 지상기획전

고객님께 드리는 혜택

하나,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신한,LG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 할부 혜택 을 드립니다.
삼성,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삼성,신한카드 : 2004년 7월5일 부터 12월말까지. LG카드 : 2004년 7월5일 부터 9월말까지)
둘, 특별 이벤트 – 생활기능음반 구매고객에게 「치료시리즈 – 목욕미인CD1매」 증정 – **선착순**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기능성음반 아로마향

스트레스 해소, 몸과 마음의 릴렉스

뮤직테라피(Music Theraphy)에 기반을 둔 신개념의 웰빙뮤직
피부조직과 신체 장기에 직접 침투하는 놀라운 치유파동의 힘!
매일 일정 시간동안, 단지 듣는 것 만으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해소, 피부미용 효과까지!



숲(forest) 물(water) 즐거운다이어트 피부미인
숙면(쾌면) 어깨결림 말끔히 집중력향상 상업번성

생활기능음반 시리즈
~~15,000원~~ → 13,500원

- 자연시리즈 – 숲(fores), 물(water), 바람(wind), 바다(sea), 산(mountain)
- 미용시리즈 – 건강미인, 목욕미인, 메이크업, 즐거운다이어트, 피부미인
- 치료시리즈 – 숙면(쾌면), 어깨결림 말끔히, 변비가 말끔히, 금연, 고혈압
- 활력시리즈 – 집중력향상, 실력발휘, 상업번성, 플러스사고, 즐거운컴퓨터





자연의향기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드립니다.

뉴모닝스타 : 9,000원(개당)

모닝스타 : 6,500원(개당)
· 길이 13cm 50개입





견성향(지관단) : 15,000
· 참숯무연 아로마향
· 재질 : 천연 참숯, 라벤더 등
· 길이 : 13.5cm
· 중량 : 100g

건강용품 생활용품



희담석 찜질팩(신형)
· 39,8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 사용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희담석 좌복
· ~~198,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숯매트(1인용)
· 150,000원
·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참숯백탄 5kg



숯방석
· 35,000원
· 튕기성확보, 원적외선방사
· 흰색, 검정



수행화
· 40,000원
· 검정, 회색



37°기(氣)베개
· ~~60,000원~~ → 40,000원
·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 (Life Soul)이 부착
· 아이보리, 하늘색



천연연꽃비누
· 개당 : 15,000원
· 세트(12개) : 150,000원
· 고급식물성 오일과 천연재료를 첨가

건강식품 전통식품



홍삼액(60포)
· 120,000원
· 함량 : 홍삼71.58%(국산) (홍삼70%, 홍미삼30%)
· 80g × 60포



농협홍삼정과
· 900g : 177,000원
· 400g : 79,000원
· 함량 : 홍삼71.58%(국산)
· 홍삼(국산 4년근 이상)100%



홍삼진액(40포) :
· 88,000원
· 5년근 홍삼근 99.01%(국산) (홍삼20%, 홍미삼80%)
· 100g × 40포

홍삼절편(200g) : 46,000원
홍삼무설탕캔디 (200g x 3ea): 25,000원
홍삼젤리(500g x 3ea): 17,000원
홍삼유가(850g x 2ea): 16,000원



향적원 선물세트 1호2종 35,000원
· 혼합장아찌 1kg, 고추장 1kg



향적원 선물세트 6호2종 50,000원
· 상황버섯고추장 1kg, 상황버섯된장 1kg



상황버섯된장(1kg) 28,000원
· <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봉순씨가 직접 만든 <된장>

향적원 선물세트 3호3종 30,000원
· 청국장가루 200gx3개

향적원 선물세트 4호2종 50,000원
· 더덕장아찌 1kg, 매실장아찌 1kg

향적원 선물세트 5호5종 48,000원
· 청국장가루 200gx3개, 청국장환 200gx2개

茶&茶具



연향차 : 30,000원
· 유기농 재배한 퉁불사 연향차
· 연잎 100%, 40g



불성차(100g)
· 중작 : 35,000원
· 세작 : 50,000원
· 우전 : 100,000원
·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백련정차
· 50g : 18,000원
· 100g : 35,000원



삼각티백 백련차 (Triangle Tea Bag)
· ~~49,000원~~ → 39,800원



연마을 11호(백련차 선물세트)
· 32,000원



연마을 6호(잎차+수제다기세트)
· 58,000원



연마을 7호(잎차+3인다기)
· 83,000원

추천 특판상품



반야바라밀다심경판
88,000원
· 크기 : 770×230×25
· 재질 : 뉴송



관음도족자 : 35,000원
· 크기 : 42×90cm
· 작가 : 조중일



황토달마
~~98,000원~~ → 59,800원
· 지리산 황토100%



청자칠보투각향로
~~49,000원~~ → 39,800원
· 국보재현품
· 높이15.3 · 대좌지름11.2cm



에밀레 용걸이종
· 재질 : 청동, 구리, 주석
· 大 : 37,000원(지름12cm X 높이21cm
· 中 : 25,000원(지름8.5cm X 높이14.5cm
· 小 : 17,000원(지름6cm X 높이10cm



묘음법륜장(妙音法輪藏) 개금형
~~1,080,000원~~ → 864,000원
묘음법륜장(妙音法輪藏) 청동형
~~600,000원~~ → 430,000원
· 10개한정 특별할인판매
· 크 기: 320mm x 154mm



① 도실나한합장주(약9mm) 20,000원
② 산호합장주(6mm) 16,000원
③ 터어키석 주불 합장주(10mm) 7,000원
④ 무가공 패다라수 합장주(11mm) 3,500원

반야심경반지 펜던트

지혜의 반지 반야심경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외부(外部)각인된 金반지
· 14K Gold : 245,000원
· 18K Gold : 352,000원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내부(內部)각인된 金반지
· 14K Gold : 150,000원
· 18K Gold : 198,000원



반야심경 은(銀)반지
은 92.5% 로듐도금
크기 : 폭 약 8mm
· 38,500원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가로 18mm, 세로 33mm
반야심경 목걸이(사각)
가로 21mm, 세로 32mm

· **특징**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원형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옴자 양각)
· Silver 92.5% · **은 : 48,000원** ※ 팬던트와 체인 포함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Gold : 260,000원
· 18K Gold : 380,000원
※ 체인별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